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지향의 주류는 경제적 공리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는 서구적 사회구조를 뒤따르기 시작한 근대 이후의 한국사회가 걸어온 여정의 한 결과로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한국사회의 방향성과 오늘날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 또는 성찰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경제 제일주의적 가치 지향은 물질적 토대의 확장과 이로 인한 삶의 형태 변화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문화의 질적 향상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역할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IMF 사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그 결과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모습은 문화적 영역의 정체성 부재로 특징지을 수 있는 정도로 그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 문화를 책임질 청소년 문화의 경우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기성세대 문화의 혼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더불어 사회적 출세를 목적으로 한 대학입시 위주의 폐쇄적 교육으로 인한 정체성 및 자아 구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등 새로운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창조해나갈 수 있는 힘의 감소 또는 결여는 청소년 문화와 한국문화 전반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일탈 및 기타 부정적 사회현상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방향성의 설

정이 필요한 청소년 문화의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시도해보고, 특히 이를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감수성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적 대안들을 구성해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내용

이상과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화와 감수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이해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현상이 담겨져 있는 제반 개념들에 대한 타당한 해석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급증하여 왔고 또한 90년대 동서 이념갈등의 종식 이후 그러한 추세는 일종의 대안적 연구의 차원에서 활성화되어 왔지만,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추상적이며 막연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문화감수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논의 또는 기존 연구들과 관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청소년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도 문화논의를 바탕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문화의 차원을 사회 구조적인 영역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적 차원 혹은 집단적,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간주관적 차원에서 이해해봄으로써 문화감수성 개념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문화감수성이 지니고 있는 논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거시적 방향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

들을 구성하고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층적 태도를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해보고자 할 것이다.

정책적 대안의 구성은 그동안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문화감수성 관련 정책들에 대한 고찰과 서구(프랑스, 독일)의 대표적 정책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여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할 것이다.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 그 때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들을 정책의 지속적인 연계 선상에서 구성하여 적절히 시행하는 것만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정책적 대안들 또한 예외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또 다른 후속 관련 연구 및 정책의 구성 작업들에 대한 작은 출발점 또는 선행작업으로서의 의미만으로도 본 연구에 던져질 충분한 의미 있는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현상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구성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통합한 다차원적 분석방법(최 원기, 1998)이다. 이 방법은 비이분법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회구조적인 측면보다 인간 내적인 측면에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 그 결과의 긍정성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고자 하겠지만, 연구가 지니고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한계점을 고려하여 질문지 조사 분석 방법과 참여관찰 구조화 방법의 두 가지를 주로 이용하기로 한다. 질문지조사는 청소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문화감수성 정도를 살펴보는데 이용될 것이며, 참여관찰 구조

화 방법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일상 공간 속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감수성 실현의 정도를 해석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물론, 이들 두 방법에 의해 구성된 결과들은 상호 보충적 관점에서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문화감수성과 관련된 기존 정책들에 대한 분석이나 서구정책 모델들의 제시는 내용분석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앞서 이루어질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구성될 것이다.

## II. 청소년 문화와 문화감수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문화의 개념
2. 능동적 수용자론 : 대중의 문화적 실천
3. 한국 청소년 문화의 기본 성격
4. 신세대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의 특성
5. 문화감수성의 논리





## II. 청소년문화와 문화감수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문화의 개념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문화감수성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문화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범박한 의미에서 문화감수성이란 ‘문화를 오감으로 수용하는 능력’이라 풀이할 수 있지만 감수성의 문제는 이처럼 단순한 정의만으로 전모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문화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용자대중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주체라는 사실이 명확해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왔다. 그 첫 번째가 문화를 어떤 절대적 또는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것’, 즉 인간이 완벽함에 이르는 과정이나 상태라고 보는 정의이다. 이는 고도의 개인주의적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일종의 엘리트 의식, 혹은 특정 집단의 우월성에 대한 철학적 신념을 깔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세계는 문화적 소수와 비문화적 다수로 구분되며 문화적 소수의 리더십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된다.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대중사회가 형성되면서 문화적 소수의 지배가 도전받게 되었을 때 이들은 다수 대중의 저급한 문화, 즉 대중문화와 전통적인 엘리트의 문화, 즉 고급문화를 구분하는 엘리트주의적 대중문화론을 발전시켰다.

문화에 대한 또다른 정의의 방식은 문화를 인간의 생각과 경험들이 다양하게 기록된 지적·상상적 작업의 산물, 즉 텍스트로 보는 관점이다. 문화를 미디어의 산물로 이해하는 관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흔히

대중문화라고 할 때, 영화, 대중음악, TV드라마 등 일정한 양식을 가진 일련의 텍스트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러한 문화 개념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흔히 문화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주체인 대중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대중을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진다.

문화에 대한 세 번째 정의가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다루어져 온 개념으로 삶의 방식과 상징체계로서의 문화 개념이다. 영국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전통을 낳은 문화주의의 관점이 여기서 나온다. 문화주의는 문화의 개념을 엘리트주의적 성향으로부터 구출하여 새롭게 정의했고 정통 맑스주의자들과도 달리 문화의 사회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는 점에서 문화연구에 끼친 공이 매우 크다. 특히 문화주의는 인간의 능동적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문화가 결국 인간 실천의 산물임을 주장함으로써 문화를 구조의 산물로 보는 구조주의적 시각과 대립되는 관점을 구축했다. 문화주의로부터 시작된 영국의 문화연구는 이후 문화적 의미의 근원을 '구조'에 두는 구조주의의 시각과 문화를 인간적 실천의 영역으로 보는 문화주의의 시각을 통합하게 된다. 즉 문화는 일방적으로 지배적인 구조의 산물도 아니며, 그렇다고 순수한 인간의 실천도 아니며, 지배적인 구조의 힘과 인간의 실천의 힘이 만나 경쟁하고 투쟁하며 타협하고 갈등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김창남, 1998).

우리 사회의 문화 담론에서 문화 개념은 오랫동안 완성된 교양이라는 엘리트주의적 관점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 대중은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소비자로 정의되곤 했다. 이런 인식은 아직까지도 공공연히 주장되며 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저질 대중문화가 대중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시킨다'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청소년 정서를 해치기 때문에 규제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는 대중을 아무런 주체적 능력도 가지지 못한 수동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 은연중 작용하고 있

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를 수용하는 청소년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환경과 문화 산물들 자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문화 환경에 대해 판단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로부터 청소년들을 배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은 단지 이 능력 있는 판단자들에 의해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문화 산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수용자 대중을 단지 수동적 소비자로만 보는 시각은 이미 학술적 담론의 장에서 비판받고 부정된지 오래이다. 대중이라는 집단 자체를 아예 원자화되고 무기력한 개인의 집합으로 이해하면서 대중문화를 기성의 문화적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중사회론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문화가 지배 구조의 이데올로기 도구로서 허구적 욕망을 양산하고 대중의 허위적 주체를 구성한다는 이른바 지배이데올로기 이론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이러한 논의가 결국 문화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대중에 대한 무시 혹은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수용자 대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90년대 이후 한국의 문화 담론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2. 능동적 수용자론 : 대중의 문화적 실천

수용자 대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우선 수용자가 결코 주어진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텍스트 내에 불일치와 모순, 심지어 내적인 대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수용자가 미리 고정된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 정해진 방식대로 반응한

다는 전통적인 가정 대신 텍스트와 '수용자의 담론적 위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구축된다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스튜어트 홀(Hall, 1980)의 부호화/해독(encoding/decoding) 모델은 미디어의 선호된 의미가 수용자의 해독에 의해 변화하거나 전복될 수도 있는 방식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테면 텔레비전 뉴스의 의미가 텍스트 내에 담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집단의 해독 행위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의미구조가 존재하며 하나 이상의 해독이 가능하다. 물론 텍스트의 의미와 해독은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선호된 해독(preferred reading)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텍스트의 선호된 해독이 수용자의 해독 행위를 완전히 규정짓지는 못한다는 것, 즉 부호화와 해독이 반드시 상응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홀(Hall, 1980)은 텍스트의 구조가 아니라 해독자 자신이 사회적 조건에 반응하는 방식과 상응하는 텔레비전 해독의 세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지배적-헤게모니적 해독(dominant-hegemonic reading), 교섭적 해독(negotiated reading), 대립적 해독(oppositional reading)이 그것이다. 지배적-헤게모니적 해독이 주어진 텍스트의 선호된 해독을 따르는 것이라면 교섭적 해독은 일정한 수준에서의 타협을 의미하며 대립적 해독이란 선호된 해독을 전복시켜 대립적 의미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몰리(Morley, 1980)는 사회적 주체들의 계급적 조건에 따라 어떤 해독의 유형을 보이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수용자의 해독이 사회계급과 세 가지 해독 유형의 단순한 조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즉 사회적 지위나 계급이 해독 유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 바, 예컨대 건설공, 전문종사조합원, 고등교육을 받은 흑인 등과 같은 계급적 기반을 가진 집단들이 각기 상이한 해독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계급이라는 조건이 수용자의 해독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대기보다는 동일한 계급내에서 수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다양한 하위문화적 구성체들(subcultural formations)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준 것이

라 할 수 있다(김창남, 1995).

홀과 물리의 연구는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작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문화산업에 의한 텍스트의 생산이 수용자의 문화 수용을 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해독이 일어남을 보여줌으로써 이론바 지배이데올로기론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를 역사적 주체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들의 해독이 단순히 계급 관계로 환원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물리의 연구는 수용자의 문화적 실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 것이며, 다양한 하위문화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게 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와 관련하여 볼 때 해독자로서의 수용자라는 관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 집단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며 또 가장 많은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소비 집단이다. 그들의 문화 소비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름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독 행위이며 이를 통해 일정한 문화적 의미를 생산하는 행위이다. 청소년 집단은 이들이 공유하는 특유의 삶의 조건들로 인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해독의 패턴을 갖는다. 말하자면 청소년은 특유의 해독 패턴을 공유하는 하위문화적 구성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청소년들의 문화 수용 행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이들이 일정한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 즉 감수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대중을 일상 생활의 실천자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의미부여한 세르토(Certeau, 1984)의 작업도 대중의 문화 실천 능력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한 중요한 이론적 성과이다. 세르토는 수용자들이 문화산물을 이용하는 동안 그 문화산물을 가지고 ‘하거나 만드는’ 활동에 주목한다. 이 활동은 우회적이고 분산되어 있지만 거의 보이지 않게 어디서나 자신을 심어놓고 있으며 지배적 경제질서가 부과한 생산물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세르토는 소비자들이 미디어 텍스트나 여타 문화적 생산물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이차적 생산’이라고 하며 이러한 소비자의 생산과 그 생산적 실천의 논리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대중은 문화산물의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상 생활을 통해 문화산물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배집단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자기자신의 이해에 봉사하는 수용방식을 찾아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행위는 비단 미디어의 수용 뿐 아니라 쇼핑, 임대주택의 주거생활, 의상, 노동 현장의 시간 활용, 도시 공간의 걷기 등 일상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르토는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의 관점도 달라져야 함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미디어 연구가 예컨대 TV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나 시청 시간 같은 문제에 매달렸던 데 비해 이제는 대중이 TV 이미지를 시청하는 동안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창남, 1995).

청소년 문화와 관련하여 세르토의 일상생활의 실천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행위는 단지 주어진 조건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투사하는 행위이다. 그들이 주변의 문화 환경에 반응하고 실천하는 것은 단지 주어진 상품 논리의 추종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욕망의 투사로 봄으로써 청소년 문화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정체성의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능동적 수용자의 문화 감수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논의로 그로스버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로스버그(Grossberg, 1992)는 대중이 대중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권능을 부여받고 종속성에 저항하게 된다는 것이 대중문화와의 모든 관계가 저항적이라거나 정치적 저항의 충분한 토대가 된다는 뜻은 아님을 강조한다. 또 대중이 문화적 마취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절대로 문화적 마취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단지 문화적 마취의 시도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로스버그는 홀과 물리의 부호화/해독 모델이 텍스트와 수용자라는 이원론적 모델을 벗어나지 않음을 비판한다. 의미를 결정하는 힘이 어느 쪽에 있든, 또 인간적 실재를 의미의 차원으로 환원하면서 문화를 의미의 중개로 이해하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의미 자체가 대단히 다양한 형식을 가진 복잡하고 규정되기 어려운 범주일 뿐 아니라 문화적 실천이 반드시 의미의 생산을 통해서만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중음악처럼 텍스트와 수용자의 객관적 거리를 상정하기 어려운 문화의 경우 이원론적 모델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중음악은 종종 의미의 차원을 넘어 수용자의 육체에 직접 작용한다. 의미의 해독이라는 개념으로는 대중이 대중음악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로스버그는 텍스트와 수용자, 실제(reality)와 언어의 모델을 떠나 문화적 실천의 실재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화적 실천은 그 자체로 근원적인 의미를 내재한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계기의 접합에 의해 발생한다. 분석가는 텍스트의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고 수용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해독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위치어지고 그 효과가 규정되는 구체적 총체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련의 문화적 실천들의 역사적인 접합과 축적을 통해 하나의 문화구성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서로 다른 사회집단은 특정한 실천의 집합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문화적 구성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문화적 구성체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로스버그는 감수성(Sensibility)과 정서(Affect)의 개념을 제시한다.

모든 구성체는 특정한 감수성을 형성한다. 감수성은 특정한 실천들과 구성체내의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 주는 개념이다. 그것은 특정 구성체의 취향의 의미를 규정하며 특정한 실천과 집단의 일상생활

구조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개념이다. 감수성은 다양한 구성체와 집단에 접합되어 투쟁의 영역을 구성한다. 대중문화에서 지배적인 감수성은 욕망, 환상, 경제, 즐거움 등 다양한 효과영역을 구성한다. 특히 즐거움은 그 가운데 중요한 일부이다. 대중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문화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즐거움을 얻는다.

감수성과 실천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이 정서이다. 특정한 문화적 구성체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서적 동맹(Affective Alliance)이라 할 수 있다. 정서는 우리의 모든 감각과 경험, 일상 생활의 모든 효과영역을 넘나들며 작용한다. 그것은 특정한 살아있는 문화에 특유의 색깔과 톤, 질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서는 일종의 투여(affective investment)로서 존재한다. 대중은 정서적 투여를 통해 특정한 경험, 실천, 정체성, 의미, 즐거움을 갖게 된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HOT의 댄스음악이나 서태지의 하드코어 음악에 정서적 투여를 하는 사람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위치에 투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특정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투여가 분산되면 정체성도 분산된다. 투여가 강력하게 조직되면 대중문화적 정체성도 강력해진다. 말하자면 정서란 특정한 문화 혹은 사회집단내의 소속감과 동일시의 메커니즘이며 감수성은 그 기저에 자리잡은 문화 실천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로스버그의 문화적 구성체, 감수성, 정서 등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 집단, 특히 청소년처럼 적극적인 문화 수용집단의 문화 실천이 가진 다양한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창남, 1995).

### 3. 한국 청소년 문화의 기본 성격

청소년 문화는 흔히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과 함께 관심사가 되곤 한다. 인기 가수의 공연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청소년들이 제작한 음란 비디오가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상충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가 그런 경우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청소년 문화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문화라기 보다 성인 중심의 사회 질서에서 미숙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문화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숙하고 모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거리가 되는 문화’라는 것이 청소년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 관념이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는 성인들의 문화와 구별되는 정체성과 욕망, 정서를 가진 문화이다. 앞에서 설명한 이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 집단 특유의 ‘감수성’을 기반으로 독특한 ‘정서’를 형성하며 일정한 방식으로 문화 환경을 ‘해독’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문화적 구성체라 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 문화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집단의 삶의 방식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와 조건을 반영한다. 즉 청소년 문화는 지배적인 대중문화의 하위문화로 존재한다. 한국의 청소년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 집단이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의 특수성은 한국 청소년 문화의 특수한 성격을 구성한다. 그렇게 볼 때 한국의 청소년 문화는 다음 몇 가지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학교라는 공간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청소년 문화는 기본적으로 학교 혹은 학습이라는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한국의 청소년 문화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 생활과 학습, 입시 제도 등의 조건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런 삶의 조건에 대한 청소년 집단의 대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생 신분의 청소년들은 생활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학교와 학원 등 학업 중심의 삶에 바치고 있으며 학업의 성취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강요받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들의 은어를 보면, ‘범생이’, ‘날나리’, ‘양아치’ 등 주로 학교 생활과 학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 현상 역시 학교라는 공간에 결박되어 있는 청소년의

삶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학교 문화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교육제도와 입시 환경에 의해 강제된 문화이다. 기성 세대는 흔히 청소년 문화를 독립된 실체로 인정하기 보다 교육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하곤 한다.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 결박당해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창조하거나 독자적인 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학교로 대표되는 삶의 조건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스스로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창조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대중문화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 청소년 문화의 또 하나의 특성은 대중문화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대중문화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 환경이며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제도와 업적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많은 중압감을 경험하며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는 통로로 기능한다. 청소년들이 대중문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대중문화의 스타에 대해 광적인 동경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심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들의 구매력이 크게 신장함에 따라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문화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실상 90년대 이후 청소년 문화는 대중문화 전반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주류 문화로 등장했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주류 문화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억압의 대상이고 기성의 담론 질서에서 소외된 하위문화라는 것이 한국 청소년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청소년 문화가 기본적으로 주류 담론에 대한 저항적 하위문화이면서 자생적 창조성에 기반하기 보다 주어진 대중문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필연적 결과이다.

#### 4. 신세대 문화로서 청소년 문화의 특성

주지하다시피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사적 변화를 특징지우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이념적 대립구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탈냉전시대라 불리는 새로운 질서의 등장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분단과 이념대립의 장으로 남아있지만, 87년 이후의 형식민주주의적 진전과 함께 남한사회에도 탈이념, 탈냉전의 분위기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탈이념의 조류는 남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수구보수 세력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여온 진보진영의 사회적 지도력이 약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냉전체제의 해체가 비교적 단기적인 차원의 변화라면, 이른바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좀더 장기적인 차원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도 정보사회의 징후는 뚜렷하다. 95년에 30개 채널의 유선방송이 출범했고 위성의 발사와 함께 본격적인 위성방송 시대로의 돌입이 예고되는 등 공중파 방송 독점 체제가 해체되면서 이른바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징후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불과 수 년 안에 우리가 안방에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최소 100개, 이론상으로 1000개 이상에 달할 수 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는 소수의 조직화된 미디어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분산된 대중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던 매스미디어의 시대로부터 탈집중화된 다양한 쌍방향 미디어의 시대로 변화해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중문화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자 집단의 등장,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 해체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또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의 주체였던 민족국가의 역할과 힘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현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적어도 미디어 영역에서 국가간의 경계는 이미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매체 다채널시대는 또한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 체계가 활자매체로부터 영상매체로 이전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학의 위기가 논의되고 신문산업이 영상매체로의 영역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이다. 흔히 활자가 논리성과 합리성의 매체라면 영상은 감각과 감성의 매체라고 말한다. 활자매체의 해계모니 상실은 그런 뜻에서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기초해온 근대문화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인간관에 기초한 탈근대문화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냉전체제에서 탈냉전체제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민족국가 시대에서 글로벌 시대로,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활자문화에서 영상문화로, 이렇게 장단기적인 다양한 변화의 흐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80년대 이후 세계사적인 변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서구사회가 수세기 동안 경험한 근대와 탈근대의 과정을 불과 수십년 동안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변화가 야기하는 단절과 혼란의 폭은 더욱 깊고 크다. 90년대 문화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신세대는 바로 그러한 변화와 단절의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신세대집단은 60년대이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경제적 축적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신세대 집단전체를 선불리 '풍요의 세대'로 못박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이들은 자본주의 원시 축적기를 벗어나 경제적 잉여를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의 남한 자본주의를 자신의 존재조건으로 한다. 이들이 성장한 7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소비규모와 소비패턴은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소비 규모는 현저히 증대하고 있고 소비 구성에서 소비재와 서비스의 소비가 급속히 늘어난다. 90년대 신세대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소비 자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빈곤과 절약의 규범을 생활화했던 부모세대와, 풍요와 소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는 신세대의 차이는 두

세대 사이의 물리적 시간차 이상으로 크다. 말하자면 90년대의 신세대는 과거 어느 시점의 신세대보다 막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90년대의 신세대를 특징지우는 가장 기본적인 물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구매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과거 어느 세대에 비해서도 ‘소비’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 오랜 동안 절약의 규범 속에 성장하면서 막상 돈을 벌어도 쓸 줄 모르는 기성세대와 달리 이들에게는 소비에 대한 의의식이 부재한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가 생산중심주의에서 소비중심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다. 새로운 소비계층이면서 상대적으로 막강한 구매력을 갖춘 신세대 집단은 당연히 소비재산업과 문화산업의 집중적인 판매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산업들이라 할 수 있는 육체산업, 패션산업, 영상산업, 요식산업 등은 주로 신세대집단을 가장 중요한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소비산업들의 주도면밀한 시장 전략 속에서 신세대집단은 스스로 가상적 소비공동체의 주체로 되어간다.

90년대 신세대집단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이 8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영상매체의 확산 속에서 성장한 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컬러TV와 비디오, 전자게임과 컴퓨터 등의 새로운 영상매체에 익숙해 있다. 이는 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리성에 약한 대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흔히 활자문화 세대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있는 반면 신세대의 가치 기준이 ‘어떤 것이 좋고 싫은가’에 있다는 평가는 그런 점을 반영한다. 또한 신세대는 성장기에 여행자율화, 문화개방 등을 겪으면서 과거 어느 세대보다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사고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90년대의 신세대는 60년대부터 시행되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던 가족계획 세대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많아야 두 셋 정도의 형제를 가진 이들은 당연히 과거 세대에 비해 부모로부터 관심

과 애정을 집중적으로 받아왔고 이는 이들의 사고가 다분히 자기중심적 특성을 가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의 산물이다. 그 사회적 변화는 작게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변화로부터 크게는 세계사적으로 진행되는 거대한 문명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90년대 이후 신세대 문화는 한국사회에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로의 이행과정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변화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럽고 혼란스럽다.

신세대 집단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기성 세대와는 여러모로 다른 문화적 감수성과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와 가치관, 교육 체계, 질서 등은 여전히 기성 세대의 구시대적인 잣대에 의해 교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세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욕구와 감각을 표현하고 창조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럴 만한 훈련의 기회도 가지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신세대의 새로운 욕구를 재빨리 간파한 문화산업과 소비산업에 의해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신세대 집단은 결국 주어진 상품의 소비라는 형태로써만 그들의 새로운 욕구와 감성을 소화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른바 ‘개성’을 추구한다는 신세대들이 똑같은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고 똑같은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것은 이른바 신세대문화가 기본적으로 가진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은 신세대 사회집단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다.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갈등이 주로 신세대와 구세대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신세대 문화의 무게 중심은 단연 청소년 문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80년대 진보적 하위문화의 거점 역할을 했던 대학 문화는 사실상 저항적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주변부 시장으로 전락했다. 신세대의 핵심 세력으로서 청소년 집단은 위에서 말한 사회 변화 과정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따라서 신세대 문화

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특성들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영상적 사고에 익숙한 영상 세대로서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특성을 보여주며 소비를 통한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비적 자기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자 통로로 기능하는 것이 대중문화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청소년 문화는 교육 제도로 대표되는 삶의 조건에서 가지게 된 하위문화적 성격과 신세대 문화로서 가지는 영상 문화, 소비문화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문화감수성의 논리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는 문화감수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문화를 오감을 통해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 이상으로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또 다른 심층적 의미가 내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문화라고 하는 측면과 오감을 통한 수용능력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쉽게 확인될 수 있는데, 즉, 문화가 지니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전제조건인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오감 능력이 지니고 있어야 할 철학적 조건인 “주체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 문화감수성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감수성이란 신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문화적 자극들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주체적으로 구성·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수성 훈련에 대해 다룬 여러 연구들을 보아도 높은 정도의 감수성을 성립시키는 주요 요인은 대부분 행위자의 순수한 주체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강하게 출현하고 있는 포스트모던적 사회성의 특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샤론 주킨, 마이크 패더스톤, 피터 버크(스콧 래쉬 외, 1997:251-348), 보드리야르(1970), 마페졸리(1997) 등의 논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유행문화적 특성에 대해 기술한 최원기(2000)의 논의에서도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주체적 태도가 지적되고 있으며, 정체성 혼란의 주요 원인이 청소년들의 과도한 유행성, 즉 문화적 객체성에 있다고 분석되는 등 문화감수성에 있어 주체성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외국문화나 다른 하위문화와 접촉하게 될 때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며 수용 또는 거부하는가의 문제는 그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문화를 이끌어갈 방향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의 문화감수성 정도의 문제는 그들의 주체적 태도와 연계되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니는 것이다.

결국, 요약한다면 문화감수성의 정도는 사회 속의 한 개체가 문화적 자극에 대해 주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이며 또한 그 주체성의 실천 정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문제 또한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그들의 주체성 및 실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그들의 문화감수성 정도를 더욱 높여주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의 정도, 즉 문화에 대한 주체적 수용능력은 어떠한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지 다음의 조사들을 통해 그 대안적 사고를 진행시켜 보도록 한다.



### III. 청소년 문화감수성의 실태와 문제점

1. 조사개요
2. 청소년 문화와 문화감수성의 실태
  - 1) 질문지 조사
  - 2) 참여관찰
  - 3) 소결
3.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의 과제



### III. 청소년 문화감수성의 실태와 문제점

####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를 파악해보기 위해 질문지조사와 참여관찰을 함께 시행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와 문화이용 실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2000년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 연구자들이 직접 지참하여 해당 학교를 방문한 후 교사들에게 부탁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직접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학교급별 적정 인원을 할당하여 선정하였는데, 청소년 문화산업이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된 서울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위주로 하였으며, 대안학교의 경우에만 각 학교별 특성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연령은 최대 범위 13-18세로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고등학교 재학생 연령이 주로 표집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표집은 인문고의 경우 강남 2개교(남고1, 여고 1), 강북 2개교(남고1, 여고1) 등 총 4개교(학교별 80명 기준), 실업고는 강남 1개교(남녀공학), 강북 1개교(남녀공학) 등 2개교를, 과학고는 서울에 위치한 2개교(남녀공학) 모두 표집하였다. 대안학교는 각 학교가 지향하는 특수성(종교적 특성, 학생 선발 기준 등)에 따라 전남 1개교, 경북 1개교, 충남 1개교 등 총 3개교(학교별 50명 기준)를 선정하였다.

한 편, 참여관찰의 경우에는 2000년 8-9월 두 달에 걸쳐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연구자를 포함하여 참여관찰 및 기술 훈련을 받은 총 5명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관찰 지역은 문화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 서울과 부산으로 한정하였다. 서울 지역은 청소년들이 빈번히 방문하고 있는 6개의 대표적 청소년 지역(신

촌, 신림역 주변, 동대문 의류상가, 강남역 주변, 신천, 돈암동)을 사전 관찰조사를 통해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부산 지역도 크게 6개 지역(부산대 지역, 경성대 지역, 광복동, 남포동, 서면, 장전동)으로 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뒤 연구자들이 직접 관찰조사 하였는데, 특히 이 지역은 연구의 시간 및 경제적 한계로 인해 8월 17, 18, 19일과 24, 25, 26일에 걸쳐 총 6일 동안 부산대 지역과 경성대 지역 및 서면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관찰 기술 방법으로는 한정된 대상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들을 모두 기술하는 서술형 기술 방법이 아닌, 관찰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들에 대해 보편적으로 기술하는 개조형(스케치형) 기술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특정 시간동안 관찰자의 시선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자들을 무작위 표집하여 관찰 기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서울과 부산에서 관찰된 총 사례는 약 800사례 정도이며, 관찰 목표는 외형적(실천적)으로 보여지는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에 대한 파악이다.

## 2. 청소년문화와 문화감수성의 실태

### 1) 질문지 조사

#### (1) 질문지 및 피조사자의 특성

##### ①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청소년들의 문화 이용 실태, 하위문화 경험 여부, 청소년 문화 및 기성 문화에 대한 태도, 문화의식, 유행의식, 독립의식, 주체성 정도, 대인 적대성 등 크게 8개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들(유동수, 2000; 관계부, 1987; 이태희 편, 1997; 이민희

외, 1999)에서 사용된 질문문항들과 문화감수성에 대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 등을 통해 종합·구성되었다. 문화실태 부분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문화적 영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하위 문화 경험 여부는 한국사회의 기성문화에 의해 청소년 하위문화로 규정되어지는 6개 항목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문화 및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태도 부분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들 두 문화에 대한 생각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구성된 단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의식, 유행의식, 독립의식, 주체성, 대인 적대성 등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 요인화된 다수의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 ② 피조사자

예상된 질문조사대상자들의 수는 총 790명(인문고 320, 실업고 160, 과학고 160, 대안고 150)이었지만, 회수된 총 질문지는 755(인문고 320, 실업고 160, 과학고 146, 대안고 129)개였다. 이는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의 지침 및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상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과학고의 경우 개별 학습 시간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몇몇 청소년들이 응답을 거부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안학교의 경우 각 학교별 피조사자 인원이 50명 정도로 예측된 것은 대안학교의 총 인원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었으며, 3개 대안학교를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다른 학교급에서와는 달리 대안학교 영역에서는 각 학교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었다<sup>1)</sup>. 학교

1) 대안학교의 경우 각 학교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구성 학생들의 성향 정도에 있어 일반적으로 커다란 편차가 존재하며, 또한 조사결과와 각 학교와의 관계를 보고서에서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대안A, 대안B, 대안C 등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각 학교별 간략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안A : 학생들의 연령분포가 넓고(비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음), 제도권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경험의 청소년들이 다수임. 특정 종교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학생 및 교사들에게 표면적으로 강요되지 않고 있음.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 아파트에서 담임교사(교사 1명당 5-6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와 생활하며

급별 피조사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학교급별 분포

| 학교급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대안A | 39  | 5.2   | 5.2   | 5.2   |
| 대안B | 48  | 6.4   | 6.4   | 11.5  |
| 대안C | 42  | 5.6   | 5.6   | 17.1  |
| 인문고 | 320 | 42.4  | 42.4  | 59.5  |
| 실업고 | 160 | 21.2  | 21.2  | 80.7  |
| 과학고 | 146 | 19.3  | 19.3  | 100.0 |
| 전체  | 755 | 100.0 | 100.0 |       |

피조사자들의 성별 분포는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이 440명이고 여자 청소년은 314명으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다소 높게 표집되었다.

<표 III-2> 성별 분포

| 성별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남성  | 440 | 58.3  | 58.4  | 58.4  |
| 여성  | 314 | 41.6  | 41.6  | 100.0 |
| 전체  | 754 | 99.9  | 100.0 |       |
| 결측치 | 1   | .1    |       |       |
| 전체  | 755 | 100.0 |       |       |

거의 24시간을 공유함.

대안B : 학생들의 연령분포는 제한적임. 제도권 교육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 소유자들이 대부분임. 특정 종교의 목적과 지침 및 특정 실용 기술의 습득을 학교 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규율들을 청소년들의 입학 서약을 통해 준수하려고 함. 담배, 술, 이성교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함.

대안C : 종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음. 제도권 교육에서 중간 이상의 성적을 지니고 있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성됨. 특별 전형을 통해 대안학교들 중 가장 많은 비율로 대학에 진학시키고 있다고 함. 학생들의 개별적 재능 발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주장.

연령별 분포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만 13세와 만 14세는 전혀 표집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조사가 고등학교 재학생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표집수를 보이고 이는 대상은 만16, 17세로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측치의 6명 중 일부는 대안학교 재학생들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lt;표 III-3&gt; 연령별 분포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만 15 세 | 67  | 8.9   | 8.9   | 8.9   |
| 만 16 세 | 299 | 39.6  | 39.9  | 48.9  |
| 만 17 세 | 333 | 44.1  | 44.5  | 93.3  |
| 만 18 세 | 50  | 6.6   | 6.7   | 100.0 |
| 소계     | 749 | 99.2  | 100.0 |       |
| 결측치    | 6   | .8    |       |       |
| 전체     | 755 | 100.0 |       |       |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상, 중, 하의 세 가지 범주로 질문하였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의 79.7%가 중간 정도의 생활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상위와 하위는 각각 8.0%와 12.3%를 나타냈다.

&lt;표 III-4&gt; 생활수준별 분포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상   | 60  | 7.9   | 8.0   | 8.0   |
| 중   | 597 | 79.1  | 79.7  | 87.7  |
| 하   | 92  | 12.2  | 12.3  | 100.0 |
| 소계  | 749 | 99.2  | 100.0 |       |
| 결측치 | 6   | .8    |       |       |
| 전체  | 755 | 100.0 |       |       |

마지막으로, 거주형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2.7%가 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2.7%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는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을 의미한다.

<표 III-5> 거주형태별 분포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친부모 | 620 | 82.1  | 82.7  | 82.7  |
| 양부모 | 2   | .3    | .3    | 82.9  |
| 계부모 | 7   | .9    | .9    | 83.9  |
| 편부모 | 22  | 2.9   | 2.9   | 86.8  |
| 친척  | 2   | .3    | .3    | 87.1  |
| 혼자  | 2   | .3    | .3    | 87.3  |
| 기타  | 95  | 12.6  | 12.7  | 100.0 |
| 소계  | 750 | 99.3  | 100.0 |       |
| 결측치 | 5   | .7    |       |       |
| 전체  | 755 | 100.0 |       |       |

## (2) 문화 실태

문화 실태에 대해서는 크게, TV, 라디오, 신문, 잡지, 컴퓨터, 핸드폰, 만화, 영화, 외국문화, 대중문화, 여가 및 동아리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대중매체”에 대해 묻고 있는 64번 문항의 응답을 보면 27.4%의 응답을 나타낸 TV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핸드폰이 20.3%, 컴퓨터가 18.6%, 인터넷이 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III-6&gt;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대중매체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TV        | 203 | 26.9  | 27.4  | 27.4  |
| 라디오       | 15  | 2.0   | 2.0   | 29.5  |
| 오디오       | 75  | 9.9   | 10.1  | 39.6  |
| 비디오       | 1   | .1    | .1    | 39.7  |
| 신문        | 10  | 1.3   | 1.4   | 41.1  |
| 컴퓨터       | 138 | 18.3  | 18.6  | 59.7  |
| 컴퓨터CD-ROM | 4   | .5    | .5    | 60.3  |
| 인터넷       | 123 | 16.3  | 16.6  | 76.9  |
| 케이블TV     | 5   | .7    | .7    | 77.6  |
| 위성방송      | 1   | .1    | .1    | 77.7  |
| PC통신      | 9   | 1.2   | 1.2   | 78.9  |
| MP3플레이어   | 3   | .4    | .4    | 79.3  |
| 잡지        | 3   | .4    | .4    | 79.7  |
| 핸드폰       | 150 | 19.9  | 20.3  | 100.0 |
| 소계        | 740 | 98.0  | 100.0 |       |
| 결측치       | 15  | 2.0   |       |       |
| 전체        | 755 | 100.0 |       |       |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64번의 두 번째 문항인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 결과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V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이 25.8%로 다음을, 그리고 컴퓨터가 16.5%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핸드폰은 7.8%에 지나지 않아 접촉 정도와는 달리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I-7&gt;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중매체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TV        | 223 | 29.5  | 31.5  | 31.5  |
| 라디오       | 12  | 1.6   | 1.7   | 33.1  |
| 오디오       | 39  | 5.2   | 5.5   | 38.6  |
| 비디오       | 9   | 1.2   | 1.3   | 39.9  |
| 신문        | 22  | 2.9   | 3.1   | 43.0  |
| 컴퓨터       | 117 | 15.5  | 16.5  | 59.5  |
| 컴퓨터CD-ROM | 7   | .9    | 1.0   | 60.5  |
| 인터넷       | 183 | 24.2  | 25.8  | 86.3  |
| 케이블 TV    | 10  | 1.3   | 1.4   | 87.7  |
| PC통신      | 23  | 3.0   | 3.2   | 91.0  |
| MP3플레이어   | 4   | .5    | .6    | 91.5  |
| 잡지        | 5   | .7    | .7    | 92.2  |
| 핸드폰       | 55  | 7.3   | 7.8   | 100.0 |
| 소계        | 709 | 93.9  | 100.0 |       |
| 결측치       | 46  | 6.1   |       |       |
| 전체        | 755 | 100.0 |       |       |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응답에서는 TV가 86.4%, 라디오 87.5%, 오디오 88.6%, 비디오 82.5%, 신문 76.7%, 컴퓨터 83.0%, 컴퓨터 CD-ROM 76.4%, 인터넷 72.7%, 케이블 TV 33.2%, 위성방송 44.2%, PC통신 61.7%, MP3 플레이어 15.8%, 잡지 57.4%, 뽀빠 6.6%, 핸드폰 64.9% 등으로 나타나 앞선 두 문항의 응답들과 높은 관계 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 소유하고 있는 대중매체

| 매체 / 소유유무 | 있다        | 없다        | 매체 / 소유유무 | 있다        | 없다        |
|-----------|-----------|-----------|-----------|-----------|-----------|
| TV        | 652(86.4) | 103(13.6) | 케이블TV     | 251(33.2) | 504(66.8) |
| 라디오       | 661(87.5) | 94(12.5)  | 위성방송      | 334(44.2) | 421(55.8) |
| 오디오       | 669(88.6) | 86(11.4)  | PC통신      | 466(61.7) | 289(38.3) |
| 비디오       | 623(82.5) | 132(17.5) | MP3플레이어   | 119(15.8) | 636(84.2) |
| 신문        | 579(76.7) | 176(23.3) | 잡지        | 433(57.4) | 322(42.6) |
| 컴퓨터       | 627(83.0) | 128(17.0) | 삐삐        | 50(6.6)   | 705(93.4) |
| 컴퓨터CD-ROM | 577(76.4) | 178(23.6) | 핸드폰       | 490(64.9) | 265(35.1) |
| 인터넷       | 549(72.7) | 206(27.3) |           |           |           |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TV를 보는 시간은 대부분이 2시간 이내로 70.8%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일 빈도로 보았을 경우에는 41.1%가 1시간 미만이라고 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II-9> TV시청 시간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1  | 308 | 40.8  | 41.1  | 41.1  |
| 1-2 | 222 | 29.4  | 29.6  | 70.8  |
| 3-4 | 172 | 22.8  | 23.0  | 93.7  |
| 5-6 | 26  | 3.4   | 3.5   | 97.2  |
| 6-  | 21  | 2.8   | 2.8   | 100.0 |
| 소계  | 749 | 99.2  | 100.0 |       |
| 결측치 | 6   | .8    |       |       |
| 전체  | 755 | 100.0 |       |       |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락이나 연예(36.9%), 스포츠나 영화(33.2%), 뉴스나 보도물(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이나 다큐에는 3.5%만이 응답하였는데, 반면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프로그램 들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의 응답이 교양이나 다큐물(29.3%)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청소년들이 교양이나 다  
큐물에 대해 일종의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는 도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0> 시청하는 TV프로그램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뉴스 및 보도 | 96  | 12.7  | 12.9  | 12.9  |
| 드라마, 영화 | 248 | 32.8  | 33.2  | 46.1  |
| 오락,연예   | 276 | 36.6  | 36.9  | 83.0  |
| 스포츠     | 38  | 5.0   | 5.1   | 88.1  |
| 만화      | 34  | 4.5   | 4.6   | 92.6  |
| 교양,다큐   | 26  | 3.4   | 3.5   | 96.1  |
| 학습      | 3   | .4    | .4    | 96.5  |
| 기타      | 26  | 3.4   | 3.5   | 100.0 |
| 소계      | 747 | 98.9  | 100.0 |       |
| 결측치     | 8   | 1.1   |       |       |
| 전체      | 755 | 100.0 |       |       |

<표 III-11> 늘려야 할 TV프로그램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뉴스 및 보도 | 44  | 5.8   | 6.0   | 6.0   |
| 드라마, 영화 | 153 | 20.3  | 20.7  | 26.7  |
| 오락,연예   | 98  | 13.0  | 13.3  | 40.0  |
| 스포츠     | 65  | 8.6   | 8.8   | 48.8  |
| 만화      | 67  | 8.9   | 9.1   | 57.9  |
| 교양,다큐   | 216 | 28.6  | 29.3  | 87.1  |
| 학습      | 50  | 6.6   | 6.8   | 93.9  |
| 기타      | 45  | 6.0   | 6.1   | 100.0 |
| 소계      | 738 | 97.7  | 100.0 |       |
| 결측치     | 17  | 2.3   |       |       |
| 전체      | 755 | 100.0 |       |       |

하루 평균 라디오를 듣는 시간도 TV에서와 동일하게 1시간 미만이 72.7%로 가장 많았으며, 2시간 이하를 포함하면 전체의 89.7%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라디오 청취 시간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1  | 541 | 71.7  | 72.7  | 72.7  |
| 1-2 | 126 | 16.7  | 16.9  | 89.7  |
| 3-4 | 64  | 8.5   | 8.6   | 98.3  |
| 5-6 | 7   | .9    | .9    | 99.2  |
| 6-  | 6   | .8    | .8    | 100.0 |
| 소계  | 744 | 98.5  | 100.0 |       |
| 결측치 | 11  | 1.5   |       |       |
| 전체  | 755 | 100.0 |       |       |

주로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83.7%)은 오락이나 연예, 가요, 팝송 등을 듣는 등 라디오를 통해서서는 주로 오락이나 음악 등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청취 라디오 프로그램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뉴스.보도 | 20  | 2.6   | 2.7   | 2.7   |
| 연속극   | 1   | .1    | .1    | 2.9   |
| 오락.연예 | 184 | 24.4  | 25.2  | 28.1  |
| 스포츠   | 9   | 1.2   | 1.2   | 29.4  |
| 가요    | 362 | 47.9  | 49.7  | 79.0  |
| 팝송    | 86  | 11.4  | 11.8  | 90.8  |
| 교양    | 8   | 1.1   | 1.1   | 91.9  |
| 기타    | 59  | 7.8   | 8.1   | 100.0 |
| 소계    | 729 | 96.6  | 100.0 |       |
| 결측치   | 26  | 3.4   |       |       |
| 전체    | 755 | 100.0 |       |       |

반면, 청소년들의 신문 구독 시간은 매우 짧아 77.0%의 청소년들은 구독시간이 30분 미만이었으며, 1시간 미만을 포함하면 전체의 98.7%가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4> 신문 구독 시간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30  | 574 | 76.0  | 77.0  | 77.0  |
| 30-1 | 161 | 21.3  | 21.6  | 98.7  |
| 2-3  | 5   | .7    | .7    | 99.3  |
| 4-5  | 2   | .3    | .3    | 99.6  |
| 5-   | 3   | .4    | .4    | 100.0 |
| 소계   | 745 | 98.7  | 100.0 |       |
| 결측치  | 10  | 1.3   |       |       |
| 전체   | 755 | 100.0 |       |       |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신문기사는 역시 스포츠와 레저 분야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도 문화와 사회 분야가 각각 18.8%와 14.3%를 차지하고 있어 TV와 라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관심 있는 신문기사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정치     | 40  | 5.3   | 5.4   | 5.4   |
| 경제     | 25  | 3.3   | 3.4   | 8.8   |
| 사회     | 108 | 14.3  | 14.6  | 23.4  |
| 문화     | 142 | 18.8  | 19.2  | 42.6  |
| 해외     | 47  | 6.2   | 6.4   | 48.9  |
| 스포츠,레저 | 265 | 35.1  | 35.8  | 84.7  |
| 과학,생활  | 52  | 6.9   | 7.0   | 91.8  |
| 교육     | 16  | 2.1   | 2.2   | 93.9  |
| 기타     | 45  | 6.0   | 6.1   | 100.0 |
| 소계     | 740 | 98.0  | 100.0 |       |
| 결측치    | 15  | 2.0   |       |       |
| 전체     | 755 | 100.0 |       |       |

컴퓨터와 관계된 질문은 72, 72-1, 72-2, 72-3의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들(95.3%)은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된 장소로는 응답자의 64.5%가 집에서, 19.9%가 학교, 그리고 9.1%가 PC방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 학교가 의외로 PC방 보다 높은 19.9%를 차지한 이유는 학교에서 기숙하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17.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lt;표 III-16&gt; 컴퓨터 사용 유무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있다  | 716 | 94.8  | 95.3  | 95.3  |
| 없다  | 35  | 4.6   | 4.7   | 100.0 |
| 소계  | 751 | 99.5  | 100.0 |       |
| 결측치 | 4   | .5    |       |       |
| 전체  | 755 | 100.0 |       |       |

&lt;표 III-17&gt; 컴퓨터 사용하는 주 장소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집        | 487 | 64.5  | 68.2  | 68.2  |
| 친구집      | 2   | .3    | .3    | 68.5  |
| 학교       | 150 | 19.9  | 21.0  | 89.5  |
| PC방      | 69  | 9.1   | 9.7   | 99.2  |
| 시설, 공공기관 | 5   | .7    | .7    | 99.9  |
| 학원       | 1   | .1    | .1    | 100.0 |
| 소계       | 714 | 94.6  | 100.0 |       |
| 결측치      | 41  | 5.4   |       |       |
| 전체       | 755 | 100.0 |       |       |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3시간 정도가 단일 응답항목으로 가장 많았으나, 9시간 미만이 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시간 내외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8> 컴퓨터 이용시간 (일주일)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1    | 27  | 3.6   | 3.8   | 3.8   |
| 1-3   | 194 | 25.7  | 27.0  | 30.7  |
| 4-6   | 134 | 17.7  | 18.6  | 49.4  |
| 7-9   | 122 | 16.2  | 17.0  | 66.3  |
| 10-19 | 115 | 15.2  | 16.0  | 82.3  |
| 20-   | 127 | 16.8  | 17.7  | 100.0 |
| 소계    | 719 | 95.2  | 100.0 |       |
| 결측치   | 36  | 4.8   |       |       |
| 전체    | 755 | 100.0 |       |       |

컴퓨터 사용 용도는 정보수집 이나 검색의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이나 오락이 36.6%, e-mail과 문서작성이 각각 12.0%, 10.9%로 나타났다. 이 또한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이 오락 등과 같은 흥미 위주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9> 컴퓨터 사용 용도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문서작성   | 79  | 10.5  | 10.9  | 10.9  |
| 게임,오락  | 265 | 35.1  | 36.6  | 47.4  |
| 채팅     | 7   | .9    | 1.0   | 48.4  |
| 정보수집검색 | 282 | 37.4  | 38.9  | 87.3  |
| 전자우편   | 87  | 11.5  | 12.0  | 99.3  |
| 전자상거래  | 5   | .7    | .7    | 100.0 |
| 소계     | 725 | 96.0  | 100.0 |       |
| 결측치    | 30  | 4.0   |       |       |
| 전체     | 755 | 100.0 |       |       |



핸드폰 사용 유무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4.3%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물어본 핸드폰 소유에 대한 문항 결과인 64.9%와 거의 유사한 수치이다. 핸드폰 사용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이하가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시간 미만도 64.8%를 나타내고 있어 핸드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일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표 III-20> 핸드폰 사용 유무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있다  | 480 | 63.6  | 64.3  | 64.3  |
| 없다  | 266 | 35.2  | 35.7  | 100.0 |
| 소계  | 746 | 98.8  | 100.0 |       |
| 결측치 | 9   | 1.2   |       |       |
| 전체  | 755 | 100.0 |       |       |

<표 III-21> 핸드폰 사용 시간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1  | 315 | 41.7  | 64.8  | 64.8  |
| 1-3 | 99  | 13.1  | 20.4  | 85.2  |
| 4-6 | 23  | 3.0   | 4.7   | 89.9  |
| 7-9 | 10  | 1.3   | 2.1   | 92.0  |
| 10- | 39  | 5.2   | 8.0   | 100.0 |
| 소계  | 486 | 64.4  | 100.0 |       |
| 결측치 | 269 | 35.6  |       |       |
| 전체  | 755 | 100.0 |       |       |

핸드폰 사용의 주 용도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66.4%가 동성 및 이성친구와의 통화라고 응답했으며, 부모님과의 통화는 1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문항에 있어 흥미로운 사실은 기타 항목의 21.3%가 과연 어떠한 용도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지어 추론해본다면 이 응답항목의 내용에 게임이나, 기타 성인과의 부적절한 목적의 통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표 III-22> 핸드폰 사용 주 용도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정보검색   | 4   | .5    | .8    | .8    |
| MP3    | 1   | .1    | .2    | 1.0   |
| 동성친구통화 | 206 | 27.3  | 42.2  | 43.2  |
| 이성친구통화 | 118 | 15.6  | 24.2  | 67.4  |
| 부모님통화  | 55  | 7.3   | 11.3  | 78.7  |
| 기타     | 104 | 13.8  | 21.3  | 100.0 |
| 소계     | 488 | 64.6  | 100.0 |       |
| 결측치    | 267 | 35.4  |       |       |
| 전체     | 755 | 100.0 |       |       |

만화책, 비디오, 영화, 잡지 등을 보는 한달 간의 빈도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10편 내외가 대부분 또는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책의 경우에는 1권부터 10편까지 보는 경우가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디오 테잎은 1-2편이 59.0%로 과반수를 넘고 있고 1편에서 10편 까지는 96.9%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 관람은 1편 정도가 과반수라고 할 수 있는 57.1%이며 1편에서 4편까지가 93.1%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잡지의 경우에도 3편 이내가 95.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3> 만화, 비디오, 영화 관람 빈도

| 편수 / 종류 | 만화        | 비디오       | 영화        | 잡지        |
|---------|-----------|-----------|-----------|-----------|
| 1       | 58(10.3)  | 207(35.5) | 325(57.1) | 291(60.6) |
| 2       | 57(10.1)  | 137(23.5) | 127(22.3) | 117(24.4) |
| 3       | 51(9.1)   | 83(14.2)  | 59(10.4)  | 49(10.2)  |
| 4       | 26(4.6)   | 49(8.4)   | 19(3.3)   | 7(1.5)    |
| 5       | 56(10.0)  | 42(7.2)   | 17(3.0)   | 8(1.7)    |
| 6       | 12(2.1)   | 15(2.6)   | 3(0.5)    | 1(0.2)    |
| 7       | 8(1.4)    | 6(1.0)    | 1(0.2)    | 1(0.2)    |
| 8       | 3(0.5)    | 4(0.7)    | 2(0.4)    | 0(0.0)    |
| 9       | 3(0.5)    | 0(0.0)    | 1(0.2)    | 0(0.0)    |
| 10      | 107(19.0) | 22(3.8)   | 5(0.9)    | 4(0.8)    |

\*10편에서 세 항목 모두 절단.

한 편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만화는 순정만화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만화가 25.1%로 다음을 차지했고, 스포츠만화가 12.9%로 세 번째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타 항목이 20.4%로 많았는데, 이는 오늘날 새롭게 많이 읽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 관계된 만화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4> 주로 읽는 만화 종류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순정   | 230 | 30.5  | 35.0  | 35.0  |
| 교양   | 13  | 1.7   | 2.0   | 37.0  |
| 스포츠  | 85  | 11.3  | 12.9  | 49.9  |
| 폭력   | 166 | 22.0  | 25.3  | 75.2  |
| 만화잡지 | 28  | 3.7   | 4.3   | 79.5  |
| 기타   | 135 | 17.9  | 20.5  | 100.0 |
| 소계   | 657 | 87.5  | 100.0 |       |
| 결측치  | 98  | 13.0  |       |       |
| 전체   | 755 | 100.0 |       |       |

문항 79와 80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의 기준으로 작품성(25.8%), 영화평(22.3%), 주제(22.3%) 등에 가장 많이 표시하였는데, 의외로 스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있어 배우(14.5%)라고 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선택 기준이 막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III-25> 영화 선택 기준

|      | 반도  | %     | 유효 %  | 누적 %  |
|------|-----|-------|-------|-------|
| 배우   | 107 | 14.2  | 14.5  | 14.5  |
| 감독   | 5   | .7    | .7    | 15.2  |
| 주제   | 165 | 21.9  | 22.3  | 37.5  |
| 영상   | 34  | 4.5   | 4.6   | 42.1  |
| 작품성  | 191 | 25.3  | 25.8  | 67.9  |
| 영화평  | 165 | 21.9  | 22.3  | 90.3  |
| 수상작품 | 4   | .5    | .5    | 90.8  |
| 기타   | 68  | 9.0   | 9.2   | 100.0 |
| 소계   | 739 | 97.9  | 100.0 |       |
| 결측치  | 16  | 2.1   |       |       |
| 전체   | 755 | 100.0 |       |       |

주로 보는 영화나 비디오의 종류에 있어서는 액션과 스포츠물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에정물이 26.9%, SF물이 11.5%를 나타냈다.

<표 III-26> 비디오, 영화 관람 종류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애정멜로    | 197 | 26.1  | 26.9  | 26.9  |
| SF      | 84  | 11.1  | 11.5  | 38.4  |
| 만화      | 35  | 4.6   | 4.8   | 43.2  |
| 액션.스포츠  | 225 | 29.8  | 30.8  | 74.0  |
| 공포.미스터리 | 70  | 9.3   | 9.6   | 83.6  |
| 코메디     | 35  | 4.6   | 4.8   | 88.4  |
| 문화예술    | 19  | 2.5   | 2.6   | 91.0  |
| 기타      | 66  | 8.7   | 9.0   | 100.0 |
| 소계      | 731 | 96.8  | 100.0 |       |
| 결측치     | 24  | 3.2   |       |       |
| 전체      | 755 | 100.0 |       |       |

<표 III-27>에 제시되어 있듯이, 잡지를 통해 즐겨보는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패션(28.8%)과 연예기사(27.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타 항목(19.3%)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앞선 다른 항목들에서처럼 성과 관계된 부분이 기타 항목으로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표 III-2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라드(38.7%), 록(20.3%), 댄스(17.1%) 등의 순이었고, 음악을 감상하는 매체는 CD(33.7%), 카세트테이프(17.2%), MP3(14.4%)의 순서로 나타났다. 만약 기성세대들의 생각에 있어 청소년들은 시끄러운 음악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생각에 수정이 가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27> 주로 보는 잡지 내용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광고   | 52  | 6.9   | 8.2   | 8.2   |
| 연예기사 | 171 | 22.6  | 27.1  | 35.3  |
| 만화   | 33  | 4.4   | 5.2   | 40.6  |
| 패션   | 182 | 24.1  | 28.8  | 69.4  |
| 생활정보 | 53  | 7.0   | 8.4   | 77.8  |
| 인테리어 | 12  | 1.6   | 1.9   | 79.7  |
| 다이어트 | 6   | .8    | 1.0   | 80.7  |
| 기타   | 122 | 16.2  | 19.3  | 100.0 |
| 소계   | 631 | 83.6  | 100.0 |       |
| 결측치  | 124 | 16.4  |       |       |
| 전체   | 755 | 100.0 |       |       |

<표 III-28> 선호하는 음악 장르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록     | 152 | 20.1  | 20.3  | 20.3  |
| 랩     | 74  | 9.8   | 9.9   | 30.3  |
| 발라드   | 289 | 38.3  | 38.7  | 68.9  |
| 댄스    | 128 | 17.0  | 17.1  | 86.1  |
| 트로트   | 6   | .8    | .8    | 86.9  |
| 재즈    | 15  | 2.0   | 2.0   | 88.9  |
| 테크노   | 7   | .9    | .9    | 89.8  |
| 언플러그드 | 3   | .4    | .4    | 90.2  |
| 기타    | 73  | 9.7   | 9.8   | 100.0 |
| 소계    | 747 | 98.9  | 100.0 |       |
| 결측치   | 8   | 1.1   |       |       |
| 전체    | 755 | 100.0 |       |       |

<표 III-29> 음악 감상 매체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CD     | 253 | 33.5  | 33.7  | 33.7  |
| 카세트테이프 | 129 | 17.1  | 17.2  | 50.9  |
| 뮤직비디오  | 25  | 3.3   | 3.3   | 54.2  |
| 콘서트    | 1   | .1    | .1    | 54.3  |
| MTV    | 13  | 1.7   | 1.7   | 56.1  |
| 라디오    | 56  | 7.4   | 7.5   | 63.5  |
| TV     | 72  | 9.5   | 9.6   | 73.1  |
| 인터넷    | 74  | 9.8   | 9.9   | 83.0  |
| MP3    | 108 | 14.3  | 14.4  | 97.3  |
| 기타     | 20  | 2.6   | 2.7   | 100.0 |
| 소계     | 751 | 99.5  | 100.0 |       |
| 결측치    | 4   | .5    |       |       |
| 전체     | 755 | 100.0 |       |       |

한 편, 외국 문화의 실태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85, 86, 87, 88번 문항들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주된 외국문화들과 그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문화 항목간의 높은 연계성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외국문화를 접하게 되는 주요 매체로 TV와 인터넷을 지목하고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상품 생산국으로 일본과 미국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 문화상품으로 영화(32.2%), 패션(18.4%), 음악(16.8%), 만화(15.7%) 등을 꼽았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국 문화상품에도 역시 영화(30.4%), 음악(23.7%), 만화(15.3%), 전자오락(11.8%) 등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문화는 인터넷과 TV를 통한 접촉이 각각 29.6%와 25.0%를 차지하고 있어 영상 및 정보화 세대다운 측면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 문화의 이용이 일본(50.4%)과 미국(41.8%)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은 다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lt;표 III-30&gt; 가장 많이 들어온 외국문화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영화     | 177 | 23.4  | 32.2  | 32.2  |
| 음악     | 92  | 12.2  | 16.8  | 49.0  |
| 만화     | 86  | 11.4  | 15.7  | 64.7  |
| 잡지     | 2   | .3    | .4    | 65.0  |
| 전자오락   | 42  | 5.6   | 7.7   | 72.7  |
| 패션     | 101 | 13.4  | 18.4  | 91.1  |
| 비디오테이프 | 10  | 1.3   | 1.8   | 92.9  |
| 음식     | 39  | 5.2   | 7.1   | 100.0 |
| 소계     | 549 | 72.7  | 100.0 |       |
| 결측치    | 206 | 27.3  |       |       |
| 전체     | 755 | 100.0 |       |       |

&lt;표 III-31&gt;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외국문화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영화     | 167 | 22.1  | 30.4  | 30.4  |
| 음악     | 130 | 17.2  | 23.7  | 54.1  |
| 만화     | 84  | 11.1  | 15.3  | 69.4  |
| 잡지     | 2   | .3    | .4    | 69.8  |
| 전자오락   | 65  | 8.6   | 11.8  | 81.6  |
| 패션     | 48  | 6.4   | 8.7   | 90.3  |
| 비디오테이프 | 24  | 3.2   | 4.4   | 94.7  |
| 음식     | 29  | 3.8   | 5.3   | 100.0 |
| 소계     | 549 | 72.7  | 100.0 |       |
| 결측치    | 206 | 27.3  |       |       |
| 전체     | 755 | 100.0 |       |       |



<표 III-32> 외국문화 접촉 매체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신문   | 49  | 6.5   | 8.9   | 8.9   |
| 잡지   | 68  | 9.0   | 12.4  | 21.4  |
| TV   | 137 | 18.1  | 25.0  | 46.4  |
| 라디오  | 9   | 1.2   | 1.6   | 48.0  |
| 친구   | 76  | 10.1  | 13.9  | 61.9  |
| PC통신 | 27  | 3.6   | 4.9   | 66.8  |
| 인터넷  | 162 | 21.5  | 29.6  | 96.4  |
| 기타   | 20  | 2.6   | 3.6   | 100.0 |
| 소계   | 548 | 72.6  | 100.0 |       |
| 결측치  | 207 | 27.4  |       |       |
| 전체   | 755 | 100.0 |       |       |

<표 III-33> 대중문화 상품 수입국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미국    | 230 | 30.5  | 41.8  | 41.8  |
| 일본    | 277 | 36.7  | 50.4  | 92.2  |
| 홍콩.대만 | 9   | 1.2   | 1.6   | 93.8  |
| 유럽    | 10  | 1.3   | 1.8   | 95.6  |
| 기타    | 24  | 3.2   | 4.4   | 100.0 |
| 소계    | 550 | 72.8  | 100.0 |       |
| 결측치   | 205 | 27.2  |       |       |
| 전체    | 755 | 100.0 |       |       |

가장 많이 구입하는 외국문화상품 항목에 있어서도 이상에서 나타난 응답들에서처럼 CD와 음반 등 음악과 관계된 상품들이 총 28.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이 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캐릭터 상품(21.0%), 의류와 악세사리(19.2%), 게임 CD(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III-34&gt; 가장 많이 소비하는 외국문화상품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잡지      | 7   | .9    | 1.3   | 1.3   |
| 비디오     | 53  | 7.0   | 9.8   | 11.1  |
| 음악CD    | 90  | 11.9  | 16.6  | 27.7  |
| 캐릭터상품   | 114 | 15.1  | 21.0  | 48.7  |
| 의류.악세사리 | 104 | 13.8  | 19.2  | 67.9  |
| 음반.테이프  | 62  | 8.2   | 11.4  | 79.3  |
| 게임CD    | 70  | 9.3   | 12.9  | 92.3  |
| 음식      | 42  | 5.6   | 7.7   | 100.0 |
| 소계      | 542 | 71.8  | 100.0 |       |
| 결측치     | 213 | 28.2  |       |       |
| 전체      | 755 | 100.0 |       |       |

한 편, 90번 문항을 보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으로 노래방(27.3%)이 꼽혔으며, PC방도 26.4%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영화관(19.5%), 오락실(1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항목에도 13.5%가 표시되는 등 과거와 비교해볼 때 청소년들이 찾는 여가공간이 긍정적, 부정적 차원을 떠나 점차 증가 또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표 III-35> 여가 이용 장소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영화관  | 104 | 13.8  | 19.5  | 19.5  |
| 콘서트장 | 6   | .8    | 1.1   | 20.6  |
| 소극장  | 3   | .4    | .6    | 21.2  |
| 노래방  | 146 | 19.3  | 27.3  | 48.5  |
| 오락실  | 59  | 7.8   | 11.0  | 59.6  |
| PC방  | 141 | 18.7  | 26.4  | 86.0  |
| 비디오방 | 3   | .4    | .6    | 86.5  |
| 기타   | 72  | 9.5   | 13.5  | 100.0 |
| 소계   | 534 | 70.7  | 100.0 |       |
| 결측치  | 221 | 29.3  |       |       |
| 전체   | 755 | 100.0 |       |       |

또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는 전체 응답자 중 58.8%를 차지하여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41.2%)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은 주로 문화예술 분야가 55.2%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고, 이 외에 사회봉사(5.4%), 스포츠활동(9.8%), 팬클럽(7.6%) 등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신 제시된 응답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21.9%나 되는 것을 볼 때 이 부분 역시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6> 동아리활동 여부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예   | 322 | 42.6  | 58.8  | 58.8  |
| 아니오 | 226 | 29.9  | 41.2  | 100.0 |
| 소계  | 548 | 72.6  | 100.0 |       |
| 결측치 | 207 | 27.4  |       |       |
| 전체  | 755 | 100.0 |       |       |

&lt;표 III-37&gt; 동아리활동 종류

|      | 빈도  | %     | 유효 %  | 누적 %  |
|------|-----|-------|-------|-------|
| 문화예술 | 174 | 23.0  | 55.2  | 55.2  |
| 사회봉사 | 17  | 2.3   | 5.4   | 60.6  |
| 스포츠  | 31  | 4.1   | 9.8   | 70.5  |
| 팬클럽  | 24  | 3.2   | 7.6   | 78.1  |
| 기타   | 69  | 9.1   | 21.9  | 100.0 |
| 소계   | 315 | 41.7  | 100.0 |       |
| 결측치  | 440 | 58.3  |       |       |
| 전체   | 755 | 100.0 |       |       |

## (3) 하위문화 경험여부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하위문화 경험여부는 술, 담배, 나이트, 이성친구, 머리 염색, 귀걸이(귀뿔음) 등에 대한 경험 유무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술, 이성친구, 머리염색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담배, 나이트, 귀걸이 등에 있어서는 비록 과반수는 아니지만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의미 있는 정도로 나타나 이들 하위문화--기성세대의 판단에 따른--가 점차 청소년들에게는 더 이상 하위문화가 아닌 일상문화의 영역으로 포함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III-38&gt; 하위문화 경험여부

|          | 있다         | 없다         |
|----------|------------|------------|
| 술        | 483(64.0%) | 272(36.0%) |
| 담배       | 157(20.8%) | 596(79.2%) |
| 나이트      | 127(16.9%) | 626(83.1%) |
| 이성친구     | 394(52.6%) | 355(47.4%) |
| 머리염색     | 399(52.9%) | 355(47.1%) |
| 귀걸이(귀뿔음) | 229(30.4%) | 525(69.6%) |

#### (4) 청소년 문화 및 기성 문화에 대한 태도

##### ① 청소년문화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대한 문항은 크게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부분과 긍정적인 측면을 묻는 부분 및 그들의 집단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한 문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42, 43, 46, 48, 49, 52번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정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강한 종속성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기성세대나 부모님에 대한 막연한 저항이나 반항 의식 등이 강한 독립의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문화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2%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46.0%에 달하고 있지만, 43번과 46번 문항에서는 그렇다와 아니다에 응답한 수치가 각각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의견이 이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독립적이지 못하다”와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지나치게 의존적이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례가 각각 43.3%와 48.4%를 차지하는 등 이 항목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lt;표 III-39&gt; 청소년 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아니다        |
|-------------------------------|------------|------------|------------|
| 문42) 청소년 문화는 문제가 많다           | 432(57.2%) | 224(29.7%) | 99(13.1%)  |
| 문43) 청소년들은 자신밖에 모른다           | 254(33.7%) | 217(28.8%) | 283(37.5%) |
| 문46) 청소년들은 언제나 유행만<br>쫓아간다    | 261(34.6%) | 218(28.9%) | 275(36.5%) |
| 문48) 청소년들은 독립적이지 못하다          | 175(23.2%) | 253(33.5%) | 327(43.3%) |
| 문49)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지나치게<br>의존적이다 | 162(21.5%) | 227(30.1%) | 365(48.4%) |
| 문52) 청소년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 347(46.0%) | 277(36.7%) | 131(17.4%) |

청소년 문화의 긍정성에 대한 문항은 47, 50, 51번 등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47번과 50번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49.9%와 44.4%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1번의 책임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37.4%가 ‘아니다’라고 답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의 48, 49번 문항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의식의 이면에 대한 하나의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즉 청소년들은 기성의 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독립 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책임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함으로써 모순된 태도 혹은 미완의 자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 52의 결과에서처럼 그들은 그들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이중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II-40> 청소년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아니다        |
|-------------------------------|------------|------------|------------|
| 문47)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 377(49.9%) | 242(32.1%) | 135(17.9%) |
| 문50) 청소년들은 창의적이다              | 335(44.4%) | 292(38.7%) | 128(17.0%) |
| 문51)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 169(22.4%) | 303(40.2%) | 282(37.4%) |

이러한 이중적이고 혼란스러운 태도는 문44와 45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문 44에서는 청소년들의 60.5%가 그들 문화가 집단주의라고 응답하고 있고 12.5%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문 45에서는 44.8%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화를 개인주의라고 평가하고 2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 등 가치관에 있어 혼란스러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41> 청소년 문화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아니다        |
|--------------------|------------|------------|------------|
| 문44) 청소년들은 집단적이다   | 457(60.5%) | 204(27.0%) | 94(12.5%)  |
| 문45)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적이다 | 338(44.8%) | 239(31.7%) | 177(23.5%) |

## ② 기성문화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이 기성문화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도 청소년 문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측정에서와 동일한 항목들을 기성세대의 일반적 이미지

에 적합하도록 변형시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역시 청소년 문화에 대한 태도에서와 동일하게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 및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판단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문항 54, 55, 57, 59, 60, 63 등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기성세대들이 자식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라고 하는 문항에 대해서만 부정적, 즉 기성세대들은 의존적이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이 표시되었을 뿐, 여타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항별 차이는 있으나 기성세대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성세대 문화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45.4%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성세대들이 권위적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기성문화 또는 기성세대의 권위적 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성세대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45.3%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2>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아니다        |
|---------------------------------|------------|------------|------------|
| 문53) 기성세대 문화는 문제가 많다            | 342(45.4%) | 286(37.9%) | 126(16.7%) |
| 문54) 기성세대들은 자신밖에 모른다            | 228(30.2%) | 305(40.4%) | 222(29.4%) |
| 문57) 기성세대들은 언제나<br>고리타분하다       | 257(34.0%) | 268(35.5%) | 230(30.5%) |
| 문59) 기성세대들은 권위적이다               | 508(67.3%) | 187(24.8%) | 60(7.9%)   |
| 문60) 기성세대들은 자식들에게<br>지나치게 의존적이다 | 231(30.6%) | 250(33.1%) | 274(36.3%) |
| 문63) 기성세대들의 태도는<br>이중적이다        | 342(45.3%) | 296(39.2%) | 117(15.5%) |



한 편, 기성세대 문화의 긍정성에 대해 물어본 58, 61, 62번 문항 응답 결과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들의 창조 또는 창의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성세대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8번과 61번 문항에서 볼 수 있는 기성세대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각각 39.6%와 58.8%의 응답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62번 문항의 책임성에 대해서만 57.6%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III-43>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아니다        |
|--------------------------------|------------|------------|------------|
| 문58) 기성세대들은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 154(20.4%) | 302(40.0%) | 299(39.6%) |
| 문61) 기성세대들은 창의적이다              | 48(6.4%)   | 263(34.9%) | 443(58.8%) |
| 문62)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 434(57.6%) | 229(30.4%) | 91(12.1%)  |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행위특성에 대해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번 문항에서 31.3%가 기성세대는 집단주의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주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7% 였다. 또한 56번 문항에서도 31.9%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를 개인주의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태도는 기성세대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사한 것으로서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세대 모두 상대 세대를 개인주의적이라고 보다 많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집단주의적인 것이 전통적 미덕의 가치로 위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서로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발현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할 것이다.

&lt;표 III-44&gt; 기성세대 문화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                     |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아니다        |
|---------------------|------------|------------|------------|
| 문55) 기성세대들은 집단적이다   | 224(29.7%) | 295(39.1%) | 236(31.3%) |
| 문56) 기성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이다 | 241(31.9%) | 319(42.3%) | 195(25.8%) |

#### (5) 문화감수성 요인별 아노바(ANOVA) / t-test 분석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권위에 기인하여 문화감수성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문화의식, 유행의식, 독립의식(부모로부터의 독립), 주체성, 대인 적대성 등과 같은 5가지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들 요인의 구성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의 두 가지 특성인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질문들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주체적 태도에 대한 물음들로 이루어졌다.

이들 요인들 중 문화의식, 독립의식, 주체성 등은 평균이 높을수록 문화감수성의 정도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행의식과 적대성은 낮을수록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요인들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보고 나아가 본 연구에서 의도한 다섯 가지 독립변수들(학교급, 성별, 연령, 생활수준, 거주형태)과의 상관관계를 일방향 아노바 분석(단, 성별과의 관계는 t-test)에 의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반적 수준에서의 분석은 전체 피조사자들의 문화감수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아노바 분석은 모집단 내 상이한 하위 집단간 문화감수성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① 문화감수성의 일반적 수준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별 평균, 최빈치, 중앙치,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았다.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등간, 서열척도였다. 따라서 이들 각 문항들로 이루어진 요인들의 다음과 같은 통계치는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감수성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값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45> 문화감수성 요인별 기초통계

|      |     | 문화의식    | 유행의식    | 독립의식    | 주체성     | 적대성     |
|------|-----|---------|---------|---------|---------|---------|
| 빈도   | 유효치 | 713     | 750     | 750     | 748     | 745     |
|      | 결측치 | 42      | 5       | 5       | 7       | 10      |
| 평균   |     | 2.1080  | 1.9447  | 2.3680  | 2.1622  | 1.9639  |
| 최빈치  |     | 2.1111  | 2.0000  | 2.3636  | 2.1667  | 2.0000  |
| 중앙치  |     | 2.00    | 2.00    | 2.36    | 2.00    | 2.00    |
| 표준편차 |     | .2413   | .4202   | .2977   | .4270   | .4248   |
| 범위   |     | 1.56    | 2.00    | 1.55    | 2.00    | 2.00    |
| 최소값  |     | 1.22    | 1.00    | 1.45    | 1.00    | 1.00    |
| 최대값  |     | 2.78    | 3.00    | 3.00    | 3.00    | 3.00    |
| 합계   |     | 1503.00 | 1458.50 | 1776.00 | 1617.33 | 1463.10 |

우선, 전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식의 최소값이 1.22이고 최대값이 2.78인 것을 볼 때 분포도상 정상분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다소 첨도가 높은 뾰족한(peaked) 분포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중앙치가 2.00, 최빈치가 2.1111, 평균이 2.1080이고 표준편차가 0.2413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의 중앙값(2.0)보다 다소 높은 분포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청소년들의 문화의식이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항목 점수의 합계에 있어서도 1503.00으로 다섯 요인 중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유행의식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점수 합계가 1458.50으로 다섯 요인들 중 가장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이 1.9447, 중앙치가 2.0, 최빈치

또한 2.0으로 많은 청소년들은 유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르거나 적극적으로 배타하지 않는 소극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여 굳이 경향성을 해석한다면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미약하나마 다소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분포 정도는 거의 정상분포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독립의식은 다섯 요인들 중 가장 높은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총 합계가 1776.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과 중앙치, 최빈치 등이 각각 2.3680, 2.36, 2.3636으로 나타나 세 가지 통계치가 거의 일치하는 상태에서 역시 가장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최소값과 최대값, 범위, 표준편차 등을 통해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독립의식은 정상분포 위치에서 다소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태로 문화의식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침도가 높아진 모양, 즉 뾰족한(peaked) 분포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있어 독립에 대한 의식이 집중적으로 공유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주체성의 경우에는 점수의 총합이 1617.33으로 다섯 요인들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과 최빈치가 각각 2.1622, 2.1667이며 중앙치가 2.0으로 청소년들의 일반적 경향이 긍정적인 주체성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포는 정상분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소 부정편도분포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인 적대성 요인에 있어서는 점수의 총합이 유행의식의 정도와 비슷한 1463.1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도 1.9639를 보이고 있다. 중앙치와 최빈치는 모두 2.0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정상분포에서 미약하게나마 정적편도의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볼 때 청소년들이 타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는 정도는 부정적인 방향, 즉 적대감을 덜 갖는 방향으로 위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강하게 긍정적이거나 강하게 부정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방향성의 측면에서 고려해본다면 역시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문화 감수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별 감수성의 정도를 본다면 독립의식, 주체성, 문화의식, 유행의식, 적대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② 문화의식

문화의식 요인은 성별, 거주형태, 생활수준, 연령, 학교급 등 다섯 가지 변수 모두와의 관계에서 유의미(또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의도가 0.051(>.05)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차에 따른 문화의식 정도를 굳이 본다면 여자 청소년의 문화의식 평균이 2.1280으로 남자 청소년의 평균인 2.09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문화의식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반면 남자 청소년은 이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결국 여자 청소년들의 문화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성별 문화의식 t-test

| 성별       |    | 빈도  | 평균     | t      | 자유도     | 유의도<br>(양방향) |
|----------|----|-----|--------|--------|---------|--------------|
| 문화<br>의식 | 남자 | 410 | 2.0932 | -1.952 | 697.658 | .051         |
|          | 여자 | 303 | 2.1280 |        |         |              |

거주형태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도가 0.004(<.01)로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각 집단별 빈도수가 1인 경우가 있어 Scheffe 사후검증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빈도에 의한 집단별 차이를 보면 기타(기숙사 거주)의 경우가 평균 2.1777로 가장 높은 문화의식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부모와의 거주가 2.1349로 두 번째를, 그리고 친부모와의 거주가 2.0988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와 편부모 거주 형태를 제외하고

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감수성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친부모 거주형태도 포함된다.

<표 III-47> 거주형태별 문화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
| 문화<br>의식 | 친부모 | 586 | 2.0988 | 3.181 | .004** |
|          | 양부모 | 1   | 1.9444 |       |        |
|          | 계부모 | 6   | 1.8704 |       |        |
|          | 편부모 | 21  | 2.1349 |       |        |
|          | 친척  | 2   | 1.8611 |       |        |
|          | 혼자  | 2   | 1.8889 |       |        |
|          | 기타  | 91  | 2.1777 |       |        |
|          | 전체  | 709 | 2.1066 |       |        |

생활수준과의 관계는 다음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문화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생활수준 집단은 중류층이며 평균이 2.1185로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상류층과 하류층도 긍정적 방향의 문화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평균보다는 높지 않았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사후검증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중류층과 하류층간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III-48> 생활수준별 문화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유의미한<br>사후검증<br>관계 |   | 평균차  | 유의도   |
|----------|----|-----|--------|-------|-------|--------------------|---|------|-------|
| 문화<br>의식 | 중  | 568 | 2.1185 | 3.678 | .026* | 중                  | 하 | .073 | .035* |
|          | 하  | 82  | 2.0447 |       |       |                    |   |      |       |
|          | 전체 | 708 | 2.1071 |       |       |                    |   |      |       |

문화의식과 연령과의 관계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화의식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15세 집단으로 평균이 2.1725이고, 16세가 2.1215, 17세가 2.0840, 18세가 2.0939로 나타났다. 15, 16세 집단은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문화의식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 각 연령집단간 차이에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9> 연령별 문화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
| 문화<br>의식 | 15 | 67  | 2.1725 | 3.011 | .030* |
|          | 16 | 288 | 2.1215 |       |       |
|          | 17 | 311 | 2.0840 |       |       |
|          | 18 | 42  | 2.0939 |       |       |
|          | 전체 | 708 | 2.1082 |       |       |

한편, 학교급과 문화의식간의 관계는 다음 도표에서와 같이 매우 커다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평균 비교에서 보면, 대안C 학교의 문화의식이 2.2354의 평균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과학고로 2.1619를 보이고 있고, 대안B, A, 인문고 등이 각각 2.1715, 2.1373, 2.1097 등의 순서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실업고의 경우에는 전체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1.9928의 수치를 보여 가장 낮은 문화의식을 보였다. 사후검증에서도 이와 같은 집단간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실업고의 문화의식이 다른 다섯 개의 학교급들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난 통계치가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lt;표 III-50&gt; 학교급별 문화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유의미한사<br>후검증관계 | 평균차 | 유의도            |
|------------------|-----|-----|--------|--------|---------|----------------|-----|----------------|
| 문<br>화<br>의<br>식 | 대안A | 36  | 2.1373 | 11.805 | .000*** | 실<br>업<br>고    | 대안A | -.1445 .049*   |
|                  | 대안B | 46  | 2.1715 |        |         |                | 대안B | -.1787 .001*** |
|                  | 대안C | 38  | 2.2354 |        |         |                | 대안C | -.2426 .000*** |
|                  | 인문  | 305 | 2.1097 |        |         |                | 인문  | -.1168 .000*** |
|                  | 실업  | 147 | 1.9928 |        |         |                |     |                |
|                  | 과고  | 141 | 2.1619 |        |         |                | 과고  | -.1691 .000*** |
|                  | 전체  | 713 | 2.1080 |        |         |                |     |                |

## ③ 유행의식

유행의식 요인은 성별, 거주형태, 생활수준, 학교급 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성별 집단차에 따른 유행의식 정도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의 평균이 2.0131로 1.8945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남자 청소년들보다 높은 유행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자 청소년들의 유행의식 정도는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정도이며,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전체값보다 낮은 유행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lt;표 III-51&gt; 성별 유행의식 아노바 분석

| 성별       |    | 빈도  | 평균     | t      | 자유도     | 유의도<br>(양방향) |
|----------|----|-----|--------|--------|---------|--------------|
| 유행<br>의식 | 남자 | 435 | 1.8945 | -3.759 | 614.901 | .000***      |
|          | 여자 | 314 | 2.0131 |        |         |              |

한 편, 거주형태에 따른 유행의식 정도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보면 특히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과



기타(기숙사)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집단의 경우 유행의식의 평균값이 1.7382로 가장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고 반면 친부모 집단은 1.9819로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정도를 보였다.

<표 III-52> 거주유형별 유행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유의미한 상호<br>검증관계 |    | 평균<br>차 | 유의도     |
|----------|-----|-----|--------|-------|---------|-----------------|----|---------|---------|
| 유행<br>의식 | 친부모 | 615 | 1.9819 | 5.172 | .000*** | 친부모             | 기타 | 2.438   | .000*** |
|          | 양부모 | 2   | 2.0000 |       |         |                 |    |         |         |
|          | 재부모 | 7   | 1.9643 |       |         |                 |    |         |         |
|          | 편부모 | 22  | 1.8182 |       |         |                 |    |         |         |
|          | 친척  | 2   | 1.8750 |       |         |                 |    |         |         |
|          | 혼자  | 2   | 2.0000 |       |         |                 |    |         |         |
|          | 기타  | 95  | 1.7382 |       |         |                 |    |         |         |
|          | 전체  | 745 | 1.9456 |       |         |                 |    |         |         |

생활수준과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에서 보면 특히 상류층 집단과 하류층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층이라고 표시한 청소년들이 하류층에 표시한 청소년들보다 높은 유행의식을 보이고 있는데, 평균이 2.0466으로 전체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류층 청소년들은 1.8640의 평균값을 보여 전체값 보다 낮은 유행의식을 보였다.

<표 III-53> 생활수준별 유행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유의미한 상호<br>후검증관계 |   | 평균차   | 유의도   |
|----------|----|-----|--------|-------|-------|------------------|---|-------|-------|
| 유행<br>의식 | 상  | 59  | 2.0466 | 3.444 | .032* | 상                | 하 | .1826 | .034* |
|          | 중  | 594 | 1.9470 |       |       |                  |   |       |       |
|          | 하  | 91  | 1.8640 |       |       |                  |   |       |       |
|          | 전체 | 744 | 1.9447 |       |       |                  |   |       |       |

유행의식은 학교급과의 관계에서 매우 높은 유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대안C 학교와 다른 학교급들과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관계임이 밝혀졌다. 인문고와 대안B 학교, 과고 등의 차이 또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대안C 학교는 평균값이 1.4940으로 전체 평균값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곧 이 학교 학생들 중 유행을 따르는 청소년들이 매우 적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유행의식이 가장 높은 학교급은 인문고인데 평균값이 2.0465로 전체값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표 III-54> 학교급별 유행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유의미한사후<br>검증관계 | 평균차 | 유의도            |
|----------|-----|-----|--------|--------|---------|----------------|-----|----------------|
| 유행<br>의식 | 대안A | 39  | 1.9808 | 16.845 | .000*** | 대안C            | 대안A | -.4867 .000*** |
|          |     |     |        |        |         |                | 대안B | -.2820 .050*   |
|          | 대안B | 48  | 1.7760 |        |         |                | 인문  | -.5524 .000*** |
|          |     |     |        |        |         |                | 실업  | -.4360 .000*** |
|          | 대안C | 42  | 1.4940 |        |         |                | 과고  | -.4179 .000*** |
|          | 인문  | 320 | 2.0465 |        |         | 인문고            | 대안B | .2704 .002**   |
|          | 실업  | 159 | 1.9300 |        |         |                | 과고  | .1345 .050*    |
|          | 과고  | 142 | 1.9120 |        |         |                |     |                |
|          | 전체  | 750 | 1.9447 |        |         |                |     |                |

#### ④ 독립의식

독립의식 요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독립변수는 거주형태, 연령, 학교급 등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주형태집단별 차이를 보면, 사후검증을 통해서는 집단별 차이의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F값이 2.587\*로 유의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의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집단은 편부모와의 거주형태를 취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2.5455의 평균치를 보였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2.3672보다 높은 값이었다. 그러나, 전체 평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독립의식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청소년으로서의 발달과정상 특징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인과분석적 작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55> 거주형태별 독립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
| 독립의식 | 친부모 | 615 | 2.3564 | 2.587 | .017* |
|      | 양부모 | 2   | 2.0000 |       |       |
|      | 계부모 | 7   | 2.3636 |       |       |
|      | 편부모 | 22  | 2.5455 |       |       |
|      | 친척  | 2   | 2.0909 |       |       |
|      | 혼자  | 2   | 2.4091 |       |       |
|      | 기타  | 95  | 2.4086 |       |       |
|      | 전체  | 745 | 2.3672 |       |       |

연령집단별 차이에 있어서는 15세 청소년들의 독립의식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이 2.4301로 전체평균보다 높았으며, 가장 낮은 정도의 독립의식 정도는 평균 2.2636을 보인 18세 청소년들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도 이들 15세와 18세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II-56> 연령별 독립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유의미한<br>후검증관계 |     | 평균차   | 유의도   |
|----------|----|-----|--------|-------|-------|---------------|-----|-------|-------|
| 독립<br>의식 | 15 | 67  | 2.4301 | 3.404 | .017* | 15세           | 18세 | .1665 | .029* |
|          | 16 | 295 | 2.3599 |       |       |               |     |       |       |
|          | 17 | 332 | 2.3828 |       |       |               |     |       |       |
|          | 18 | 50  | 2.2636 |       |       |               |     |       |       |
|          | 전체 | 744 | 2.3700 |       |       |               |     |       |       |

한 편, 학교급 집단별 차이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유의도가 나타났는데, 특히, 대안C 학교는 다른 모든 학교급들과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높은 독립의식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안A 학교와 실업고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로부터의 독립 열망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학교의 평균은 2.6407로 전체 평균 2.3680보다 높으며, 다른 학교급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과 해석을 위해서는 이 학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57> 학교급별 독립의식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유의미한사후<br>검증관계 | 평균차 | 유의도           |
|----------|-----|-----|--------|-------|---------|----------------|-----|---------------|
| 독립<br>의식 | 대안A | 39  | 2.2867 | 8.635 | .000*** | 대안C            | 대안A | .3540 .000*** |
|          | 대안B | 48  | 2.3485 |       |         |                | 대안B | .2922 .000*** |
|          | 대안C | 42  | 2.6407 |       |         |                | 인문  | .2825 .000*** |
|          | 인문  | 319 | 2.3582 |       |         |                | 실업  | .3081 .000*** |
|          | 실업  | 158 | 2.3326 |       |         |                | 과고  | .2632 .000*** |
|          | 과고  | 144 | 2.3775 |       |         |                |     |               |
|          | 전체  | 750 | 2.3680 |       |         |                |     |               |

#### ⑤ 주체성

주체성 요인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 성별, 거주형태, 학교급 등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성별 집단간 차이는 남자 청소년의 주체성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의 평균은 2.1893이었고, 여자 청소년은 2.1237이었다.

<표 III-58> 성별 주체성 아노바 분석

| 성별  |    | 빈도  | 평균     | t     | 자유도 | 유의도<br>(양방향) |
|-----|----|-----|--------|-------|-----|--------------|
| 주체성 | 남자 | 435 | 2.1893 | 2.075 | 745 | .038*        |
|     | 여자 | 312 | 2.1237 |       |     |              |

거주형태 집단간 차이를 보면 사후검증관계를 통해서는 집단간 차이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F값에 있어서는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가장 높은 주체성 정도를 보인 집단은 혼자 사는 경우와 편부모 거주 경우인데, 각각 2.4167과 2.3056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정도의 주체성은 친척, 계부모, 양부모 거주 집단에서 나타났는데, 각각 1.7500, 1.7381, 1.8333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거주형태별 주체성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
| 주체성 | 친부모 | 615 | 2.1665 | 2.268 | .036* |
|     | 양부모 | 2   | 1.8333 |       |       |
|     | 계부모 | 7   | 1.7381 |       |       |
|     | 편부모 | 21  | 2.3056 |       |       |
|     | 친척  | 2   | 1.7500 |       |       |
|     | 혼자  | 2   | 2.4167 |       |       |
|     | 기타  | 94  | 2.1365 |       |       |
|     | 전체  | 743 | 2.1613 |       |       |

학교급에 따른 주체성의 차이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안C 학교가 평균 2.3452로 가장 높았으며, 과학고도 2.2820으로 전체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가장 낮은 주체성 정도는 인문고에서 나타났는데, 2.0952로 낮았다. 사후검증에서도 인문고의 낮은 주체성 정도는 대안C 학교 및 과학고와의 차이 관계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I-60&gt; 학교급별 주체성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유의미한사후<br>검증관계 |    | 평균차    | 유의도    |       |
|-----|-----|-----|--------|-------|---------|----------------|----|--------|--------|-------|
| 주체성 | 대안A | 39  | 2.1816 | 5.750 | .000*** | 인문             |    | 대안C    | -.2500 | .023* |
|     | 대안B | 47  | 2.1135 |       |         |                |    |        |        |       |
|     | 대안C | 42  | 2.3452 |       |         |                |    |        |        |       |
|     | 인문  | 315 | 2.0952 |       |         |                | 과교 | -.1867 | .002** |       |
|     | 실업  | 159 | 2.1462 |       |         |                |    |        |        |       |
|     | 과교  | 146 | 2.2820 |       |         |                |    |        |        |       |
|     | 전체  | 748 | 2.1622 |       |         |                |    |        |        |       |

## ⑥ 대인 적대성

대인 적대성 요인과 관련된 집단별 차이의 유의미성은 학교급 차이에 서만 나타났다. 대인 적대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1.8122의 평균을 보인 대안C 학교이며 과학교도 평균이 1.8531로 낮게 나타났다. 대안A, B 학교와 인문고, 실업고 등은 모두 전체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안A 학교와 실업고 청소년들은 평균이 각각 2.0128과 2.0199로 가장 높은 적대감을 보였다. 사후검사에서서는 과교의 적대감 수치와 인문고, 실업고의 수치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I-61&gt; 학교급별 적대성 아노바 분석

|           |     | 빈도  | 평균     | F     | 유의도     | 유의미한사후<br>검증관계 |    | 평균차    | 유의도   |
|-----------|-----|-----|--------|-------|---------|----------------|----|--------|-------|
| 대인<br>적대성 | 대안A | 39  | 2.0128 | 4.174 | .001*** |                | 인문 | -.1447 | .039* |
|           | 대안B | 48  | 1.9833 |       |         |                |    |        |       |
|           | 대안C | 41  | 1.8122 |       |         |                |    |        |       |
|           | 인문  | 316 | 1.9978 |       |         | 과교             | 실업 | -.1668 | .038* |
|           | 실업  | 156 | 2.0199 |       |         |                |    |        |       |
|           | 과교  | 145 | 1.8531 |       |         |                |    |        |       |
|           | 전체  | 745 | 1.9639 |       |         |                |    |        |       |

## ⑦ 문화감수성 요인간 상관관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의 다섯 가지 요인들간 상관관계를 보면 독립의식과 문화의식의 한 두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화의식이 높을수록 주체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타인 적대성과 유행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독립의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유행의식 요인과의 관계에서만 보여지는데, 독립의식이 커질수록 유행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성의 경우에는 주체성이 커질수록 적대성과 유행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적대성과 유행의식은 정적 상관관계, 즉 적대성이 높아질수록 유행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관계에 있어 역도 성립).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문화의식과 주체성의 함양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감소시키며 또한 막연하게 따라하는 객체성, 즉 유행의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으며, 독립의식의 강화도 유행의식을 줄이는 기능을 하여 결국 문화감수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적대성을 줄이는 방향 또는 유행의식을 낮추는 방향의 교육이나 정책 및 행위양식과 의식의 증가 또한 전반적으로 그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lt;표 III-62&gt; 제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      | 문화의식     | 독립의식     | 주체성      | 적대성   | 유행의식 |
|------|----------|----------|----------|-------|------|
| 문화의식 | -        | -        | -        | -     | -    |
| 독립의식 | .034     | -        | -        | -     | -    |
| 주체성  | .322***  | .039     | -        | -     | -    |
| 적대성  | -.239*** | -.056    | -.133*** | -     | -    |
| 유행의식 | -.130**  | -.246*** | -.119**  | .083* | -    |

수치 : 피어슨 R 값

유의도(양방향) : \* < 0.05 / \*\* < 0.01 / \*\*\* < 0.001

## (6)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문화감수성의 실태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문화생활실태와 관계된 조사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오감을 통해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른바 감각적 영상매체에 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와 컴퓨터, 인터넷 등이 중요한 일상으로 되었으며, 핸드폰도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문화로부터의 영향 또한 오락물 및 유행물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 크게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하위문화에 대한 경험여부에서는 음주를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머리염색, 이성친구, 귀걸이, 담배, 나이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음주문화에 가깝게 노출 또는 접근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위치 지워져 있는 정신적 압박감의 정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그들 문화에 대한 생각은 독립적 태도와 창의성의 측면에 있어서만 긍정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기타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 방향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항목들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지만, 단 기성세대들의 책임의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 및 기성세대 문화 모두에 대한 집단적 태도와 개인주의적 태도간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혼란스러운 가치관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 중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문화감수성 정도가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정도로 나타난 문화감수성의 하위요인은 독립의식이며, 다음으로 주체성과 문화의식이 차지하였다. 타인에 대한 적대성은 유행을 따르는 정도인 유행의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중앙치나 최빈치를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두 요인은 모두 평균의 수준에서 볼 때 중간 수치 보다 다소 하회하는 정도를 보임으로써 청소년들의 적대성이나 유행의식이--조사결과의 측면에서는--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차이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현격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독립변수는 학교급이었다. 특히, 대안C 학교는 적대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 있어 고른 분포로 가장 높은 감수성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문화의식에 있어서는 대안C 학교가 가장 높았고 실업고가 가장 낮았으며, 유행의식이 가장 높은 학교는 인문계였다. 유행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대안C였다. 독립의식은 대안C가 가장 높았으며 대안A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주체성에 있어서는 대안C가 가장 높게, 그리고 인문고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적대성은 실업고가 가장 높았으며, 과학고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요인 전체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요인들간 관계는 높은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문화의식, 독립의식, 주체성 등은 일반적으로 타인 적대성과 유행의식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그들 내부에서는 정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앞서 논의한 문화감수성의 이론적 틀을 만족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유행의식과 타인 적대성 또한 상호 정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막연한 유행의식은 타인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낳고, 또한 역으로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의 소유는 막연한 유행의식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두 부분 모두 문화감수성의 증진에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2) 참여관찰

### (1) 참여관찰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수준에서의 참여관찰 중 외부자적 입장에서의 관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관찰은 할당된 지역별로 신호등이나 거리가 잘 관찰되는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나가는 청소년들의 특징적 외형 차림새를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관찰기록이 구성되었다. 일기식이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술방식으로는 짧은 시간동안 지나치는 거리의 많은 청소년들을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그들의 일반적 특징들을 관찰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마련된 기록지에 관찰된 청소년 혹은 청소년 집단의 외형적 특징들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관찰된 내용에 대한 해석은 각 지역별로 이루어졌으며, 직관적 구조화 방식(현상학적 방법론)이 이용되었다. 분석 범위를 각 지역별로 구분한 이유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징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전 관찰의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 (2) 서울지역 참여관찰<sup>2)</sup>

2) 조 은(조은, 2000)은 2000년 그의 연구(5월부터 5개월)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울지역을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곳으로 구분한다. 참조, 비교하기 바란다.

「제 1지역 : 문화시설이 거의 없고 학원시설이나 상가시설이 약간 있지만 주로 유흥가만 있는 돈암동, 신림동, 영등포동, 가리봉동, 노량진, 건대앞.

제 2지역 :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있지만 백화점, 상가, 할인매장이 밀집된 상가 지역인 천호동, 신천동, 문정동, 상계동, 연신내, 동대문.

제 3지역 : 영화관이나 소극장 등 문화시설과 함께 이국적인 카페와 브랜드샵 등이 있는 강남역, 삼성동, 압구정동.

제 4지역 : 문화시설이 주를 이룬 지역인 홍대앞, 신촌, 대학로, 명동.」(p. 54)

더불어 조 은은 동일 연구에서 위 각 지역별 청소년들의 외형적 차림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지역 청소년들은 캐주얼과 복고 스타일의 옷을 입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복

## ① 신촌

신촌 지역은 문화시설과 유흥시설들이 함께 존재하는 곳으로 대학생과 중고 청소년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이 곳에서의 참여관찰은 2000년 8월 25(금)일 17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그 레이스백화점(구)의 연대로 향하는 지하통로에서 진행되었는데, 관찰·기술된 총 108 사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lt;표 III-63&gt; 신촌지역 참여관찰 기술종합표

|   | 공유된 대표적인 외형적 특성                                                                                                                                                  |
|---|------------------------------------------------------------------------------------------------------------------------------------------------------------------|
| 남 | 무스 바른 머리, 양말을 신지 않음, 흰 운동화, 흰양말, 사선으로 맨 긴 가방끈, 귀걸이, 목걸이,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힙합패션, 휴대용 손가방, 흰 샌달, 슬리퍼, 랜드로바, 라운드 티, 스포츠형 짧은 머리            |
| 여 | 젤, 옆가르마 한 쪽 머리핀, 사선으로 맨 긴 가방끈, 흰색 운동화, 흰 양말, 베이지색 반바지, 힙합스타일 바지, 메이커 운동화, 메이커 배낭,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짧고 볼게 입은 교복치마, 슬리퍼, 라운드 티, 귀걸이, 목걸이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 청소년들은 머리를 염색하고 무스나 젤을 바르며 남성은 짧은 스포츠형 머리, 여성은 옆가르마에 한 쪽 핀

을 줄여 입고 있다. 힙합을 입는 경우는 간혹 한 두 명 정도로 거의 드물다. ..... 반면 3지역 청소년들은 거의 힙합 스타일의 옷을 입고 캐주얼을 입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 외국 브랜드인 폴로의 옷을 입고 있다. 교복을 줄여 입은 아이는 한 명도 볼 수 없다. 이들 지역 아이들은 “힙합이요. 지금 입고 있는 것도 힙합이거든요. 다다, 에코, 우, 폴로...”라면서 유명상표의 이름을 줄줄이 꿰고 있다. 2지역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캐주얼과 복고 스타일의 옷을 입기도 하고 힙합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힙합을 입는 경우에는 3지역에서 많이 입는 정통힙합이 아니라 세미힙합을 입고 있다. 4지역은 캐주얼, 복고, 힙합의 모든 스타일의 옷을 볼 수 있다. 4지역은 1, 2, 3 지역에서 보았던 청소년들의 모든 옷차림이 섞여 있다. 4지역은 서울 시내의 중심지여서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p. 57-58)

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가방은 사선으로 길게 멘다든지 아니면 메이커나 체크무늬의 배낭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양말을 신지 않거나 신는다면 흰색을 신고 핸드폰은 거의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하여 넣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목에 거는 경우는 드물었다. 슬리퍼와 샌달을 신는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형과 유사한 샌달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소수였지만 교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몸에 밀착되게 고쳐 입는 경우가 많았고, 다수는 자유복으로 힙합 스타일이 많았다. 혼자 걸어가는 경우보다 2인 이상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경우가 주류였으며, 이들 동일 집단 내에서는 유사한 외형적(행위유형도 포함) 스타일이 나타났다.

## ② 돈암동

돈암동 지역은 카페, 음식점, 술집, 각종 악세사리 점포 등과 같은 유흥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성신여대와 인접하고 있어 여대의 특성이 관찰되어질 수 있는 지역이지만, 특정 시간대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관찰되는 곳이다.

이 곳에서의 관찰 기록은 2000년 9월 24(일)일 14시부터 약 4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총 111 사례가 관찰되었다.

<표 III-64> 돈암동지역 참여관찰 기술종합표

|   | 공유된 대표적인 외형적 특성                                                                                                                                                                       |
|---|---------------------------------------------------------------------------------------------------------------------------------------------------------------------------------------|
| 남 | 무스 바른 머리, 양말을 신지 않음, 흰 운동화, 흰양말, 사선으로 멘 긴 가방끈, 귀걸이, 목걸이,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머리염색, 힙합패션, 슬리퍼, 랜드로바, 라운드 티, 스포츠형 짧은 머리, 청바지, 끝이 뾰족한 구두, 야구모자, 워커                               |
| 여 | 젤, 옆가르마 한 쪽 머리핀, 사선으로 멘 긴 가방끈, 흰색 운동화, 흰양말, 힙합스타일 바지, 머리염색,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짧고 붙게 입은 교복치마, 슬리퍼, 라운드 티, 귀걸이, 목걸이, 앞가르마 양 쪽 머리핀, 병거지 모자, 야구모자, 머리 뒤로 묶음, 청바지, 끝이 뾰족한 구두, 워커 |

이 표에서 보여지듯이, 이 지역 청소년들도 신촌에서와 유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관찰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의 특징들이 대부분 이곳에서도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찰자의 느낌에서 볼 때 신촌과 비교되는 부분은 이 곳에서의 유행스타일이 다소 세련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유형은 이 곳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 ③ 동대문

동대문 지역은 대규모 의류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며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가 및 기타 단체들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이 곳에서의 참여관찰은 두산타워 정문과 밀리오레 앞에서 각각 2000년 9월 22(금)일 17시 30분-20시, 2000년 9월 24(일)일 16시 30분-19시 20분까지 이루어졌다. 관찰된 총 사례는 103사례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65> 동대문지역 참여관찰 기술종합표

|   | 공유된 대표적인 외형적 특성                                                                                                                                                                         |
|---|-----------------------------------------------------------------------------------------------------------------------------------------------------------------------------------------|
| 남 | 무스 바른 머리, 양말을 신지 않음, 흰색 큰 운동화, 흰양말, 사선으로 맨 긴 가방끈, 귀걸이, 목걸이,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힙합패션, 샌달, 슬리퍼, 랜드로바, 라운드 티, 스포츠형 짧은 머리, 교복의 경우 달라붙는 줄바지 형태, 청바지                  |
| 여 | 젤, 옆가르마 한 쪽 머리핀, 사선으로 맨 긴 가방끈, 흰색 큰 운동화, 흰 양말, 베이지색 반바지, 힙합스타일 바지, 메이커 운동화, 메이커 배낭,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짧고 붙게 입은 교복치마, 슬리퍼, 라운드 티, 귀걸이, 목걸이, 청바지, 야구모자, 머리 뒤로 묶음 |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 곳에서의 청소년들의 외형적 스타일 또한 앞서 살펴본 두 곳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언제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동일 집단 내에서는 상호 유사한 외형적 스타일을 보이고 있었다.

#### ④ 신림동

신림동 지역은 신림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학원들과 유흥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 곳에서의 참여관찰은 신림 사거리의 맥도널드 맞은편과 신림역 입구 롯데리아에서 2000년 8월 25(금)일, 9월 2(토)일, 9월 3(일)일에 17시부터 20시경까지 진행되었다. 관찰된 총 사례는 110 건으로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66> 신림동지역 참여관찰 기술종합표

|   | 공유된 대표적인 외형적 특성                                                                                                                                                                                |
|---|------------------------------------------------------------------------------------------------------------------------------------------------------------------------------------------------|
| 남 | 무스 바른 머리, 양말을 신지 않음, 흰색 큰 운동화, 흰양말, 사선으로 멘 긴 가방끈, 귀걸이, 목걸이,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힙합패션, 휴대용 손가방, 흰 샌달, 슬리퍼, 랜드로바, 라운드 티, 스포츠형 짧은 머리, 청바지, 정장, 거드랑이에 낀 스포츠 가방, 야구모자        |
| 여 | 젤, 옆가르마 한 쪽 머리핀, 사선으로 멘 긴 가방끈, 흰색 큰 운동화, 흰 양말, 페이지색 반바지, 힙합스타일 바지, 메이커 운동화, 메이커 배낭,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짧고 볼게 입은 교복치마, 슬리퍼, 라운드 티, 귀걸이, 목걸이, 청바지, 야구모자, 병지저 모자, 정장, 핸드백 |

이 곳에서는 청소년들의 미팅이 특히 많이 관찰되었다. 주로 찾기 쉬운 곳에서 만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요일에는 그런 이유에서인지 정장 스타일의 청소년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 곳에서도 대부분의 외현화된 행위유형들은 집단적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 ⑤ 강남역

강남 지역은 강남 역을 중심으로 문화시설 및 유흥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언제나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들 및 대학생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대표적인 청소년 지구이다.

이 곳에서의 참여관찰은 타워레코드 뒷골목과 뉴욕제과, KFC 등지에서 이루어졌는데, 2000년 8월 24(금)일, 9월 2(토)일, 9월 3(일)일 17시경부터 21시경까지 진행되었다. 총 105 사례가 관찰기록 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67> 강남역지역 참여관찰 기술종합표

|   | 공유된 대표적인 외형적 특성                                                                                                                                                                                                        |
|---|------------------------------------------------------------------------------------------------------------------------------------------------------------------------------------------------------------------------|
| 남 | 무스 바른 머리, 양말을 신지 않음, 흰색 큰 운동화, 흰양말, 사선으로 맨 긴 가방끈, 귀걸이, 목걸이,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힙합패션, 라운드 티, 스포츠형 짧은 머리, 야구모자, 청바지, 남방, 썬글라스, 단화, 면바지, 병거지 모자, 검정 구두, 검정조끼                                      |
| 여 | 젤, 옆가르마 한 쪽 머리핀, 사선으로 맨 긴 가방끈, 흰색 큰 운동화, 흰 양말, 페이지색 반바지, 힙합스타일 바지, 메이커 운동화, 메이커 배낭,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라운드 티, 귀걸이, 목걸이, 썬글라스, 샌달, 청바지, 머리 뒤로 묶음, 구두, 블라우스, 타이트 바지, 핸드백, 검은 치마, 원피스, 투피스, 정장 바지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곳 강남역 부근에서 관찰된 청소년들의 특징은 이상의 다른 곳에서 기록된 유형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장류의 스타일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썸글라스나 검은색 스타일의 고급 의류와 악세사리를 착용한 경우가 많이 눈에 띄었다. 전반적으로 다소 고급스럽고 다양한 스타일의 외형적 특징이 관찰된 곳이었다. 그러나, 이 곳에서 역시 집단적 행위 특성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 ⑥ 인천

인천지역은 문화시설과 함께 다양한 상가들이 다수 위치해 있는 특성의 지역으로 로테오거리와 함께 고급의류매장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의 관찰은 2000년 9월 22(금)일과 9월 24(일)일 양일에 걸쳐 17시경부터 23시경사이에 인천역 성당 뒷골목에서 이루어졌다. 총 100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68> 인천역지역 참여관찰 기술종합표

|   | 공유된 대표적인 외형적 특성                                                                                                                                                                                                                          |
|---|------------------------------------------------------------------------------------------------------------------------------------------------------------------------------------------------------------------------------------------|
| 남 | 무스 바른 머리, 양말을 신지 않음, 흰색 큰 운동화, 흰양말, 사선으로 맨 긴 가방끈, 귀걸이, 목걸이,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힙합패션, 휴대용 손가방, 라운드 티, 스포츠형 짧은 머리, 청바지, 남방, 단화, 반지, 기타 메이커 상품들 착용                                                                  |
| 여 | 젤, 옆가르마 한 쪽 머리핀, 사선으로 맨 긴 가방끈, 흰색 큰 운동화, 흰 양말, 베이지색 반바지, 힙합스타일 바지, 메이커 운동화, 메이커 배낭,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라운드 티, 귀걸이, 목걸이, 썸글라스, 베이지색 면바지, 머리 뒤로 묶음, 구두, 야구모자, 목걸이 핸드폰, 원피스, 플라티, 병거지 모자, 검정 정장 바지, 검정 나시, 검정 손 핸드백 |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천역 부근에서 관찰된 청소년들의 특성은 다른 곳에서의 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고급스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메이커류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강남역에서 일부 보였던 검은색류의 옷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남자 청소년들이 금반지를 착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여자 청소년들에게서는 정장류도 많이 보였다. 그러나, 집단적 행위특성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3) 부산지역 참여관찰

부산지역은 경성대앞, 서면, 부산대앞 등을 중심으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이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 직접 관찰되기도 하였지만, 시간과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이들중 대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 위의 세 지역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 세 지역은 다시 관찰된 연구자에 따라 경성대와 서면 지역, 부산대 지역의 두 곳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결론부분에서 언급되어지겠지만, 지역간 관찰의 상이함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 ① 경성대, 서면

경성대 지역은 카페, 음식점, 주점 등과 같은 유흥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는 지역이며, 서면지역은 문화시설, 유흥시설,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경성대 앞에서의 관찰은 2000년 8월 26(토)일 13시부터 16시까지 이루어졌으며, 서면에서의 관찰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같은 날 17시부터 21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총 95 사례가 관찰되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lt;표 III-69&gt; 경성대, 서면지역 참여관찰 기술종합표

|   | 공유된 대표적인 외형적 특성                                                                                                                                  |
|---|--------------------------------------------------------------------------------------------------------------------------------------------------|
| 남 | 무스 바른 머리, 양말을 신지 않음, 운동화, 사선으로 멘 긴 가방끈, 목걸이 핸드폰, 머리염색, 배낭, 힙합패션, 슬리퍼, 랜드로바, 라운드 티, 스포츠형 짧은 머리, 야구모자, 끝이 뾰족한 구두, 남방, 목걸이, 팔찌, 줄티, 청바지, 엄지발가락 샌달   |
| 여 | 젤, 사선으로 멘 긴 가방끈, 운동화, 반바지, 힙합스타일 바지, 배낭, 머리염색, 짧고 불게 입은 교복치마, 슬리퍼, 라운드 티, 귀걸이, 핸드백, 샌달, 손가방, 줄바지, 줄티, 타이트 나시티, 타이트 치마, 청바지, 긴치마, 긴원피스, 다양한 머리스타일 |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이 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은 서울에서의 청소년들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의 유행스타일을 착용하고 있는 듯 보였다. 예를 들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엄지발가락 샌달이나 줄티, 팔찌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들에게서는 타이트한 옷과 긴치마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는 달리 핸드폰의 사용이나 착용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도 특색 있는 부분이 었다. 반면, 집단적 행위양식은 다른 곳과 동일하였다.

## ② 부산대

부산대 앞은 다양한 소규모 상가들과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학교 앞이지만 대학생들과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지역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산의 청소년 지역이다.

이 곳에서의 관찰은 부산대 앞 사거리와 부산대역 앞에서 2000년 8월 17(목)일 13시부터 20시까지, 8월 18(금)일 17시부터 19시30분까지 이루어 졌다. 총 101 사례가 관찰기록 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표 III-70> 부산대지역 참여관찰 기술종합표

|   | 공유된 대표적인 외형적 특성                                                                                                                                                                     |
|---|-------------------------------------------------------------------------------------------------------------------------------------------------------------------------------------|
| 남 | 무스 바른 머리, 양말을 신지 않음, 운동화, 사선으로 멘 긴 가방끈, 귀걸이, 목걸이, 머리염색, 체크무늬 배낭, 힙합패션, 휴대용 손가방, 흰 샌달, 슬리퍼, 랜드로바, 라운드 티, 스포츠형 짧은 머리, 야구모자, 팔찌, 청바지, 소데나시, 엄지발가락 샌달, 썬글라스,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
| 여 | 젤, 옆가르마 한 쪽 머리핀, 사선으로 멘 긴 가방끈, 운동화, 반바지, 힙합스타일 바지, 체크무늬 배낭, 머리염색, 핸드폰을 손에 들거나 주머니에 줄만 보이게 넣음, 짧고 볼게 입은 교복치마, 슬리퍼, 라운드 티, 큰 핸드백, 랜드로바, 줄 청바지, 베이지 긴바지, 머리 뒤로 묶음, 소데나시, 줄티            |

이 곳 또한 경성대, 서면 지역에서와 동일하게 부산지역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났다. 핸드폰 사용자와 휴대자가 매우 적었지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에 거는 경우보다 손에 들거나 주머니 등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집단적 행위스타일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 3) 소결

이상의 관찰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관찰되어지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외형적 행위형태는 최근 인터넷 공간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그림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3) 인터넷상 이들 두 그림 출처는 명확하지 않다.



지역에 따라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들이 발견되어지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동시대의 청소년 문화가 지니고 있는 유행적 특징들로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매우 집단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급 옷과 악세사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천역 지역이나 강남역 지역,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들 두 곳과 비교될 수 있는 돈암동 지역이나 신림역 지역, 그리고 서울과 비교되어지는 부산 지역 등 모든 조사대상 지역에서의 청소년 행태는 집단적 요소를 제외하고 설명이나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혼자 다니는 청소년을 관찰하는 것이 어려우며, 함께 다니는 집단 내에서는 언어적 유형부터 악세사리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유사한 범위 내에 들어있다는 사실 등은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감수성의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계층이나 지역 등과 같은 인공적 기준에 의해 모든 것을 유형화시키고 구조화시키며, 차별적 유행성을 형성하여 이를 집단적으로 신봉하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화적 양식은 역으로 그들의 저조하고 부정적인 문화감수성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몰래카메라와도 같은 연구자의 관찰경에 포착된 청소년들의 일상적 모습은 질문지조사라고 하는 공식적 틀에 비추어진 그들의 태도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식적으로 나타난 청소년들의 형식적 문화감수성은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들의 비공식적 문화감수성에 의해 그 정도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의 과제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질문지조사와 참여관찰이라는 두 가지의 조사 방법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조사자에게 보이는 공식적인 태도로부터 산출될 질문지조사의 오차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조사로 응용된 참여관찰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들은 문화감수성 정도에 있어 공식적 장에서의 태도와 비공식적 장에서의 태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식적 장에서의 태도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의 문화감수성 정도를 보였지만, 외적 개입조건이 배제된 비공식적 영역에서는 강한 집단성, 객체성 등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식적 장에서의 태도보다 부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감수성 정도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주류적 유행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주체적인 모습보다는 객체적으로 움직이는 청소년들의 행위양식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조사결과를 종합·해석할 때 우리는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이면에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 가능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우선, 각 지역별 유행성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는 각 지역간 상이함보다 공통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보여지는 지역별 청소년의 유행성 모습은 나름대로의 특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이함이 아직까지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별 계층차 등으로부터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참여관찰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각 지역별 유행성의 정도가 혼합되어지는 정도 또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한 구분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 특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유행성의 정도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곧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문화의 객체성이나 집단성의 약화 경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청소년들이 공식적 장에서 보여준 강한 독립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감수성 요인들 중 가장 높은 통계치를 보여준 것도 독립의식이었으며, 개별항목 결과에 있어서도 독립의식과 관계된 문항들의 통계결과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곧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식은 다른 어떤 의식들보다 강한 욕구 형태로 잠재되어 있다는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교급별 문화감수성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식적 장에서 보여진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는 학교급에 따른 집단차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안C 학교의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학교급보다 높은 정도의 문화감수성을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일단의 중요한 성찰적 기준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틀에 박힌 제도적 교육보다 자유로운 개성과 주체성을 강조해주는 비제도권에서의 교육이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에 있어서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상상력과 창조력 등에 있어 가장 풍부한 소유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주변 환경들은 그들의 이러한 가능성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틀에 박힌 표준형적 삶에 맞추어지도록 어린 시절부터 강요되어지는 청소년들의 상황은 문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 구성에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정의 획일적 틀로부터 벗어나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인성을 열어주고자 하는 대안학교의 일반적 목적은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에 있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결국, 우리에게 보여준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가능성은 획일성으로부터

터의 탈피와 개별적 주체성의 존중과 강화, 다양성의 강조, 독립적 태도의 강조 등과 같은 측면이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질 때 커다란 긍정적인 결과로 발현될 수 있으며, 더욱이 단기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고려가 개입되어질 때 커다란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제시될 정책적 차원에서의 고찰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IV.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

### 1. 기존 정책의 문제점

- 1)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및 문제점
- 2) 일반 문화정책과의 관계 및 문제점

### 2. 서구의 주요 정책

- 1) 프랑스의 청소년 문화정책
- 2) 독일의 청소년 문화운동

### 3. 21세기형 문화감수성 함양 정책

- 1) 정책의 기본 방향
- 2) 구체적인 정책 방향



## IV.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

### 1. 기존 정책의 문제점

새로운 세기는 지식, 정보, 문화창조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는 문화와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것이다.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생명으로 하는 문화영역이야말로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창조적인 요소들을 생산해내고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문화창조력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 간 정부가 추진해온 문화행정<sup>4)</sup> 혹은 문화정책 전반과 청소년 문화 정책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 아울러 서구 청소년 문화 정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 문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4) 이종인(1997)에 의하면, 문화행정이란 목표를 향해 공권력의 배경하에 문화예술정책을 형성 내지 결정하며, 이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합동적 행위를 가리킨다. 한편, 정홍익(1992)는 문화행정을 “문화와 예술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 두 정의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문화행정의 정책과정에, 후자는 문화행정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책”이란 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결정하는 행동방침”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종수 외, 1997:207). 행정이 문제해결과 목표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각종 집합적인 행위(정책수립, 예산, 인사, 조직)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정책은 문제해결과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되는 행동방침,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종인의 문화행정의 정의에 따라 문화정책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문화발전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이종인, 1997).

### 1)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및 문제점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실시되었던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과 관계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 의해 주도된 이 정책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제 1 차 계획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 2 차 계획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주용 정책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제 1 차 계획에서는 주로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건전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등이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기본 방향이었다(함병수, 이종원, 외 2000:7). 특히 이 기간동안 청소년 관련 정책들은 보호와 육성이 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청소년 지도자 및 수련시설의 활성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등 청소년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정책들의 시행이 출발되었던 단계였다.

제 2 차 계획은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의 확대”부분이 추가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는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는데(함병수, 이종원, 외 2000:8), 현재 진행중인 2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sup>

5) <http://www.mct.go.kr> 의 내용을 직접인용하기로 함.

###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I. 5개년계획의 정책 배경과 방향

- 지금까지의 청소년 정책은 그 목표를 보호·선도·교화로 정하고,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에 중점을 둬으로써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이 유보되어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향후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밝고 활기찬 창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바른 사고와 행동을 하며, 문화적감성,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 모험심과 개척정신, 봉사와 협력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국제감각 등 「21세기 청소년상」을 실현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책임감,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

#### II.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범위

- 청소년육성 중·장기계획은 청소년관련 제반 정책(육성, 보호, 학생지도, 복지, 취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청소년업무는 기능이 아닌 대상이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영역이 광범위하고, 부처별로 고유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는 문화관광부소관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은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추진함

### Ⅲ.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1. 정책의 비전과 목표

##### 청소년정책의 비전

- ◆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 ◆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정책의 목표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배양



##### 중점 추진 과제

- 청소년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

## 2. 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인격체

- 미래의 주인공으로 권리 유보 ➡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권리 증진
- 성인주의·정책대상의 청소년 ➡ 청소년참여·정책주체로의 청소년
- 소수 문제청소년의 지도·보호 ➡ 다수 건강한 청소년의 활동 지원
- 공급자·시설위주의 양적 성장 ➡ 수요자·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향상
- 중앙 중심의 규제와 닫힌 운영 ➡ 지역·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

## 3. 추진 과제

## 가.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확대

## (1)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관련 정책결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나감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청소년들의 관심을 확산해 나감

- 기관·단체·시설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 설치·운영
  - 문화관광부내에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98 하반기)
-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성세대와의 대화 활성화
  - 청소년창안제, 청소년주장대회, 지역청소년 열린광장 개최
  - 각종 위원회 활동과 정책수립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제도화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가정·학교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시행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정책참여 활성화
  - 청소년 사이버 의회 구성·운영
- 청소년 참여에 대한 청소년·사회·지도자의 인식제고

## (2) 청소년의 자생·자율활동 지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나 활동을 결성·유도·지원함으로써  
전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립·자주정신을 신장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함

- 자율활동 활성화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제 운영
-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지역 청소년의 '자율활동' 경진대회 개최
-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와 문화 프로그램 실시
- 청소년클럽·소집단·동아리·동호인회 지원
- 지역단위의 자율 프로그램(도전 청소년) 실시·지원
-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 조력지도자 위촉 운영

## (3)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청소년 봉사활동 생활화

체험을 통한 희생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봉사 수요와 공급을 효  
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장소를 개발·보급하여 청소년봉사활동을 활성화 내감

-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제도·학교 여건개선(교육부 협의)
-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터전 관리
-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정보망 형성, 체험사례 공모 등)
- 중앙·지역센터, 타 봉사 기관과의 역할분담과 연계 강화
- 자원봉사자 교육 내실화 및 자원봉사 지도자 연수 확대
- 전국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 및 경진대회 개최



## (4) 청소년의 권리와 시민권 신장

성인 중심의 사고와 관행으로 제한되고 유보된 권리를 회복·신장시켜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사회여건을 조성함

- 청소년의 인권 관련 연구 및 지표 개발
- 청소년의 시민권 (불필요한) 규제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의 시민권 확대정책(장려제) 개발·시행
- 청소년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모의 법정」 운영

나.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 (1) 청소년이 활동주체가 되는 공간확충과 운영 활성화

○ 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요구와 희망을 수용하여 시설이 운영되는 질적 변화 추진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시설 건립에 역점을 두고 자연권시설은 민간분야의 건립을 유도하며, 차별화·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전문적·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운영

- 국립수련시설 건립·운영(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중앙공원 등)
-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청소년수련관 39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20개소, 야영장 10개소 등) 및 수련시설의 특성화·전문화 추진
  - 읍·면·동 사무소 등 유휴공간화되는 공공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전환 추진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 청소년 활동 장비·기구·프로그램 대여은행 운영
- 생활권 수련시설과 학교와 결연·연고제 운영

## (2) 특성화·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고 창의력을 신장하는 특성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되,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증진해 나가며, 수련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 '21세기 청소년상' 실현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 프로그램 개발에 청소년의 참여확대와 의사·욕구 반영
- 수련활동 안전공제회 설치·운영으로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
- 수련활동 활성화 연구와 외국의 청소년활동 사례집 제작·보급
- 수련활동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구축
- 수련활동 실태조사 및 기 개발된 수련프로그램 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우수 수련활동 지원
- 수련거리 현장 실습서 개발·보급
- 청소년 수련거리 창안 공모제와 수련활동 박람회 개최
- 소외청소년을 위한 수련프로그램 개발·시행

## (3) 청소년단체의 자율화·자기 특성화

청소년단체의 사업목적을 자율화·특성화하여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단체운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 청소년단체협의회 기능 활성화
- 청소년 1인1단체 가입활성화(교육부 협조)
- 청소년 단체 특성화 유도를 위한 차등 지원
-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 활동 강화
-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청소년활동 연계 추진
- 비회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설권장 및 운영지원

## (4) 전문화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배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자질있는 청소년지도사를 양성·배치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지도활동 추진

- 전문화된 청소년지도사 양성체제 구축(전문영역과 생활현장 지도)
- 청소년지도사 경력부제 실시
-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를 청소년지도사로 양성
- 청소년 지도사 직무교육 강화
- 청소년지도자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추진

## 다.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1)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감수성 함양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참여와 체험을 통해 문화감수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창의적인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생산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

- 청소년문화활동 실태 분석 및 지원시책 개발
- 문화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 문화활동 캠프 등 청소년 창작 문화활동 지원
- 청소년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기획(지도)자 활용
- 청소년의 거리문화(street-culture)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과 보급
- 청소년문화 실태 조사 및 대안문화 모형 개발

## (2) 지역간·국가간 청소년 교류의 내실화

청소년을 21세기 개방화·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감각을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지역·계층·세대간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감

- 청소년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국가대표활동 적극 수행
- 청소년 국제교류·해외체험 기회의 확대와 내실화
- 자율적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기반 조성(국제 정보교류, 지자체·민간단체간 교류, 국제청소년 기구와의 협력 등)
- 지역간, 학교간, 도·농간, 장애·일반 청소년간 교류확대

## (3) 남북 청소년 교류 기반조성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비를 해 나감

- < 여건조성시 추진대상 사업 예시 >
- 남북 청소년 문화축전 개최
  - 남북청소년 어울놀이 행사
  - 통일기원 청소년대행진
  - 남북한 청소년 학습여행단 상호방문
  - 남북한 청소년 공동 탐사사업

## (4) 청소년 정보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육성

청소년에게 정보의식을 함양하고 청소년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PC통신·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나감

- PC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관련 정보의 확대 제공
- 지역 청소년정보망 전담체계 구축
- 정보통신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추진(정보통신경연, 홈페이지 구축지원 등)

## 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 (1) 청소년 상담활동의 강화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 지원해주기 위해 일상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진로와 적성을 조기에 발견·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제 강구

- 전국적인 청소년상담 체제 구축
  - 현 청소년대화의 광장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개편
  -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확대, 또래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활동 활성화
  - PC통신·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 활성화(24시간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 네트워크 구축
- 자녀교육 카운셀러 제도 도입 및 운영
- 지역 사회 청소년문제 포럼 개최

## (2) 소외 및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학교 부적응 학생, 무직 청소년, 근로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농어촌 청소년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을 통하여 비행예방과 자립 지원

- 어려운 청소년 지원(공부방 운영, 비정규학교 지원·문예행사 개최 등)
- 농어촌 청소년 국내외 유학·선진명농연수 지원
- 청소년 신용은행 설립·운영(검토) 및 자립지원
-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행사 관람지원

## (3) 장애청소년의 자활지원

장애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기진단 및 치료, 조기교육 및 특수교육, 직업안정 및 보호작업장 확보, 편의시설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 지원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

- 장애인 바로 이해하기 운동 전개
- 장애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비인가 소규모 장애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
- 선진외국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 비교연구

#### (4) 청소년의 직업 및 자립능력 향상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을 함양·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직업상담·취업정보 제공과 청소년에 대한 조기 진로지도 및 현장교육의 기회를 확대

- 청소년 실업의 실태조사 및 지원체제 개발
- 청소년의 취업 및 직업능력 훈련 지원
- 청소년취향의 직업훈련 직종 개발
- 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 활동(인턴제도) 활성화

#### 마.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

##### (1)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도방법을 부모가 습득하게 함으로써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정의 교육기능을 회복·향상하여 나감

- 부모교육 실시(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부모 교실운영 등)
-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 방안 연구
-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문화운동 확산
  - 가족단위 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가족 공동활동 적극 개발 시행

## (2) 도덕성 회복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약화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도덕성 함양운동과 청소년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시민의식 함양 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

-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
- 도덕·시민의식에 대한 「청소년 모의청문회」 프로그램 개발·시행
- 「위인들의 청소년시절·부모세대 이야기」 책자 개발·보급

## (3) 문제청소년 선도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의 심화와 가정·지역사회의 청소년 지도기능 약화로 늘어나는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통한 예방차원의 선도대책을 강구

-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 전개 및 쉼터 운영 확대
-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관계부처 협의 추진)
-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청소년보호 홍보 프로그램 강화
- 또래·청소년의 선망대상자 등을 통한 선도활동 활성화

##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과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며 유익한 환경을 조성·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올바르게 조성함으로써 진취적이고 강인한 청소년으로 육성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구축 및 활동전개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예방 홍보
- 청소년선도와 건전 문화조성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개선 추진

#### IV. 추진체제의 정비

##### 1.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안정적인 제원 확보
  - 청소년육성기금의 신규 수입채원 개발, 기금사용의 효율성 증대, 지방 청소년육성기금확충 등 청소년육성기금의 효율성을 증대 추진

##### 2. 법령제도의 개선과 협의기능 강화

-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관련 법률 개정
- 청소년 헌장 개정 추진
- 청소년정책의 평가(청소년 참여)제도 마련 추진
- 교육부등 청소년업무담당 부처와의 협의 기능 강화
- 가정·학교·사회의 청소년육성 참여확산 체제 구축(홍보, 결연 등)

##### 3. 청소년관련 조직의 보강

- 청소년관련 조직의 기능 확충과 효율성 증진
- 지역별 청소년종합지원센터(ONE STOP SERVICE 기능)설립 운영(검토)



## &lt; 계획 시행후 청소년 관련 지표 변동 전망 &gt;

- 국립시설 완공·운영 : 한국청소년수련원('98), 한국청소년중앙공원(2001)
-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 114개소('98) .....→ 142개소(2002)
  - 청소년수련실 : 163개소('98) .....→ 청소년문화의 집(120개소)으로 전환
- 자연권 수련시설·유스호스텔 확충
  - 청소년수련마을(40개소), 수련의집(128개소), 야영장(133개소), 유스호스텔(53개소) .....→ 민간 투자유도로 확대 추진
- 청소년수련프로그램 : 93종('98) .....→ 123종(2002)
- 청소년단체가입 비율 : 18%('98) .....→ 55%(2002)
- 청소년지도사 : 3,112명('98) .....→ 6,000명(2002)
-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 15개소('98) .....→ 16개소('99)
-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 68개소('98) .....→ 160개소(2002)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15개소('98 초) .....→ 16개소('98 하)
- 농어촌 기숙사 : 2개소('98) .....→ 9개소(2000)
- 가출청소년 쉼터 : 2개소('98) .....→ 8개소('99).....→ 지속확대(2002)
- 청소년육성기금 : 1,165억원('98초).....→ 2,900억원(2002)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선 가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는 청소년 문화 정책은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 만큼의 발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자율권이나 시민권 문제가 논의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익과 복지가 강조되는 등 정책 자체는 서구적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측면을 보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청소년 문화와 관계된 정책들이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분리·시행됨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청소년 정책들이 가지게 될 총체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두 부처인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간의 청소년에 대한 상이한 관점으로 인해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은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졌듯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방향성을 지니게 되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 위에 다양한 정책들을 구성 및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많이 접하고 있는 교육의 장에서는 여전히 육성보다는 성적과 입시 위주의 정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었듯이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이 인문고와 실업고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곧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권 교육이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역할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료행정의 단점에 기인한 문제점으로서 탁상행정 또는 가시행정적 현상이 청소년 정책에 있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위에서 보여지듯이 제 1, 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의 외형적 모습은 매우 화려하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약 10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가 과연 이들 청소년 정책의 결과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지니게 된다. 혹자는 서울에서의 청소년 지역들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청소년 지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는 곧 청소년 육성정책이 지니고 있는 가시행정의 한 단면을 지적하는 부분으로서 청소년 지역은 청소년 정책들에 의해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용함으로 인해 구성된 청소년들의 행위적 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빈번한 자리 이동으로 인한 청소년 전문가의 부재 또한 정책 구성의 가시성과 관료적 특성을 촉진하고 있는 한 부분일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구성에 있어 중·장기적 안목이 개입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두 번째의 문제점과 연계되어져 있는데, 가시성과 일회성의 관계가 그것이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보다 가시적 효과에 더욱 많은 중요성이 부여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정책의 생명력은 단기적인 모습을 취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루어진 중·장기적 안목의 정책이 부재함으로써 각 정책간 연계성이 감소되어 결국 정책의 효율과 효과는 왜곡되어지게 된다.

네 번째는 청소년 문화시설들이 대부분 공공주도형이라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문화시설은 문화복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 마음껏 자신들의 끼와 역량을 발산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논의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이라는 문제점 이외에 이러한 시설들이 관 주도로 관리되고 있어 질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문화행정을 되돌아보면, 행정기관들은 문화시설에 대한 양적인 확대에만 주력했지 실질적인 운영실태나 문화복지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왜 청소년문화시설을 지어야 하는지, 그렇게 세워진 문화시설은 어떻게 이용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통계적 수치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화의 세기가 도래하여 문화창조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시대적 배경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시설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문화욕구와 수요를 받아들여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문화창조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문화행정은 언제나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이나 정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공간 확충에 주력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창조력, 특히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

은 어떤 일정수준의 성과를 얻기까지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수의 문화공간이 확충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공간들의 대부분이 별로 하는 일없이 죽어 있는 경우도 많다. 활동할 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죽어 있는 공간은 문화통계의 집계에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의 문화창조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하드웨어를 유지시키기 위한 예산의 사용만을 증대시키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예산은 축소시키는 폐해까지 초래하게 된다.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세기는 청소년들의 사고력, 창조력, 통찰력 등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감수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의 기반이 곧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문화적 감각을 새로이 학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창조적인 문화감수성 교육을 가능케 할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창조적인 문화감수성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의 초·중·고 정규교육이 끝난 후,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교재로 사용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시설과 공간은 있으나 프로그램의 부재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정보·문화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문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여관찰을 통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10대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듯 하면서도 그 표출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획일화된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유행을 쫓아가는 청소년들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독창적인 안목이 배제된 맹목적

인 수용은 문화창조력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는 높은 수준의 문화감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 부응하는 청소년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창조적인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반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2) 일반 문화정책과의 관계 및 문제점

연령지위로서의 청소년 계층은 사회 및 문화를 주도해 나갈 미래의 기성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감수성 함양 또는 문화 정책들은 기존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과 구분되어 구성되어지거나 시행되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즉, 청소년 문화정책들은 일반 문화정책들과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문화정책들과의 관계를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청소년 문화정책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포괄적 문화 의식과 이들을 연계시킬 총괄적 정부 업무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문화체육부가 신설된 후 오늘날의 문화관광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 예술, 관광, 사회체육 등 대중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정부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광의의 문화개념, 즉 발전의 개념 속에서 문화적 삶이라는 의미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문화발전정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적인 활동과 예술적인 활동으로 표현되는 창조성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사회관 및 세계관까지 문화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삶은 개개인의 인식, 행동형태, 가치 및 신념체계를 통해서 사회의 존재모습과 나아가고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문환, 1996:334).

그러므로 한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계획 및 전략은 문화개념의 적용과 무관하지 않다. 한 사회의 혹은 개개인의 문화적 및 자연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어떠한 발전계획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 사회·과학정책이 문화정책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호관계나 잠재적인 보완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개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이 경제발전, 사회변동, 과학발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이러한 발전이 자신의 주체의식이나 문화적 특성과 무관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문화발전정책의 침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와 과학을 저울의 양끝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화적 일체감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과학과 기술발전의 무한한 잠재성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게 되자면 과학과 기술혁신이 갖는 문화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훈련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화적 삶에의 참여·확대로 요약할 수 있는 문화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적 권리에 대한 훈련과 연습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명확하게 경계 지워져 있는 넓은 의미의 문화개념에 포함되는 활동들을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 경제와 문화, 정치와 문화, 과학과 문화 등과 같이 다양성의 총체가 곧 문화라고 하는 인식의 부족함으로 인해 정책간 단절성이 촉발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실패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 정부는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표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제도권 예술과 비제도권 예술 혹은 순수예술과 참여예술을 둘러싼 논쟁 등 국내의 문화·예술이 겪고 있는 갈등과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세계를 향해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알리고 자랑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중에 정부는 “문화창달”이라는 국정지표 실현의 일환으로 ‘예술의 전당’ 건립에 주력하여 소위 고급문화를 좀더 많은 국민에게 보급하려는 “문화의 민주화”(김문환, 1996:324)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적 수준은 그리 많은 발전을 이

루지 못했다. 정부가 취해온 문화적 대응방식이 대중으로부터의 폭넓은 공감을 확보하지 못했음은 물론,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지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규제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불신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정부는 문화창조에 주력함은 물론, 국민의 문화향수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논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문화의 민주화”라는 방식만을 채택하였을 뿐, “문화 민주주의”는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문화향수권의 존중이 결국 ‘문화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이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표현하는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여 문화 민주주의 실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정체성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란 그 국가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세계적인 안목에서 조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인위적인 장벽을 세워 배타적이 된 다거나 과거의 문화전통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으로 잘 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간 추진되어온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친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기초 위에서 타 문화권을 폭 넓게 수용함과 동시에 자국문화가 지닌 잠재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계문명의 잘못된 적용으로 문화적 정체성이 획일화될 위협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세계의 문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아울러 자국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신념 하에 변화의 요소와 지속의 욕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이란 자유화 및 개방화를 전제로 하지만 국적없는 문화, 개성없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혁명과 인터넷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뉴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문화예술의 소통과 생산방식이 달라졌다. 문화에 있어서도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가 혼합되면서 문화적 토양에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고유문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고유문화의 지속만을 고수하는 것도 다원문화주의라는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체성 혼란으로부터 출발하는 청소년 및 일반 문화 정책의 구성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문화 정체성 혼란 자체이며 한국사회의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 2. 외국의 청소년 문화정책 사례

본 절에서는 외국의 청소년 문화정책들 중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감수성 함양과 관계 있는 정책들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 1) 프랑스의 청소년 문화정책<sup>6)</sup>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근본 가치와의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정책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사회의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는 청소년 정책 또한 그와 같은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향가치와 정책의 기본 방향간 격차가 클수록 결국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은 급격히 저하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 사회는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 가치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언제나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조건으로 위치시켜야 한다.

6) 프랑스의 사례는 다음 내용으로부터 인용되었음.

“문화관광부, 제2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2000.(프랑스 사례 필자는 본 연구의 연구자와 동일 필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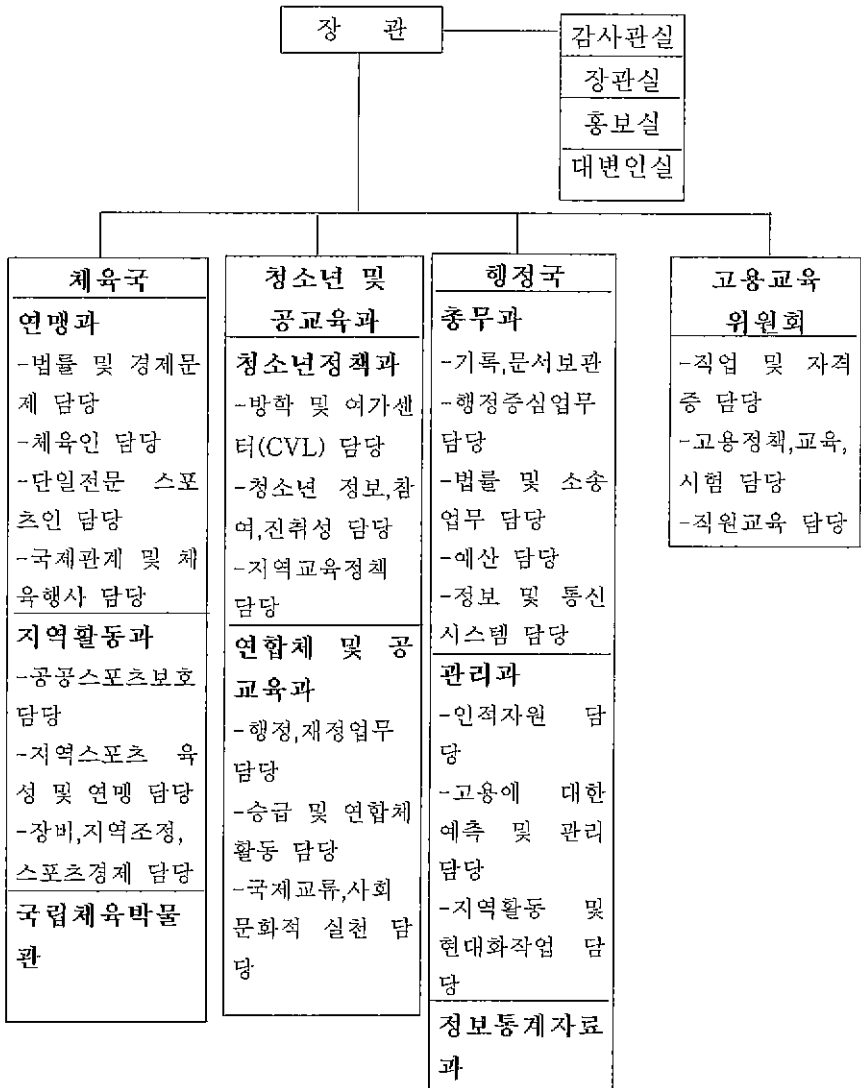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들의 장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사회에서 발견되어지는 사회의 현실적 기본가치와 청소년 정책간의 좁은 간격은 곧 한국 사회의 제반 정책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오늘날 청소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청소년 행정기구와 조직

프랑스 체육청소년부는 3국 4실 7과 1위원회 1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영역별로 구분한다면 크게 체육 전반 업무를 다루는 체육국과 청소년 업무를 다루는 청소년 및 공교육국의 두 가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육 분야와 청소년 분야의 밀접한 상관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관료적 구성의 프랑스식 합리성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조이다.

### 체육청소년부(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기구조직



[그림 IV-1] 프랑스 체육청소년부 기구조직표

## (2) 체육청소년부의 예산

2000년도 프랑스 체육청소년부 예산은 1999년 대비 3.5% 증가된 총 3십1억5천4백만 프랑이다. 이는 총예산 1조 4436억 5천 1백만 프랑의 약 0.22%에 해당하는 액수로 교육부 예산인 3609억 6천 1백만 프랑의 약 0.87%에 해당한다. 1999년 대비 2000년도 전체 예산과 체육청소년부 예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2000년도 프랑스 체육청소년부 예산  
(단위:백만프랑)

| 부처     | 1999        | 2000        | 가감비율 |
|--------|-------------|-------------|------|
| 체육청소년부 | 3047(0.21%) | 3154(0.22%) | 3.5% |
| 전체예산   | 1427035     | 1443651     | 1.2% |

자료: 프랑스 산업재정경제부

전체 예산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체육청소년부 예산은 한국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 및 기타 관련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비중은 이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체육청소년부 예산 중 차지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업부분의 내용을 보면 질적인 측면이나 사업간 관계의 측면은 매우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에 새롭게 증가된 특이한 사항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6.4% 증가, 청소년 교육 예산 13.8% 증가, 206개의 새로운 체육관계 고용 창출, 체육최고지도자 예산으로 올림픽을 대비하여 3천만 프랑 새롭게 투입, 체육건강과 약물 방지를 위한 예산 80%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예산 책정 부분을 살펴보면, 청소년 연합체 예산으로 총 5천 5백만 프랑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이

중에 2백만 프랑은 소규모 연합체활동을 위한 것이고 2천 6백만 프랑은 CVL(바캉스 및 여가센터)의 증설을 위한 예산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 청소년 정보망 확충에 2백 5십만 프랑, 청소년 가상공간(500 곳)의 확충에 2백 4십만 프랑 등 총 4백 9십만 프랑을 청소년 정보화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00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인 청소년 시민성 축제를 위한 예산으로 4백만 프랑을 책정해 놓고 있다.

그 외, 청소년의 여가 및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이루어진 2000-2006 계약에 따라 총 6억 6천 2백만 프랑이 구성되고 있다. 또한 체육축제 예산으로 8백만 프랑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소년 체육 쿠폰 예산으로서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그들이 희망하는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선정, 10프랑 가치의 쿠폰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약 2백만 프랑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과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다.

### (3) 청소년문화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 ① 청소년 상임위원회(CPJ: Le Conseil Permanent de la Jeunesse)<sup>7)</sup>

청소년 상임위원회는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의견들과 제안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공식화하는 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1998년 1월 7일 법령에 의해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정치정당, 노동조합, 연합체 등과 같은 범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조직의 구성원들, 지역 연합체 대표들, 그리고 다양한

7) <http://www.jeunesse-sports.gouv.fr>

한국청소년개발원, 외국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1999, pp.87-93.

경쟁 영역에서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 등과 같은 세 종류의 집단으로부터 선출된 16세에서 28세 사이의 청소년 3000명으로 구성되어진다.

1999년도 총 예산은 350만 프랑이며, 위원회는 임무의 유형에 따라 7 가지 소위원회로 세분되고, 또한 각 도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도별 위원회는 1997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이들 동안 마를리 르 루아(Marly-Le-Roi)에서 개최된 "프랑스 청소년들의 만남"을 계기로 형성되었으며, 각 도별 16세에서 28세 사이의 청소년 20 내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 청소년부 장관의 책임 하에 국가 서비스, 지방선거, 각종 연합체 책임자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위원회는 98년 한 해 동안 총 4 회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26세 미만 청소년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과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총 7개의 소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분과별 소위원회 활동으로는 시민 의식 증진 위원회, 접근용이성 증진 위원회, 고용 및 교육 개선 위원회, 폭력 및 사회정화 위원회, 청소년의 지위 및 사회정체성 향상 위원회, 건강 증진 위원회, 평등 강화 위원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시행된 현실적 정책 결과로는 청소년 주거문제에 있어 공적부조 수평자의 증가, 교통수표와 청소년카드의 시행을 통한 청소년 교통요금 할인, 스포츠 쿠폰, 티켓, 여행 보조 등과 같은 청소년 문화의 질 향상, 다양한 건강 홍보와, 상담 등을 통한 청소년 건강 증진, 청소년 법률상담, 장학금 지급, 청소년 고용 확대 등이 있다.

## ② 청소년정보화 기구(CIDJ, CRIJ, CIJ, BIJ, PIJ, Bus information jeunesse)<sup>8)</sup>

청소년들의 정보화를 위한 기구들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총 154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년정보센터(CIDJ) 1개소, 지방센터(CRIJ) 27개소, 연근해지방센터(CIJ) 4개소, 청소년정보사무실(BIJ) 243개소, 청소년정보실(PIJ) 1,239개소, 청소년정보버스(Bus information jeunesse) 30개소

8) <http://www.jeunesse-sports.gouv.f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들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예약 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때로는 건강, 법률 등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데피쥬느(DEFI jeunes)<sup>9)</sup>

체육 청소년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15세부터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구성한 일정의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해주고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1987년에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이후 90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되어졌으며, 고용 및 사회연대성 담당 부처(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우체국, 프랑스의 교육 및 평생교육 연맹(Ligue Francaise de l'Enseignement et de l'Education Permanente), 그리고 기타 이에 관심 있는 민간조직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체육 청소년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 15세에서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학생, 피고용인, 실업자, 인턴사원, 프랑스 거주, 외국 거주, ...)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일정의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는 경우 거주지역별 체육 청소년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 접수 후 적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제출된 프로젝트의 주체는 반드시 청소년 자신이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재정적 지원은 단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 특화된 전문가 연계망으로부터 청소년들은 그들의 계획에 대한 진단, 조언 등을 받을 수 있다.

- 프로젝트 구성 분야는 문화, 사회, 환경, 스포츠, 과학, 기술, 경제 등 제한이 없다. 그러나, 여행, 학업, 교육, 인턴, 스포츠 경기 참여 등과 같은 목적은 재정적 지원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9) 한국청소년개발원, op.cit., pp.248-249.

<http://www.defijeunes.fr>

- 서류 제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습득이 요구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청소년들에 의해 제출된 계획서는 지역 심사위원이 심사 후 선정될 경우 최저 1만 프랑에서 최고 5만 프랑의 상금을 받게 된다(18-28세에 해당되며, 15-17세는 최고 1만 프랑임). 또한 선정된 청소년들 중 다시 최고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만 프랑의 상금을 수여한다. 년 1000 여 개의 계획서들이 선정되는데, 민간 지원조직들은 이 금액의 30% 정도를 청소년들이 제시해야하는 보증금의 형식으로 책임지게 된다.

#### ④ 방학 및 여가 센터(CVL)<sup>10)</sup>

방학 및 여가 센터(CVL: L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는 청소년들이 정규 수업 이외에 교과 과정 또는 자격증 교육을 제외한 창조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정규요원 및 자원봉사 요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이들의 방학 및 방과 후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해 마련된 모든 종류의 일시적 혹은 지속적 기관들로 구성된다. 주요 대상은 4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며, 이들 기관에서는 최소 12명 이상의 수용인원이 5박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CVL 센터는 미래, 상속, 교육, 시설 등과 같은 4가지의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들 기관들은 학기 중에는 등교하지 않는 수요일에 개방되고, 다른 요일에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 개방된다. 방학 기간 중에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되며, 때에 따라 토요일에 개방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활동은 수용 대상의 연령에 따라 유아 방학 센터(Centres de vacances maternels: 4-7세), 방학 센터(Centres de vacances: 8-12세), 청소년 방학 센터(Centres de vacances d'adolescents: 13-17세), 스카우트 캠프(Camps de scoutism) 등으로 구분된다.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외국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1999, pp.185-187.

### ⑤ 청소년카드(Carte Jeunes)<sup>11)</sup>

2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카드는 프랑스 전체를 통틀어 15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지니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종류로 구분되어진다.

- 캠퍼스 청소년카드(Carte Jeunes Campus/MNEF)

- 직업소개 서비스
- 무료 법률 서비스                      - 지역 할인
- 캠퍼스 매점 사용: 자동차, 거주, 캠퍼스 생활 보험 가입

- 클럽 청소년카드(Carte Jeunes Le Club/SMEREP)

- UGC 영화관 사용시 28프랑으로 할인, 시사회, 공연표, CD 등제공
- 전화요금에 대한 경제 지원 서비스
- 무료 법률 서비스                      - 무료 학생보험
- 학생요금 보험: 주택, 자동차, 외국건강

- SMEBA 청소년카드(Carte Jeunes SMEBA)

- 자동차, 오토바이, 주거, 국제항공요금, 열차, 방학, 영화, 기타 물품 구입 등에 있어서의 우대 요금 적용
- 대인 책임 보험                      - 시험 보험
- 개인/사고 보험                      - 무료 법률 상담
- 소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이용시 우대

- SMENO 청소년카드(Carte Jeunes SMENO)

- 학교생활에 있어 다양한 우대 서비스 제공

- CRUSOE 청소년카드(Carte Jeunes CRUSOE)

- 포폴레르(Banque Populaire) 은행에서의 다양한 상담
- 은행구좌에 대한 24시간 문의 서비스
- 은행카드, 수표 등의 도난과 분실 보험

11) <http://www.cartejeunes.fr>



- 우체국 청소년카드(Carte Jeunes La Poste)
  - 우체국의 상품들에 대한 이용 첫 해 50% 할인
  - 구좌에 대한 24시간 문의 서비스
  - 재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상담
  - 30일 한도 내에서의 손쉬운 대출
- “R” 청소년카드(Carte Jeunes Imagine “R”:청소년 교통카드)
  - 주중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한 사용
  - 토, 일, 공휴일에는 범위 제한 없이 무한 사용
  - 프랑스 및 30개 유럽국가에서 교통이외의 용도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⑥ 사회문화적 실천

이 정책은 아동 및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 활동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 함양, 자율성 증진, 경쟁력 및 사회통합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활동은 일반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 영화

영화활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영화를 아동 및 청소년의 수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 고취
- 청소년들에게 영화에 대한 이론 및 기술, 작동 원리 등에 대한 지식 전달
- 청소년들의 비판정신과 국내 및 국제적 참여 정신의 발전을 통한 청소년들 자신의 책임의식 함양
- 청소년 영화인을 돕고 용기 부여

이를 위해 체육청소년부는 축제 지원, 연합체 지원, 전문가 상담, 여름 영화마을 개최, 영화등급 위원회, 칸느 영화제에서의 청소년 영화상 제공, Kieslowski 상 제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 독서

이 정책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독서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체육청소년부 장관 배 독서상”을 제정하고 있다.

- 연극

연극활동은 청소년들의 시민성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1999년도에는 이를 위해 각 지방별로 20개의 연극 실습이 연극 전문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 사회참여

이 정책은 공교육의 차원에서 구성된 것으로 청소년들이 그들이 소속된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청소년부가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적극 장려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 과학 및 기술활동

이 정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15년 전부터 공교육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져 왔다. 특히 1999년에는 우주에 대한 탐구가 특별 주제로 선정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 (4) 현행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 체육청소년부의 여러 정책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프랑스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의 몇 가지 중요한 기본 방향들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국가 이념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확고한 인식, 그리고 현실적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청소년정책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들의 방과후 및 방학 시간 동안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개발 및 발전

- ② 미성년자들을 위한 보호정책의 시행 및 개발
- ③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활성화
- ④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 제공
- ⑤ 공교육 및 청소년 연합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 ⑥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및 지도 정책의 시행
- ⑦ 공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실천능력의 발전 함양
- ⑧ 청소년과 공교육 분야에 있어 유럽연합체 및 국제적 관계의 발전 촉진
- ⑨ 고용 및 자격증과 관계된 정책 구성, 시행
- ⑩ 직업교육 정책 시행

#### (5) 프랑스 청소년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프랑스의 사회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로 집약될 수 있다. 문화적 단일 공동체로서의 강한 응집력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 사회는 사회의 역동적 에너지로 인본주의를 위치시키고 있기도 하며, 사회의 각 계층들 중 아동과 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전체적 배려를 뿌리깊게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프랑스 사회는 사회적 가치와 현실간의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국가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특징은 잘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발전시키며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그들의 역할과 삶의 방향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시행은 이러한 측면을 명확히 대변해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요구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질 수 있는 곳, 그들 또한 하나의 권리체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위를 주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별적 존재로서의 각각의 청소년들이 나름대로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정받고 꾸준히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곳, 바로 이러한 사회가 프랑스이며,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청소년정책의 특징이자

기본 방향인 것이다.

청소년 정책의 구성과 실행, 그리고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현실과 이상간의 커다란 간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는 홍익인간, 인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가치들이 기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들 이념의 발현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 정책들이 중장기적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구성 초기에는 좋은 의도이지만 이후 곧 형식적인 관료적 모순으로 변질되어가는 점, 결국 목적과 결과와의 불일치가 많은 정책들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당연히 되어가는 점 등이 모두 이와 같은 한국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일단의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보다 올바른 청소년정책의 구성과 시행을 위해 현실과 이상간의 갈등으로부터 도출되고 있는 정책의 비현실성 또는 비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적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성찰 없는 발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의식태도 및 다양한 삶의 모습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의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으로 인해 생존해 가는 일단의 기성세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의 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실태 파악은 필수적 전제조건일 것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긍정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정책의 구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

적합한 최선의 청소년 정책이 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의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초한 그 나라만의 정책일 뿐이다. 방향의 설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무비판적인 수용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프랑스의 경우 또한 이로부터 무관하지 않다. 다양한 정책들이 구성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이로부터 한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시사점은 따라서 한국은 한국사회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구성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일 것이다. 어떠한 모양의 정책을 구성하는 가 보다는 그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배경에 기초하여 나오게 되었는가에 보다 많은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 2) 독일의 청소년 문화운동

### (1) 청소년 연극운동의 배경

독일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좋은 연극을 제공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연극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소비성향이나 일탈적 성향을 억제하고 그들이 지닌 창조적 소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청소년연극을 국가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구 동독의 경우 청소년연극은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에 속했고, 이는 1950년에 베를린에 동독 청소년연극의 중심지로서 “우정의 극장”이 창설되는 계기로 더욱 분명해졌다. 그 후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년연극이 시작된 것은 1966년에 발족된 베를린의 “그립스” 극장을 기점으로 삼는다(김문환, 1999:373). 독일의 연방정부는 청소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청소년 극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청소년연극운동을 문화축매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들의 연극은 사실주의적이고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계몽적인, 즉 정치적이고 비판적이었다.

독일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는 성공이나 실용성을 위한 도구로써 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연극에서는 청소년들의 '아니다'라는 거부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가장 혹독한 군국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독일이 또다시 민족과 국가를 내세워 청소년들을 동원할 수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희망과 위협을 동시에 함축한 이러한 거부를 연극이 수렴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현명한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극들에서는 감수성, 민주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도덕적 규범, 유토피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이제 연극은 청소년들과 함께 놀고 싶어하는 동시에 놀 수 있고, 또 놀아야 한다는 새로운 연극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상게서, 1999 : 376).

## (2) 청소년연극의 확산

새로운 연극개념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청소년극장도 변화를 갖게 되었으며, 청소년연극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내적인 질적변화와 이념적이고 예술적인 기준들을 위한 중요한 공헌들이 1970년대 베를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연극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향상되는 가운데 1970년대 하반기에는 공공극장에서 상연된 청소년연극의 공연수가 3,300회이고 관객동원도 1백6십만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연극 분야는 그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질적으로 향상된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리하여 주립극장 및 시립극장에 대한 특별지원을 비롯하여 청소년연극을 위한 작가상 및 각종 특별행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주립극장들은 도시가 갖는 지역적인 기능에 입각해 볼 때, 더 많은 수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 몇몇 도시의 주립극장에 특별지원을 결정했는데, 이러한 지

원을 통해 주립극장들은 청소년연극에 더 비중을 두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청소년연극에만 전념하는 독자적인 앙상블을 창설, 또는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립극장에 대한 특별지원도 이루어졌는데,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산하의 여러 시들이 운영하는 시립극장에 정상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지원을 했으며, 이러한 시들이 독자적인 청소년전용극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특별지원도 이루어졌다.

독일의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는 청소년연극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주로써 청소년연극에 대한 특별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연극의 날’행사의 일환으로 청소년연극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청소년연극을 상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워크숍과 각급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 등의 부대행사도 겸비하여 청소년연극의 기능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의 장 마련을 통해 청소년연극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처럼 청소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연극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실제적인 성과와 발전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 (3) 독일 청소년 연극운동이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간략히 소개된 독일의 청소년 연극운동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전통과 여건을 가진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게 통용될 수 있는가 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의 배후에서 작용한 문제의식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극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민주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도덕적 규범 등을 고취하고자 했으며, 청소년들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연극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연극이 문화축매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점차 획일화되고 집단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양상을 지켜 볼 때, 청소년들

에게 창조적 문화 활동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경우가 하나의 모델로서 검토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독일이 추진해 온 청소년연극운동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하게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적 활동 혹은 문화생활에 자발적으로 접근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비롯하여 향후 추진 될 모든 정책들은 청소년들을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청소년 자신들을 객체로 동원하는 행사로 그친다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획득될 수 있는 창조적인 문화감수성 측면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연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장비를 비롯한 물적자원과 배우 및 지도자 등 인적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곧 예산지원이라는 문제와 직결되게 된다. 독일의 청소년연극이 문화축매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도 각종 예산지원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과 재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게되며, 이럴 경우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물적자원의 확보 측면에서는 현존의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와 함께 필요한 인적자원은 각종 문화단체나 시설 등의 자원 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학교의 국어담당 교사 혹은 연극에 관심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관련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각각의 설립이념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일정 수의 청소년 회원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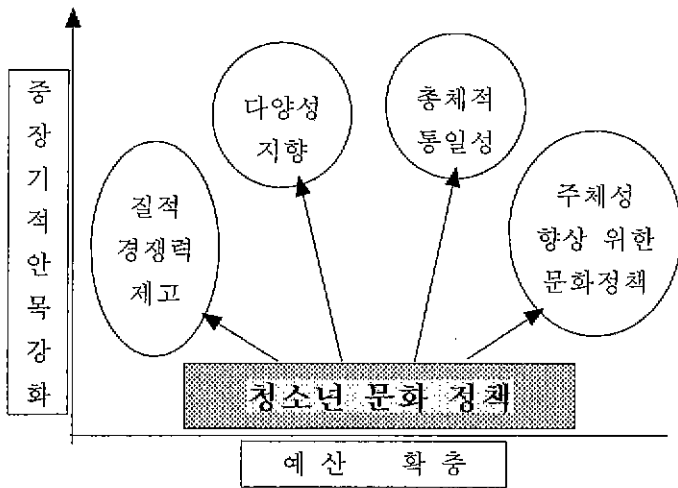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간의 유기적 연대 하에 청소년연극 혹은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활동들을 연합적으로 추진한다면 활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각 단체간에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과 단체간 상호 의견 교환 및 각종 활동에 관한 토론 등을 종합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처럼 청소년 관련 단체를 활용한다면, 시설과 공간 및 지도자 등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확보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3. 21세기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 정책

청소년 문화감수성에 대한 조사결과와 한국에서의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정책에 대한 고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21세기에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 즉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정책안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일련의 정책적 대안들을 구성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에 일정한 틀을 지워 온 다양한 차원에서의 제도적, 관습적 통제 방식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를 토대로 구성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책의 기본 방향

21세기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 구성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충, 사이버시대의 주체성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문화부문의 질적 경쟁력 제고, 다양성 중심의 정책 구성 및 시행, 정책 구성 및 시행에 있어서의 총체적 통일성 강화, 정책의 중·장기적 시각 강화 등과 같은 6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지닌다.



[그림 IV-2] 청소년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

#### (1)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충

정부는 올해 국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구현하고 문화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에서 사상처음 정부예산의 1%를 문화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곳곳에는 문화의 세기를 언급하면서도 아직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필요성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삶의 질을 논하면서도 아직도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확충에는 더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곧 미래의 가능성을 앞당기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사이버시대를 주도해 갈 청소년들의 잠재적 역량은 무한한 것이며, 그들이 지닌 문화창조력은 한 국가의 핵심역량으로 국가적 위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예산 1%확보의 의미를 살려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2) 사이버시대의 주체성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뉴 미디어시대의 도래와 함께 청소년세대는 사이버세계에 몰두하고 있다. 인터넷과 핸드폰은 이제 청소년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거리의 개념이 소멸되었으며, 국가간 지역간뿐 아니라 개인 단위로 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과 핸드폰의 기능과 성능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맹목적으로 사이버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그저 남들이 다 이용하고 있다는 획일화된 환경을 인식하여 아무런 비판없이 무조건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이버"라는 말의 의미는 개인 스스로가 자신이 꿈꿔왔지 않고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세계가 가진 모든 지적·문화적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또한 이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중환, 2000:12).

그러므로 사이버시대의 문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사이버세계에 빠져드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3) 문화부문의 질적 경쟁력 제고

문화시설 및 공간 혹은 문화산업 등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외형적 혹은 통계적으로 가치있는 양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 및 문화창조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문화정책은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은 청소년들에게 문화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데에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청소년

년들은 문화를 주체적·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아울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 (4) 다양성 중심의 정책 구성 및 시행

문화감수성의 요인 중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과 주체성 및 독립의식의 고취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정 및 이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닌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는 청소년 문화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강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이용시설에 있어서의 다양화, 청소년 문화의 다양화 등과 같이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각 개별 청소년들의 개성 및 주체성 발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문화감수성 전체가 결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의 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문화감수성 정도를 나타내 보이는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5) 정책 구성 및 시행에 있어서의 총체적 통일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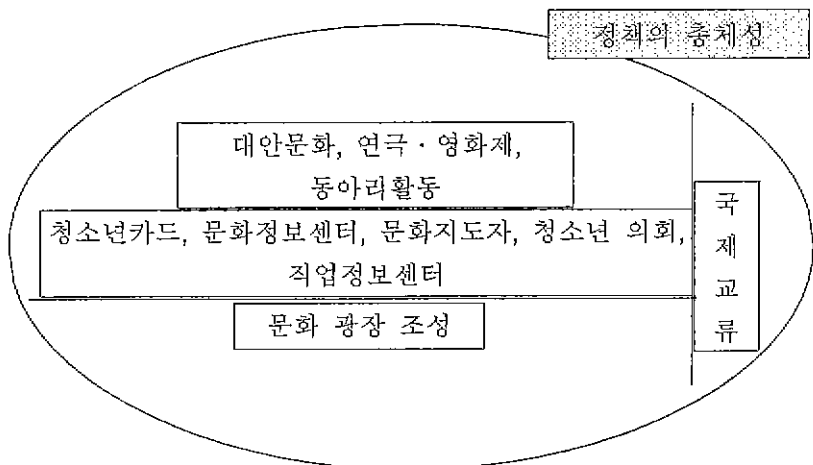
한국사회에서 구성·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정책들간 총체성 또는 통일성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의 문화감수성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호 보완적이고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그렇지 못한 실태이다. 따라서, 각 정책들은 가시적이고 탁상행정식이며, 기성세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곤한다. 마치 거미줄을 짜듯 모든 정책들이 유기적 연계성에 의해 구성되고 시행된다면 정책들간 시너지 효과에 의해 더욱 현실적인 효과의 산출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 (6) 정책의 중·장기적 시각 강화

정책들간 유기성과 연관되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정책의 중·장기적 시각의 확보이다. 언제나 되풀이되는 청소년 문제와 정책의 혼선은 그것이 탄생되어질 때 개입되어진 관점 또는 시각의 시간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중·장기적이어야 할 하나의 정책이 단기적 시각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경우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반면 단기적 특성의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 의해 구성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게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청소년 문화 정책 구성에 있어서는 특히 전자의 문제점이 강하게 뿌리내려져 있는데, 따라서 정책구성과 시행에 있어서의 중·장기적 안목의 부재는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구체적 정책 방안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11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들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IV-3] 구체적 정책 대안

### (1) 청소년 문화광장 조성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며 놀만한 공간이 없다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카페나 호프집 및 영화관과 각종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성인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청소년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를 즐길만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처럼 갈 곳이나 쉴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은 자연히 어른들이 출입하는 장소를 가웃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각종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본 연구의 질문지 조사나 참여관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음주, 흡연을 비롯하여 이성친구 사귀기, 나이트 클럽 출입 등 하위문화에 대한 경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외모나 차림새, 행동양식 및 언어표현 등 실제적인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라기 보다는 획일화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비행문화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독창적인 끼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즉석 공연을 펼친다거나, 연극 및 음악공연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 공연장, 영화관이나 각종 체육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청소년 문화광장이 시 단위의 구별로 하나씩 조성된다면 청소년들이 맘껏 자신들의 에너지와 창조적인 감성을 건실하게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청소년 대안문화 경연대회 개최

염색이나 피며를 비롯한 독특한 머리모양, 의상, 악세사리 등의 패션문화나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각종 음악 장르 및 다양한 춤 등은 청소년 하위문화의 일부 영역으로써, 대안문화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명 ‘메니아문화’라 지칭되기도 하는 대안문화는 청소년들이 어느 한 분야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몰입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 특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발휘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면 활성화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대안문화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학교나 시립 혹은 구립 문화의 집 등지에서 패션쇼, 춤 경연대회, 이색 콘서트 등의 형태로 대안문화적 성격을 띄는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면, 청소년들 개개인의 독특한 소질과 개성이 한껏 표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청소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문화감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이러한 경연대회는 독립적 태도와 창의성 증진, 타인의 문화표현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 및 집단주의의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와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부정적 성향을 띄었던 측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3) 청소년 연극 및 영화제 활성화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청소년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청소년 연극과 영화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연극과 영화는 관람을 통해서도 문화감수성이 고취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자신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통해서도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문화감수성이 한층 더 고양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연극이나 영화제는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감수성 훈련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청소년 연극이나 영화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무대나 세트 및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각종 장비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필요함은 물론, 시나리오와 무대장치 기술 및 각종 장비를 다루는 능력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간이나 시설 등의 물적 자원을 비롯하

여, 연극이나 영화가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는데 드는 인적자원, 즉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전문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 (4)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독립적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공부와 입시경쟁이라는 심리적 중압감속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가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문화감수성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어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라는 주체성이 결여된 관점이 아닌, 여가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어떠한 활동을 하며 보낼 것인가 라는 주체적인 측면이 문화감수성 훈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주체적인 사고와 결정에 입각한 여가활동의 선택은 TV, 컴퓨터, 인터넷 등 영상매체에 객체적 자아로서 맹목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이나 감각적 유행문화를 무조건 수용하고 쫓아가는 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발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여가시간의 주체적 활용, 더 나아가 건전한 여가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개인들이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의 선택에 있어 주체성을 인식해야 함이 필요함은 물론, 주체적인 여가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각종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욕구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도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 (5)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문화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청소년세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익숙해져 있다. 인터넷과 핸드폰은 청소년들의 필수품처럼 인식된 지 오래이며,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를 보유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 생산에 활용하는 능력이 기성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정보화 능력이 문화감수성 함양훈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영화, 연극, 음식, 운동, 각종 공연 안내 및 여행, 관광 등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문화정보망의 형태로 연결하여 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면 각종 청소년 문화활동이 활성화됨을 물론, 정보활용과 활동영역의 선택에 대한 주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문화 분야의 정보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은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혹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곳에서 청소년 문화정보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시범운업을 실시한다면 시간과 재정적인 측면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정보 서비스망 체제가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운영된다면, 청소년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보급될 것이며, 이는 곧 정보활용의 극대화와 아울러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청소년 문화지도자 양성

앞서 제시한 대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청소년의 각종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도할 수 있는 문화지도자 혹은 문화촉매자가 필요하다. 시설이나 장비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갖추어져 있으나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도자, 즉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청소년 문화지도자의 양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일정기간 훈련되어야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해서 시작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

로 현존하는 수준의 각 문화거점들에서 자원봉사요원을 선별하여 단기간의 워크샵 형태의 교육으로 출발한다면, 문화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쉽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문화원, 문화단체, 문화운동체, 문화동호인체의 회원을 비롯하여 교사 및 공무원 조직에서도 일부 희망자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7) 청소년 의회 구성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 공식적 장에서의 문화감수성 정도는 독립의식, 주체성 등의 순으로 긍정적 상태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그들의 문화감수성은 여전히 기성세대의 보호와 통제에 틀 지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업, 놀이, 인생설계 등 모든 부분이 기성세대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 독립의식이나 주체성 등의 강화가 어렵게 생각되어진다. 프랑스의 경우에서와 같이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독자적인 의회, 즉, 청소년 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의 관리와 감독이 배제되어진 즉, 청소년들이 구성하며 이끌어 나가고 정책적 제언도 하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청소년 기구의 탄생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참여, 시민의식 등의 고취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 안목에서의 한국 정치 발전이 예상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8) 청소년 직업정보센터 설립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발전을 제한하며 때로는 청소년들을 비행 및 일탈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 요인들 중 경제적 지위의 문제는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가출, 원조교제와 매매춘, 강·절도, 약물 중독 등 상당한 범주의 청소년 문제들이 그들의 경제문제

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이제는 한국사회도 청소년들의 고용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법적인 영역으로 그들의 고용을 승화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노동 착취의 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차원에서 권리를 찾아야 되는 사회적 권리자이다. 국가와 사회는 그들의 권리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서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의 고용 및 직업체험 기회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 직업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9) 청소년 방학센터 설립

청소년 복지에 있어 청소년 여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방학 중 여가활동은 방과후 여가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간과되어지기도 하는 부분으로 많은 수의 청소년 문제가 이 기간동안 발생하며, 또한 생활 습관이나 행위양식 등 문화감수성과 관련된 부분이 이 기간을 거치면서 부정화되어지는 측면을 볼 때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학기간동안 청소년들의 여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방학 중 여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빈곤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기 위해 국가주도의 청소년 방학센터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복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들에 짜여진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아닌 청소년들에 의해 많은 부분 운영되고 그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학센터의 설립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절대조건일 수 있다.

#### (10) 청소년 카드의 시행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카드의 장점은 청소년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부조와 국가를 책임질 미래인력으로서의 청소년 보호 및 청

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 접하게 하여 그들의 문화감수성이 궁극적으로 함양되도록 하는 점 등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번 고려되었지만 기반시설 및 통합전산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일탈의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 카드의 시행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조속히 구성하여 일단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1)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성화

올바른 차원에서의 문화의식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대론적 관점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기존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따라서 부정적 문화의식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측면은 앞선 조사결과에서도 보여졌듯이 청소년들의 문화의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타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문화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부분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는 긍정적 방향의 청소년 문화의식을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시켜주기 위해 청소년들의 문화간 교류에 대해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을 구성·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 편의주의나 가시적 결과만의 강조가 아닌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시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청소년 국제교류를 주도하게 하며 이들에게 적정의 인센티브(세금 감면 혜택 등)를 부여하는 정책이나, 정부지원 하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타문화 청소년들과 교류를 하거나 또는 남북교류에 참여하게 하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 V. 결 론



## V. 결 론

문화감수성은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역동적 주체성의 긍정적 발현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삶에 있어 주체성이 통제된 상태, 자아가 아닌 자아 외적 도구들에 의해 객체화되는 상태, 절대적 관점에 몰입되는 상태, 타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일상화되는 상태, 무엇인가로의 의존성이 강화되는 상태 등은 모두 저조하거나 또는 낮은 정도의 문화감수성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감수성의 주체는 “나”이며, 따라서 “나”의 순수 의지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들은 주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결국 주변의 문화적 산물들에 대한 수용력이 감소되는 현상, 즉 문화감수성의 부정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타자를 도구화하거나, 개인주의를 벗어나 이기주의에 몰입하는 경우, 또는 지나친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적 사고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 나아가 비행이나 일탈, 기타 비윤리적 행위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등은 그와 같은 부정적 문화감수성의 현실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은 어떠한 범주에 보다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청소년들 자신이 그러하기도 하며 또한 그들에 앞서 살아가고 있는 기성세대의 모습 또한 그러하다. 세대간 문화변동론의 관점에서 볼 때 기성세대의 문화적 성향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성향에 커다란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논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다”라고 하는 옛 고사성어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성세대의 편협한 문화감수성은 곧 오늘날 청소년들의 높지 않은 문화감수성 정도에 대한 절대적 원인이라고 하는 논의가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정도는 매

우 강한 정도로 집단화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측면에서의 태도와 비공식적인 측면에서의 태도가 불일치 되는 등 일련의 감수성 혼란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추론되었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를 평가한 항목들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기성세대의 이중성이나 기타 부정적 측면들이 청소년들에게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기만의 언어유형, 자기만의 행위유형, 자기만의 외형적 차림새 등과 같은 주체적인 모습보다는 스타들의 유행성, 거리의 유행성, 친구들의 유행성 등과 같은 객체성이 더욱 강력한 행위통제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적 모습은 기성세대의 집단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개념은 그 자체가 이미 집단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 정체성은 그 사회의 집단적 특성들로부터 기인하며, 결국 한 사회의 집단성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니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방향 또한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있어 그들이 소속된 한국사회의 기성세대 집단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이상에서 해석한 것과 같이 강한 집단성으로 특징지워지는 높지 않은 문화감수성이 외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과 학교, 기타 메스컴 등을 통해 학습받고 사회화 되어진 청소년들의 의식은 문화를 바라보는 규정화된 강한 틀의 형성으로 연계되어 결국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향하게 되고, 기성세대의 닫힌 사고를 답습하도록 무의식적인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다양하며, 그러한 문화를 바라보고 수용하는 인간의 능력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인류 문화와 한국 문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닌 체 발전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은 다양성과 무한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오늘은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존의 사고행위 틀로 고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강한 독립의식,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객체성은 기성세대에 의한 청소년 의식에 대



한 고정화 작업의 결과 중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긍정적 문화감수성 정도는 그들이 소속된 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그들의 낮은 문화감수성은 객체성으로 이어져 결국 문화 정체성의 상실 또는 혼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높은 정도의 문화감수성은 사회의 창조적 능력, 적응력, 유연성 등과 같은 역동적 에너지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 점을 인지하여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에 보다 깊은 관심을 던져야 하며, 그들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정책적 구성과 시행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화는 한국의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속에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맡겨질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그들 문화감수성의 긍정적 발현은 더 이상 소외되어져선 안될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그에 대한 정책적 제언, 이제 남겨진 것은 체계적 시행뿐이다.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시간, 재정 등의 문제에 기인한-로 인하여 조사와 조사간, 조사와 정책분석간 또는 정책적 대안의 제시 부분간 다소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하나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실천의 문제와 관계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관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청소년의 문화감수성 개념에 학문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의 실태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 점, 그리고 미약하나마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일련의 정책적 대안들을 문화론적 차원에서 제시한 점 등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정책구성, 실천들에 있어 중요한 기초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수택(1998).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서울:민음사
- 관계부(1987). 감수성 훈련의 원리와 실제. 장혁표, 강호기 역.  
서울:형설출판사
- 김문환(1996).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 서울:나남
- 김문환(1999). 문화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창남(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서울:한울
-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한울
- 래쉬, 프리드먼 편(1997). 현대성과 정체성. 윤호병, 안정석, 차원현.  
임옥희 역. 서울:현대미학사
- 반 퍼슨(1994).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강영안 역. 서울:서광사
- 안귀덕, 황정규, 김광웅, 김경성(1999). 한국청소년문화: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1997). 한국청소년문화:심리사회적 형성  
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유동수(2000). 감수성 훈련. 서울:학지사
- 이민희, 맹영임(1999). 청소년 대중문화 수용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수 외(1997). 새행정학. 서울:대영출판사
- 이종인(1997). 문화정책 강의노트. 미발간
- 이중한(2000).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in 문화재정과 문화정책,  
세미나 자료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정홍익(1992). 문화행정연구: 개념과 틀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 정희옥, 김경준(1999). 외국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명환, 김경동, 강현두(1993). 청소년문화지표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조은(2000). 청소년 언더문화 현장연구: 문화 소비자(prosumer)로서 청소년. 간행물윤리위원회
- 최원기(2000). 한국청소년의 유행문화에 대한 고찰: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 콜로키움 발표문
-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사계절
- 한국청소년학회(1998). 청소년 문화의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한국청소년학회 심포지움 발표문
- 함병수, 이종원, 길은배 외(2000). 제2차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문화관광부
- 호프스테드(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나은영 역. 서울:학지사
- Ameline, N.(1994). *Education, formation, jeunesse: Une priorité pour l'Europe*. Paris:Assemblée nationale
- Baudrillard, J.(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Paris:Editions Denoel
- Bouygard, F. et. al.(1997). *La loi quinquennale relative au travail, à l'emploi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Paris:La Documentation Française
- De Certeau, M.(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Univ. of California Press
- Gouteyron, A., Bernadaux, J., Camoin, J.-P.(1996). *S'orienter pour mieux réussir*. Paris:Sénat
- Grossberg, L.(1992).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 New York & London:Routledge
- Hall, S.(1980). *Encoding/decoding*. Hall et.al. (eds)
- Maffesoli, M.(1997). *Du nomadisme: vagabondages initiatiques*. Paris:Le Livre De Poche

- Moreau, R., et. al.(1996). *Les jeunes et l'emploi:recherches pluridisciplinaires*. Ministère du travail et des affaires sociales. Paris:La Documentation Française
- Morley, D.(1980). *The 'Nationwide' Audience*. London:BFI
- Rose, J., et.al.(1987). *La transition professionnelle:les jeunes de 16 à 18 ans*. Paris:L'Harmattan
- <http://www.jeunesse-sports.gouv.fr>
- <http://www.defijeunes.fr>
- <http://www.cartejeunes.fr>
- <http://www.travail.gouv.fr>
- <http://www.mct.go.kr>



## 부 록

1. 질문조사지
2. 문화감수성 관련 문항 대  
학교급간 교차분석표
3. 참여관찰 기록표





## &lt;부록 1&gt; 질문조사지

|  |  |  |  |  |
|--|--|--|--|--|
|  |  |  |  |  |
|--|--|--|--|--|

## 청소년 문화감수성 실태 조사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 전반에 대해 지니고 있는 여러분(청소년)들의 의식과 문화감수성의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감수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 11.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육성정책연구실 연구담당자 (☎ 2188-8823 / 2188-8836)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보기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_\_\_1)남자                      \_\_\_2)여자
2. 연령      \_\_\_1)만 13세 \_\_\_2)만 14세 \_\_\_3)만 15세    \_\_\_4)만 16세  
              \_\_\_5)만 17세 \_\_\_6)만 18세
3. 당신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_\_\_1)상                      \_\_\_2)중                      \_\_\_3)하
4.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_\_\_1)친부모 \_\_\_2)양아버지 혹은 양어머니    \_\_\_3)한쪽이 계부 혹은 계모  
   \_\_\_4)편부 또는 편모 \_\_\_5)친척 \_\_\_6)혼자    \_\_\_7)기타 (\_\_\_\_\_)

\* 다음은 문화 전반에 관한 여러분의 태도와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저<br>그렇다 | 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 5. 과거 원시사회에는 문화가 없었다.                 | 1         | 2   | 3         | 4   | 5         |
| 6. 문화에는 고급스러운 것과 저급스러운 것이 있다.         | 1         | 2   | 3         | 4   | 5         |
| 7. 오늘날 한국사회는 과거의 훌륭한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8. 한국문화는 세계 최고이다.                     | 1         | 2   | 3         | 4   | 5         |
| 9. 나는 한국문화를 잘 안다.                     | 1         | 2   | 3         | 4   | 5         |
| 10. 나는 한국문화를 사랑한다.                    | 1         | 2   | 3         | 4   | 5         |
| 11. 나는 한국문화를 잘 계승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12. 우리나라 문화는 외국의 문화보다 수준이 더 낮다.       | 1         | 2   | 3         | 4   | 5         |
| 13. 앞으로는 서구중심이 아닌 우리 고유의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 1         | 2   | 3         | 4   | 5         |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저<br>그렇다 | 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 14. 나는 서구의 문화가 한국문화보다 더 좋다.                                     | 1         | 2   | 3         | 4   | 5         |
| 15. 나는 서구의 문화를 잘 안다.                                            | 1         | 2   | 3         | 4   | 5         |
| 16. 서구사회는 한국사회보다 성도덕이 더<br>문란한 사회이다.                            | 1         | 2   | 3         | 4   | 5         |
| 17. 한국문화는 한국인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                                      | 1         | 2   | 3         | 4   | 5         |
| 18. 한국문화는 세계화하기 위해 외국의<br>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19.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 1         | 2   | 3         | 4   | 5         |
| 20. 문화가 발전한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의<br>문화를 발전시켜주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21. 한국은 5천년 역사를 지닌 문화국가이다.                                      | 1         | 2   | 3         | 4   | 5         |
| 22.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                                               | 1         | 2   | 3         | 4   | 5         |
| 23. 나는 유행에 쫓아가기보단 유행을<br>스스로 만들어가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24. 나는 컴퓨터, 핸드폰, TV 등이 없는<br>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 1         | 2   | 3         | 4   | 5         |
| 25. 나의 옷들은 일반적으로 유행과는<br>거리가 있다.                                | 1         | 2   | 3         | 4   | 5         |
| 26. 나는 유행이 지난 옷이나 악세사리(목걸이,<br>머리핀, 신발, 시계, 반지 등)는 사용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7. 나는 식사할 때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br>먹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28. 내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유행의 옷차림이다.                                    | 1         | 2   | 3         | 4   | 5         |
| 29. 나는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 1         | 2   | 3         | 4   | 5         |
| 30. 나는 요즘 유행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br>잘 알고있다.                            | 1         | 2   | 3         | 4   | 5         |
| 31. 나는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br>결정할 때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의<br>의견에 따라야 한다. | 1         | 2   | 3         | 4   | 5         |
| 32. 나는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부모님께서<br>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33.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와 결혼<br>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 매우<br>그렇다 | 그렇<br>다 | 그저<br>그렇다 | 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 34. 나는 나의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35. 대학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당연히 대주셔야 한다.                  | 1         | 2       | 3         | 4   | 5         |
| 36.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에게 얽매여 나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 1         | 2       | 3         | 4   | 5         |
| 37. 결혼비용은 부모님께서 당연히 책임지셔야 한다.                   | 1         | 2       | 3         | 4   | 5         |
| 38. 부모님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 1         | 2       | 3         | 4   | 5         |
| 39. 나는 나의 삶보다 우리 가족의 삶이 더 중요하다.                 | 1         | 2       | 3         | 4   | 5         |
| 40.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41. 나는 나의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                  | 1         | 2       | 3         | 4   | 5         |
| 42. 청소년 문화는 문제가 많다.                             | 1         | 2       | 3         | 4   | 5         |
| 43. 청소년들은 자신밖에 모른다.                             | 1         | 2       | 3         | 4   | 5         |
| 44. 청소년들은 집단적이다.                                | 1         | 2       | 3         | 4   | 5         |
| 45.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적이다.                              | 1         | 2       | 3         | 4   | 5         |
| 46. 청소년들은 언제나 유행만 좇아한다.                         | 1         | 2       | 3         | 4   | 5         |
| 47.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 1         | 2       | 3         | 4   | 5         |
| 48. 청소년들은 독립적이지 못하다.                            | 1         | 2       | 3         | 4   | 5         |
| 49.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 1         | 2       | 3         | 4   | 5         |
| 50. 청소년들은 창의적이다.                                | 1         | 2       | 3         | 4   | 5         |
| 51.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 1         | 2       | 3         | 4   | 5         |
| 52. 청소년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 1         | 2       | 3         | 4   | 5         |
| 53. 기성세대 문화는 문제가 많다.                            | 1         | 2       | 3         | 4   | 5         |
| 54. 기성세대들은 자신밖에 모른다.                            | 1         | 2       | 3         | 4   | 5         |
| 55. 기성세대들은 집단적이다.                               | 1         | 2       | 3         | 4   | 5         |

|                                | 매우<br>그렇다 | 그렇<br>다 | 그저<br>그렇다 | 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 56. 기성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이다.            | 1         | 2       | 3         | 4   | 5         |
| 57. 기성세대들은 언제나 고리타분하다.         | 1         | 2       | 3         | 4   | 5         |
| 58. 기성세대들은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 1         | 2       | 3         | 4   | 5         |
| 59. 기성세대들은 권위적이다.              | 1         | 2       | 3         | 4   | 5         |
| 60. 기성세대들은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 1         | 2       | 3         | 4   | 5         |
| 61. 기성세대들은 창의적이다.              | 1         | 2       | 3         | 4   | 5         |
| 62.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 1         | 2       | 3         | 4   | 5         |
| 63. 기성세대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 1         | 2       | 3         | 4   | 5         |

\* 다음은 여러분의 대중매체 접촉실태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64.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것과, 귀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중매체를 한 가지만 V표 하여 주시고, 소유하고 있거나 가입하고 있는 대중매체를 있는대로 보유상태에 따라 V표 하여 주십시오.

|                | 가장 많이 접촉<br>하고 있는 것 | 가장 큰 영향을<br>주고 있는 것 | 소유하고<br>있는 것 |
|----------------|---------------------|---------------------|--------------|
| 1) 텔레비전        |                     |                     |              |
| 2) 라디오         |                     |                     |              |
| 3) 오디오(CD,테이프) |                     |                     |              |
| 4) 비디오         |                     |                     |              |
| 5) 신문          |                     |                     |              |
| 6) 컴퓨터         |                     |                     |              |
| 7) 컴퓨터 CD-ROM  |                     |                     |              |
| 8) 인터넷         |                     |                     |              |
| 9) 케이블TV       |                     |                     |              |
| 10) 위성방송       |                     |                     |              |
| 11) PC통신       |                     |                     |              |
| 12) MP3플레이어    |                     |                     |              |
| 13) 잡지         |                     |                     |              |
| 14) 삐삐         |                     |                     |              |
| 15) PCS폰 · 핸드폰 |                     |                     |              |

65. 하루 평균 TV를 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_\_\_ 1) 1시간 미만 \_\_\_ 2) 1-2시간 \_\_\_ 3) 3-4시간  
\_\_\_ 4) 5-6 시간 \_\_\_ 5) 6시간 이상

66. 주로 보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                     |                       |
|---------------------|-----------------------|
| ___ 1)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 | ___ 2) 드라마·영화         |
| ___ 3) 오락 및 연예 프로그램 | ___ 4) 스포츠            |
| ___ 5) 만화           | ___ 6)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 ___ 7) 학습관련 프로그램    | ___ 8) 기타( )          |

67. TV 프로그램 중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___ 1)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 | ___ 2) 드라마·영화         |
| ___ 3) 오락 및 연예 프로그램 | ___ 4) 스포츠            |
| ___ 5) 만화           | ___ 6)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 ___ 7) 학습관련 프로그램    | ___ 8) 기타( )          |

68. 하루 평균 라디오를 듣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_\_\_ 1) 1시간 미만 \_\_\_ 2) 1-2시간 \_\_\_ 3) 3-4시간  
\_\_\_ 4) 5-6 시간 \_\_\_ 5) 6시간 이상

69. 주로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                     |                |
|---------------------|----------------|
| ___ 1)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 | ___ 2) 라디오연속극  |
| ___ 3) 오락 및 연예 프로그램 | ___ 4) 스포츠     |
| ___ 5) 가요 프로그램      | ___ 6) 팝송 프로그램 |
| ___ 7) 교양 프로그램      | ___ 8) 기타( )   |

70. 하루 평균 신문을 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_\_\_ 1) 30분 미만 \_\_\_ 2) 30분-1시간 \_\_\_ 3) 2-3시간  
\_\_\_ 4) 4-5 시간 \_\_\_ 5) 5시간 이상

71.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신문기사는 무엇입니까?

- |                   |                    |
|-------------------|--------------------|
| ___ 1) 정치관련 기사    | ___ 2) 경제관련 기사     |
| ___ 3) 사회관련 기사    | ___ 4) 문화관련 기사     |
| ___ 5) 해외관련 기사    | ___ 6) 스포츠·레저관련 기사 |
| ___ 7) 과학·생활관련 기사 | ___ 8) 교육관련기사      |
| ___ 9) 기타( )      |                    |

72. 당신은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73 번으로 가시오)

72-1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자주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_\_\_1) 집                      \_\_\_2) 친구집                      \_\_\_3) 학교  
\_\_\_4) PC방                      \_\_\_5) 시설 및 공공기관                      \_\_\_6) 컴퓨터학원

72-2.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컴퓨터를 이용합니까?

\_\_\_1) 1시간 미만                      \_\_\_2) 1-3시간                      \_\_\_3) 4-6시간  
\_\_\_4) 7-9시간                      \_\_\_5) 10-19시간                      \_\_\_6) 20시간 이상

72-3. 당신은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1) 문서작성                      \_\_\_2) 게임·오락                      \_\_\_3) 채팅  
\_\_\_4) 정보수집·검색                      \_\_\_5) 전자우편                      \_\_\_6) 전자상거래

73. 당신은 현재 핸드폰(PCS)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74 번으로 가시오)

73-1.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합니까?

\_\_\_1) 1시간 미만                      \_\_\_2) 1-3시간                      \_\_\_3) 4-6시간  
\_\_\_4) 7-9시간                      \_\_\_5) 10시간 이상

73-2. 당신은 핸드폰(PCS)을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1) 정보검색                      \_\_\_2) MP3                      \_\_\_3) 동성 친구와의 통화  
\_\_\_4) 이성 친구와의 통화                      \_\_\_5) 부모님과의 통화                      \_\_\_6) 기타(                      )

75. 만화는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습니까? (                      )권

76. 주로 읽는 만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_\_\_ 1) 순정만화                      \_\_\_ 2) 교양만화                      \_\_\_ 3) 스포츠만화  
\_\_\_ 4) 폭력만화                      \_\_\_ 5) 종합만화 잡지                      \_\_\_ 6) 기타(                      )

77. 비디오테이프는 한 달에 몇 편 정도 봅니다? (                      )편

78. 영화는 한 달에 몇 편 정도 봅니다? (                      )편

79. 주로 보는 영화는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합니까?

- |             |              |
|-------------|--------------|
| ___ 1) 배우   | ___ 2) 감독    |
| ___ 3) 주제   | ___ 4) 영상처리  |
| ___ 5) 작품성  | ___ 6) 영화평   |
| ___ 7) 수상작품 | ___ 8) 기타( ) |

80. 주로 보는 영화나 비디오테이프는 어떤 내용입니까?

- |                  |                 |
|------------------|-----------------|
| ___ 1) 애정(벨로 등)  | ___ 2) 공상과학(SF) |
| ___ 3) 만화(애니메이션) | ___ 4) 액션·스포츠   |
| ___ 5) 공포·미스터리   | ___ 6) 코메디      |
| ___ 7) 문화예술      | ___ 8) 기타( )    |

81. 잡지는 한 달에 몇 권 정도 봅니까(만화잡지 제외)?( )권

82. 잡지에서 즐겨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                  |              |
|------------------|--------------|
| ___ 1) 광고        | ___ 2) 연예기사  |
| ___ 3) 만화        | ___ 4) 패션    |
| ___ 5) 생활정보      | ___ 6) 인테리어  |
| ___ 7) 다이어트 관련기사 | ___ 8) 기타( ) |

83. 가장 좋아하는 대중음악의 장르는 무엇입니까?

- |              |              |
|--------------|--------------|
| ___ 1) 록     | ___ 2) 랩     |
| ___ 3) 발라드   | ___ 4) 댄스뮤직  |
| ___ 5) 트로트   | ___ 6) 재즈    |
| ___ 7) 테크노   | ___ 8) 언플러그드 |
| ___ 9) 기타( ) |              |

84. 대중음악은 주로 무엇을 통해 감상하십니까?

- |              |               |
|--------------|---------------|
| ___ 1) CD    | ___ 2) 카세트테이프 |
| ___ 3) 뮤직비디오 | ___ 4) 콘서트    |
| ___ 5) MTV   | ___ 6) 라디오    |
| ___ 7) 텔레비전  | ___ 8) 인터넷    |
| ___ 9) MP3   | ___ 10) 기타( ) |



85. 외국의 문화 중 가장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영화     | <input type="checkbox"/> 2) 음악 |
| <input type="checkbox"/> 3) 만화     | <input type="checkbox"/> 4) 잡지 |
| <input type="checkbox"/> 5) 전자오락   | <input type="checkbox"/> 6) 패션 |
| <input type="checkbox"/> 7) 비디오테이프 | <input type="checkbox"/> 8) 음식 |

86. 외국의 문화 중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1) 영화     | <input type="checkbox"/> 2) 음악   | <input type="checkbox"/> 3) 만화 |
| <input type="checkbox"/> 4) 잡지     | <input type="checkbox"/> 5) 전자오락 | <input type="checkbox"/> 6) 패션 |
| <input type="checkbox"/> 7) 비디오테이프 | <input type="checkbox"/> 8) 음식   |                                |

87. 외국문화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1) 신문  | <input type="checkbox"/> 2) 잡지    | <input type="checkbox"/> 3) 텔레비전 |
| <input type="checkbox"/> 4) 라디오 | <input type="checkbox"/> 5) 친구    | <input type="checkbox"/> 6) PC통신 |
| <input type="checkbox"/> 7) 인터넷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                                  |

88. 어느 나라의 대중문화상품을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1) 미국 | <input type="checkbox"/> 2) 일본    | <input type="checkbox"/> 3) 홍콩·대만 |
| <input type="checkbox"/> 4) 유럽 | <input type="checkbox"/> 5) 기타( ) |                                   |

89. 외국의 문화상품 중 가장 많이 구입 또는 소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1) 잡지    | <input type="checkbox"/> 2) 비디오     | <input type="checkbox"/> 3) 음악CD   |
| <input type="checkbox"/> 4) 캐릭터상품 | <input type="checkbox"/> 5) 의류·악세사리 | <input type="checkbox"/> 6) 음반·테이프 |
| <input type="checkbox"/> 7) 게임CD  | <input type="checkbox"/> 8) 음식      |                                    |

90. 다음 중 여가시간에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1) 영화관  | <input type="checkbox"/> 2) 콘서트장  | <input type="checkbox"/> 3) 소극장 |
| <input type="checkbox"/> 4) 노래방  | <input type="checkbox"/> 5) 전자오락실 | <input type="checkbox"/> 6) PC방 |
| <input type="checkbox"/> 7) 비디오방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                                 |

91. 당신은 현재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92번으로 가세요) |
|-------------------------------|---------------------------------------------|

91-1.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활동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문화예술관련활동 | <input type="checkbox"/> 2) 사회봉사관련활동 |
| <input type="checkbox"/> 3) 스포츠관련활동  | <input type="checkbox"/> 4) 팬클럽      |
| <input type="checkbox"/> 5) 기타( )    |                                      |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V 표시하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저<br>그렇다 | 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 92. 나는 술을 마실 줄 안다.    | 1         | 2   | 3         | 4   | 5         |
| 93. 나는 담배를 피운다.       | 1         | 2   | 3         | 4   | 5         |
| 94. 나는 나이트에 가 본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 95. 나는 이성친구를 사귄다.     | 1         | 2   | 3         | 4   | 5         |
| 96. 나는 머리에 염색을 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97. 나는 귀를 뚫었다.        | 1         | 2   | 3         | 4   | 5         |

98. 다음은 여러분의 심리, 적성, 태도, 대인관계 등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보기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저<br>그렇다 | 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 1) 나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 5         | 4   | 3         | 2   | 1         |
| 2)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br>현실할 수 있는 목표나 사명을 가지고 있다.            | 5         | 4   | 3         | 2   | 1         |
| 3) 나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다.                                      | 5         | 4   | 3         | 2   | 1         |
| 4)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다.                                          | 5         | 4   | 3         | 2   | 1         |
| 5) 나는 나를 좋아한다.                                                   | 5         | 4   | 3         | 2   | 1         |
| 6) 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br>아들이며 사랑하고 내 자신을 헐뜯거나 비<br>난하지 않는다. | 5         | 4   | 3         | 2   | 1         |
| 7) 나는 나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br>에 대해서 솔직하다.                          | 5         | 4   | 3         | 2   | 1         |
| 8) 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 “하면 된다”<br>라고 생각한다.                             | 5         | 4   | 3         | 2   | 1         |
| 9) 나는 내 충실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br>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 5         | 4   | 3         | 2   | 1         |
| 10) 나는 남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 5         | 4   | 3         | 2   | 1         |
| 11) 남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부족한 점이<br>전혀 없다.                               | 5         | 4   | 3         | 2   | 1         |
| 12) 나는 누구에게도 할 말은 다하는 편이다.                                       | 5         | 4   | 3         | 2   | 1         |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저<br>그렇다 | 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 13)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 5         | 4   | 3         | 2   | 1         |
| 14)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 5         | 4   | 3         | 2   | 1         |
| 15)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과는 잘 어울릴 수 없다.              | 5         | 4   | 3         | 2   | 1         |
| 16) 나는 남의 단점을 잘 꼬집는 편이다.                   | 5         | 4   | 3         | 2   | 1         |
| 17) 귀찮은 일에는 가능한한 관여하고 싶지 않다.               | 5         | 4   | 3         | 2   | 1         |
| 18) 상대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 5         | 4   | 3         | 2   | 1         |
| 19)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 5         | 4   | 3         | 2   | 1         |
| 20)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 5         | 4   | 3         | 2   | 1         |
| 2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 5         | 4   | 3         | 2   | 1         |
| 22) 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            | 5         | 4   | 3         | 2   | 1         |
| 23)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                      | 5         | 4   | 3         | 2   | 1         |
| 24)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논의해서 결정한다.        | 5         | 4   | 3         | 2   | 1         |
| 25)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각종 집단이나 씨름활동에 참가한다.        | 5         | 4   | 3         | 2   | 1         |
| 26) 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 5         | 4   | 3         | 2   | 1         |
| 27) 나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 5         | 4   | 3         | 2   | 1         |
| 28) 나는 나의 주위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 5         | 4   | 3         | 2   | 1         |
| 29) 나는 고립된 의욕자가 안 되도록 노력한다.                | 5         | 4   | 3         | 2   | 1         |
| 30) 나는 타인에게 쉽게 이끌린다.                       | 5         | 4   | 3         | 2   | 1         |
| 31)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주려고 한다.          | 5         | 4   | 3         | 2   | 1         |
| 32) 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일을 할 때는 지배적 인물이 되고자 노력한다. | 5         | 4   | 3         | 2   | 1         |
| 33) 나는 다른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애써 무슨 일을 떠맡고 싶다.     | 5         | 4   | 3         | 2   | 1         |

## &lt;부록 2&gt; 문화감수성 관련 문항 대 학교급간 교차분석표

\*유의미한 관계만 제시하며, 응답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매우그렇다, 2-그렇다, 3-그저그렇다, 4-아니다, 5-전혀아니다

학교급\*문5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 8     | 5     | 18    | 8     | 39     |
|     | %  |      | 1.1%  | .7%   | 2.4%  | 1.1%  | 5.2%   |
| 대안B | 빈도 | 3    | 1     | 8     | 25    | 11    | 48     |
|     | %  | .4%  | .1%   | 1.1%  | 3.3%  | 1.5%  | 6.4%   |
| 대안C | 빈도 | 1    | 4     | 2     | 19    | 16    | 42     |
|     | %  | .1%  | .5%   | .3%   | 2.5%  | 2.1%  | 5.6%   |
| 인문고 | 빈도 | 9    | 37    | 34    | 164   | 75    | 319    |
|     | %  | 1.2% | 4.9%  | 4.5%  | 21.8% | 10.0% | 42.4%  |
| 실업고 | 빈도 | 8    | 20    | 30    | 70    | 31    | 159    |
|     | %  | 1.1% | 2.7%  | 4.0%  | 9.3%  | 4.1%  | 21.1%  |
| 과학고 | 빈도 |      | 7     | 9     | 77    | 53    | 146    |
|     | %  |      | .9%   | 1.2%  | 10.2% | 7.0%  | 19.4%  |
| 전체  | 빈도 | 21   | 77    | 88    | 373   | 194   | 753    |
|     | %  | 2.8% | 10.2% | 11.7% | 49.5% | 25.8% | 100.0% |

$$\chi^2 = 51.049, P < .001$$

학교급\*문6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5     | 13    | 9     | 7     | 5     | 39     |
|     | %  | .7%   | 1.7%  | 1.2%  | .9%   | .7%   | 5.2%   |
| 대안B | 빈도 | 3     | 20    | 7     | 10    | 8     | 48     |
|     | %  | .4%   | 2.7%  | .9%   | 1.3%  | 1.1%  | 6.4%   |
| 대안C | 빈도 | 3     | 8     | 6     | 14    | 11    | 42     |
|     | %  | .4%   | 1.1%  | .8%   | 1.9%  | 1.5%  | 5.6%   |
| 인문고 | 빈도 | 39    | 143   | 42    | 64    | 32    | 320    |
|     | %  | 5.2%  | 19.0% | 5.6%  | 8.5%  | 4.2%  | 42.4%  |
| 실업고 | 빈도 | 19    | 57    | 32    | 29    | 22    | 159    |
|     | %  | 2.5%  | 7.6%  | 4.2%  | 3.8%  | 2.9%  | 21.1%  |
| 과학고 | 빈도 | 21    | 59    | 29    | 27    | 10    | 146    |
|     | %  | 2.8%  | 7.8%  | 3.8%  | 3.6%  | 1.3%  | 19.4%  |
| 전체  | 빈도 | 90    | 300   | 125   | 151   | 88    | 754    |
|     | %  | 11.9% | 39.8% | 16.6% | 20.0% | 11.7% | 100.0% |

$$\chi^2 = 33.350, P < .05$$

학교급\*문7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 6    | 17    | 7     | 9     | 39     |
|     | %  |      | .8%  | 2.3%  | .9%   | 1.2%  | 5.2%   |
| 대안B | 빈도 | 2    | 4    | 19    | 17    | 6     | 48     |
|     | %  | .3%  | .5%  | 2.5%  | 2.3%  | .8%   | 6.4%   |
| 대안C | 빈도 | 1    | 1    | 14    | 19    | 7     | 42     |
|     | %  | .1%  | .1%  | 1.9%  | 2.5%  | .9%   | 5.6%   |
| 인문고 | 빈도 | 3    | 25   | 143   | 108   | 41    | 320    |
|     | %  | .4%  | 3.3% | 18.9% | 14.3% | 5.4%  | 42.4%  |
| 실업고 | 빈도 | 2    | 16   | 71    | 43    | 28    | 160    |
|     | %  | .3%  | 2.1% | 9.4%  | 5.7%  | 3.7%  | 21.2%  |
| 과학고 | 빈도 | 1    | 6    | 57    | 66    | 16    | 146    |
|     | %  | .1%  | .8%  | 7.5%  | 8.7%  | 2.1%  | 19.3%  |
| 전체  | 빈도 | 9    | 58   | 321   | 260   | 107   | 755    |
|     | %  | 1.2% | 7.7% | 42.5% | 34.4% | 14.2% | 100.0% |

$$\chi^2 = 32.311, P < .05$$

학교급\*문8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4    | 8     | 7     | 15    | 5     | 39     |
|     | %  | .5%  | 1.1%  | .9%   | 2.0%  | .7%   | 5.2%   |
| 대안B | 빈도 | 5    | 8     | 18    | 13    | 4     | 48     |
|     | %  | .7%  | 1.1%  | 2.4%  | 1.7%  | .5%   | 6.4%   |
| 대안C | 빈도 | 3    | 5     | 6     | 21    | 7     | 42     |
|     | %  | .4%  | .7%   | .8%   | 2.8%  | .9%   | 5.6%   |
| 인문고 | 빈도 | 19   | 62    | 117   | 86    | 36    | 320    |
|     | %  | 2.5% | 8.2%  | 15.5% | 11.4% | 4.8%  | 42.4%  |
| 실업고 | 빈도 | 10   | 16    | 59    | 41    | 34    | 160    |
|     | %  | 1.3% | 2.1%  | 7.8%  | 5.4%  | 4.5%  | 21.2%  |
| 과학고 | 빈도 | 9    | 28    | 43    | 49    | 17    | 146    |
|     | %  | 1.2% | 3.7%  | 5.7%  | 6.5%  | 2.3%  | 19.3%  |
| 전체  | 빈도 | 50   | 127   | 250   | 225   | 103   | 755    |
|     | %  | 6.6% | 16.8% | 33.1% | 29.8% | 13.6% | 100.0% |

$$\chi^2 = 38.371, P < .01$$

학교급\*문9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7     | 20    | 6     | 4    | 39     |
|     | %  | .3%  | .9%   | 2.7%  | .8%   | .5%  | 5.2%   |
| 대안B | 빈도 | 2    | 5     | 28    | 13    |      | 48     |
|     | %  | .3%  | .7%   | 3.7%  | 1.7%  |      | 6.4%   |
| 대안C | 빈도 |      | 13    | 18    | 11    |      | 42     |
|     | %  |      | 1.7%  | 2.4%  | 1.5%  |      | 5.6%   |
| 인문고 | 빈도 | 8    | 28    | 175   | 97    | 11   | 319    |
|     | %  | 1.1% | 3.7%  | 23.3% | 12.9% | 1.5% | 42.4%  |
| 실업고 | 빈도 | 1    | 11    | 84    | 42    | 20   | 158    |
|     | %  | .1%  | 1.5%  | 11.2% | 5.6%  | 2.7% | 21.0%  |
| 과학고 | 빈도 | 3    | 23    | 69    | 42    | 9    | 146    |
|     | %  | .4%  | 3.1%  | 9.2%  | 5.6%  | 1.2% | 19.4%  |
| 전체  | 빈도 | 16   | 87    | 394   | 211   | 44   | 752    |
|     | %  | 2.1% | 11.6% | 52.4% | 28.1% | 5.9% | 100.0% |

$$\chi^2 = 55.191, P < .001$$

학교급\*문10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9     | 10    | 16    | 2     | 2    | 39     |
|     | %  | 1.2%  | 1.3%  | 2.1%  | .3%   | .3%  | 5.2%   |
| 대안B | 빈도 | 6     | 24    | 14    | 2     | 2    | 48     |
|     | %  | .8%   | 3.2%  | 1.9%  | .3%   | .3%  | 6.4%   |
| 대안C | 빈도 | 7     | 12    | 12    | 10    | 1    | 42     |
|     | %  | .9%   | 1.6%  | 1.6%  | 1.3%  | .1%  | 5.6%   |
| 인문고 | 빈도 | 35    | 115   | 120   | 35    | 14   | 319    |
|     | %  | 4.7%  | 15.3% | 16.0% | 4.7%  | 1.9% | 42.5%  |
| 실업고 | 빈도 | 12    | 41    | 70    | 20    | 14   | 157    |
|     | %  | 1.6%  | 5.5%  | 9.3%  | 2.7%  | 1.9% | 20.9%  |
| 과학고 | 빈도 | 21    | 53    | 55    | 12    | 5    | 146    |
|     | %  | 2.8%  | 7.1%  | 7.3%  | 1.6%  | .7%  | 19.4%  |
| 전체  | 빈도 | 90    | 255   | 287   | 81    | 38   | 751    |
|     | %  | 12.0% | 34.0% | 38.2% | 10.8% | 5.1% | 100.0% |

$\chi^2 = 37.863, P < .01$

학교급\*문11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5    | 15    | 12    | 5    | 39     |
|     | %  | .3%  | .7%  | 2.0%  | 1.6%  | .7%  | 5.2%   |
| 대안B | 빈도 | 2    | 5    | 24    | 16    | 1    | 48     |
|     | %  | .3%  | .7%  | 3.2%  | 2.2%  | .1%  | 6.5%   |
| 대안C | 빈도 | 1    | 9    | 17    | 8     | 3    | 38     |
|     | %  | .1%  | 1.2% | 2.3%  | 1.1%  | .4%  | 5.1%   |
| 인문고 | 빈도 | 2    | 24   | 159   | 107   | 25   | 317    |
|     | %  | .3%  | 3.2% | 21.4% | 14.4% | 3.4% | 42.6%  |
| 실업고 | 빈도 | 1    | 6    | 77    | 54    | 19   | 157    |
|     | %  | .1%  | .8%  | 10.3% | 7.3%  | 2.6% | 21.1%  |
| 과학고 | 빈도 | 3    | 16   | 72    | 40    | 14   | 145    |
|     | %  | .4%  | 2.2% | 9.7%  | 5.4%  | 1.9% | 19.5%  |
| 전체  | 빈도 | 11   | 65   | 364   | 237   | 67   | 744    |
|     | %  | 1.5% | 8.7% | 48.9% | 31.9% | 9.0% | 100.0% |

$\chi^2 = 34.881, P < .05$

학교급\*문12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4    | 5     | 12    | 11    | 7     | 39     |
|     | %  | .5%  | .7%   | 1.6%  | 1.5%  | .9%   | 5.2%   |
| 대안B | 빈도 | 1    | 3     | 11    | 27    | 6     | 48     |
|     | %  | .1%  | .4%   | 1.5%  | 3.6%  | .8%   | 6.4%   |
| 대안C | 빈도 | 1    | 4     | 6     | 13    | 18    | 42     |
|     | %  | .1%  | .5%   | .8%   | 1.7%  | 2.4%  | 5.6%   |
| 인문고 | 빈도 | 13   | 35    | 72    | 126   | 73    | 319    |
|     | %  | 1.7% | 4.7%  | 9.6%  | 16.8% | 9.7%  | 42.4%  |
| 실업고 | 빈도 | 16   | 31    | 46    | 45    | 21    | 159    |
|     | %  | 2.1% | 4.1%  | 6.1%  | 6.0%  | 2.8%  | 21.1%  |
| 과학고 | 빈도 | 2    | 8     | 28    | 62    | 45    | 145    |
|     | %  | .3%  | 1.1%  | 3.7%  | 8.2%  | 6.0%  | 19.3%  |
| 전체  | 빈도 | 37   | 86    | 175   | 284   | 170   | 752    |
|     | %  | 4.9% | 11.4% | 23.3% | 37.8% | 22.6% | 100.0% |

$$\chi^2 = 68.523, P < .001$$

학교급\*문13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7    | 9     | 12    | 7     | 4    | 39     |
|     | %  | .9%  | 1.2%  | 1.6%  | .9%   | .5%  | 5.2%   |
| 대안B | 빈도 | 4    | 11    | 22    | 11    |      | 48     |
|     | %  | .5%  | 1.5%  | 2.9%  | 1.5%  |      | 6.4%   |
| 대안C | 빈도 | 4    | 11    | 17    | 7     | 3    | 42     |
|     | %  | .5%  | 1.5%  | 2.3%  | .9%   | .4%  | 5.6%   |
| 인문고 | 빈도 | 17   | 61    | 118   | 101   | 23   | 320    |
|     | %  | 2.3% | 8.1%  | 15.6% | 13.4% | 3.0% | 42.4%  |
| 실업고 | 빈도 | 3    | 26    | 66    | 46    | 19   | 160    |
|     | %  | .4%  | 3.4%  | 8.7%  | 6.1%  | 2.5% | 21.2%  |
| 과학고 | 빈도 | 4    | 34    | 49    | 50    | 9    | 146    |
|     | %  | .5%  | 4.5%  | 6.5%  | 6.6%  | 1.2% | 19.3%  |
| 전체  | 빈도 | 39   | 152   | 284   | 222   | 58   | 755    |
|     | %  | 5.2% | 20.1% | 37.6% | 29.4% | 7.7% | 100.0% |

$$\chi^2 = 40.431, P < .01$$



학교급\*문14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5    | 2     | 19    | 10    | 3    | 39     |
|     | %  | .7%  | .3%   | 2.5%  | 1.3%  | .4%  | 5.2%   |
| 대안B | 빈도 | 2    | 4     | 24    | 16    | 2    | 48     |
|     | %  | .3%  | .5%   | 3.2%  | 2.1%  | .3%  | 6.4%   |
| 대안C | 빈도 | 3    | 4     | 16    | 13    | 6    | 42     |
|     | %  | .4%  | .5%   | 2.1%  | 1.7%  | .8%  | 5.6%   |
| 인문고 | 빈도 | 13   | 55    | 136   | 93    | 22   | 319    |
|     | %  | 1.7% | 7.3%  | 18.0% | 12.3% | 2.9% | 42.3%  |
| 실업고 | 빈도 | 19   | 37    | 58    | 35    | 11   | 160    |
|     | %  | 2.5% | 4.9%  | 7.7%  | 4.6%  | 1.5% | 21.2%  |
| 과학고 | 빈도 | 7    | 20    | 49    | 58    | 12   | 146    |
|     | %  | .9%  | 2.7%  | 6.5%  | 7.7%  | 1.6% | 19.4%  |
| 전체  | 빈도 | 49   | 122   | 302   | 225   | 56   | 754    |
|     | %  | 6.5% | 16.2% | 40.1% | 29.8% | 7.4% | 100.0% |

$\chi^2 = 41.886, P < .01$

학교급\*문16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5     | 15    | 13    | 6     |      | 39     |
|     | %  | .7%   | 2.0%  | 1.7%  | .8%   |      | 5.2%   |
| 대안B | 빈도 | 3     | 21    | 18    | 5     | 1    | 48     |
|     | %  | .4%   | 2.8%  | 2.4%  | .7%   | .1%  | 6.4%   |
| 대안C | 빈도 | 1     | 7     | 10    | 18    | 6    | 42     |
|     | %  | .1%   | .9%   | 1.3%  | 2.4%  | .8%  | 5.6%   |
| 인문고 | 빈도 | 49    | 125   | 81    | 55    | 9    | 319    |
|     | %  | 6.5%  | 16.6% | 10.8% | 7.3%  | 1.2% | 42.4%  |
| 실업고 | 빈도 | 32    | 52    | 50    | 19    | 5    | 158    |
|     | %  | 4.3%  | 6.9%  | 6.6%  | 2.5%  | .7%  | 21.0%  |
| 과학고 | 빈도 | 13    | 63    | 34    | 29    | 7    | 146    |
|     | %  | 1.7%  | 8.4%  | 4.5%  | 3.9%  | .9%  | 19.4%  |
| 전체  | 빈도 | 103   | 283   | 206   | 132   | 28   | 752    |
|     | %  | 13.7% | 37.6% | 27.4% | 17.6% | 3.7% | 100.0% |

$\chi^2 = 62.244, P < .001$

학교급\*문18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5    | 8     | 17    | 4     | 4    | 38     |
|     | %  | .7%  | 1.1%  | 2.3%  | .5%   | .5%  | 5.1%   |
| 대안B | 빈도 | 2    | 14    | 27    | 5     |      | 48     |
|     | %  | .3%  | 1.9%  | 3.6%  | .7%   |      | 6.4%   |
| 대안C | 빈도 | 2    | 5     | 24    | 8     | 3    | 42     |
|     | %  | .3%  | .7%   | 3.2%  | 1.1%  | .4%  | 5.6%   |
| 인문고 | 빈도 | 15   | 120   | 132   | 47    | 4    | 318    |
|     | %  | 2.0% | 16.0% | 17.6% | 6.3%  | .5%  | 42.3%  |
| 실업고 | 빈도 | 21   | 47    | 71    | 12    | 8    | 159    |
|     | %  | 2.8% | 6.3%  | 9.5%  | 1.6%  | 1.1% | 21.2%  |
| 과학고 | 빈도 | 12   | 46    | 64    | 19    | 5    | 146    |
|     | %  | 1.6% | 6.1%  | 8.5%  | 2.5%  | .7%  | 19.4%  |
| 전체  | 빈도 | 57   | 240   | 335   | 95    | 24   | 751    |
|     | %  | 7.6% | 32.0% | 44.6% | 12.6% | 3.2% | 100.0% |

$\chi^2 = 48.478, P < .001$

학교급\*문19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0    | 14    | 5     |      |     | 39     |
|     | %  | 2.7%  | 1.9%  | .7%   |      |     | 5.2%   |
| 대안B | 빈도 | 11    | 23    | 9     | 4    |     | 47     |
|     | %  | 1.5%  | 3.1%  | 1.2%  | .5%  |     | 6.2%   |
| 대안C | 빈도 | 25    | 13    | 2     | 2    |     | 42     |
|     | %  | 3.3%  | 1.7%  | .3%   | .3%  |     | 5.6%   |
| 인문고 | 빈도 | 127   | 152   | 20    | 20   | 1   | 320    |
|     | %  | 16.9% | 20.2% | 2.7%  | 2.7% | .1% | 42.5%  |
| 실업고 | 빈도 | 60    | 63    | 28    | 7    | 2   | 160    |
|     | %  | 8.0%  | 8.4%  | 3.7%  | .9%  | .3% | 21.2%  |
| 과학고 | 빈도 | 49    | 69    | 19    | 6    | 2   | 145    |
|     | %  | 6.5%  | 9.2%  | 2.5%  | .8%  | .3% | 19.3%  |
| 전체  | 빈도 | 292   | 334   | 83    | 39   | 5   | 753    |
|     | %  | 38.8% | 44.4% | 11.0% | 5.2% | .7% | 100.0% |

$\chi^2 = 40.004, P < .01$

학교급\*문20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6    | 9     | 13    | 7     | 4     | 39     |
|     | %  | .8%  | 1.2%  | 1.7%  | .9%   | .5%   | 5.2%   |
| 대안B | 빈도 | 3    | 8     | 18    | 16    | 3     | 48     |
|     | %  | .4%  | 1.1%  | 2.4%  | 2.1%  | .4%   | 6.4%   |
| 대안C | 빈도 | 2    | 8     | 11    | 14    | 7     | 42     |
|     | %  | .3%  | 1.1%  | 1.5%  | 1.9%  | .9%   | 5.6%   |
| 인문고 | 빈도 | 17   | 89    | 88    | 88    | 38    | 320    |
|     | %  | 2.3% | 11.8% | 11.7% | 11.7% | 5.0%  | 42.4%  |
| 실업고 | 빈도 | 14   | 41    | 60    | 30    | 15    | 160    |
|     | %  | 1.9% | 5.4%  | 7.9%  | 4.0%  | 2.0%  | 21.2%  |
| 과학고 | 빈도 | 4    | 24    | 47    | 56    | 15    | 146    |
|     | %  | .5%  | 3.2%  | 6.2%  | 7.4%  | 2.0%  | 19.3%  |
| 전체  | 빈도 | 46   | 179   | 237   | 211   | 82    | 755    |
|     | %  | 6.1% | 23.7% | 31.4% | 27.9% | 10.9% | 100.0% |

$$\chi^2 = 37.931, P < .01$$

학교급\*문21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8     | 20    | 9     | 1    | 1    | 39     |
|     | %  | 1.1%  | 2.7%  | 1.2%  | .1%  | .1%  | 5.2%   |
| 대안B | 빈도 | 7     | 29    | 9     | 1    | 1    | 47     |
|     | %  | .9%   | 3.8%  | 1.2%  | .1%  | .1%  | 6.2%   |
| 대안C | 빈도 | 6     | 23    | 8     | 4    | 1    | 42     |
|     | %  | .8%   | 3.1%  | 1.1%  | .5%  | .1%  | 5.6%   |
| 인문고 | 빈도 | 92    | 161   | 46    | 18   | 3    | 320    |
|     | %  | 12.2% | 21.4% | 6.1%  | 2.4% | .4%  | 42.4%  |
| 실업고 | 빈도 | 35    | 62    | 44    | 12   | 7    | 160    |
|     | %  | 4.6%  | 8.2%  | 5.8%  | 1.6% | .9%  | 21.2%  |
| 과학고 | 빈도 | 46    | 78    | 18    | 3    | 1    | 146    |
|     | %  | 6.1%  | 10.3% | 2.4%  | .4%  | .1%  | 19.4%  |
| 전체  | 빈도 | 194   | 373   | 134   | 39   | 14   | 754    |
|     | %  | 25.7% | 49.5% | 17.8% | 5.2% | 1.9% | 100.0% |

$$\chi^2 = 43.921, P < .01$$

학교급\*문23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13    | 19    | 3     | 1    | 39     |
|     | %  | .4%  | 1.7%  | 2.5%  | .4%   | .1%  | 5.2%   |
| 대안B | 빈도 | 4    | 10    | 24    | 10    |      | 48     |
|     | %  | .5%  | 1.3%  | 3.2%  | 1.3%  |      | 6.4%   |
| 대안C | 빈도 | 7    | 12    | 21    |       | 2    | 42     |
|     | %  | .9%  | 1.6%  | 2.8%  |       | .3%  | 5.6%   |
| 인문고 | 빈도 | 15   | 54    | 131   | 102   | 18   | 320    |
|     | %  | 2.0% | 7.2%  | 17.4% | 13.5% | 2.4% | 42.4%  |
| 실업고 | 빈도 | 16   | 36    | 79    | 24    | 5    | 160    |
|     | %  | 2.1% | 4.8%  | 10.5% | 3.2%  | .7%  | 21.2%  |
| 과학고 | 빈도 | 11   | 25    | 64    | 41    | 5    | 146    |
|     | %  | 1.5% | 3.3%  | 8.5%  | 5.4%  | .7%  | 19.3%  |
| 전체  | 빈도 | 56   | 150   | 338   | 180   | 31   | 755    |
|     | %  | 7.4% | 19.9% | 44.8% | 23.8% | 4.1% | 100.0% |

$$\chi^2 = 53.869, P < .001$$

학교급\*문24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4    | 13    | 5     | 5     | 2     | 39     |
|     | %  | 1.9%  | 1.7%  | .7%   | .7%   | .3%   | 5.2%   |
| 대안B | 빈도 | 4     | 9     | 16    | 15    | 4     | 48     |
|     | %  | .5%   | 1.2%  | 2.1%  | 2.0%  | .5%   | 6.4%   |
| 대안C | 빈도 | 5     | 7     | 6     | 14    | 10    | 42     |
|     | %  | .7%   | .9%   | .8%   | 1.9%  | 1.3%  | 5.6%   |
| 인문고 | 빈도 | 85    | 93    | 44    | 61    | 37    | 320    |
|     | %  | 11.3% | 12.3% | 5.8%  | 8.1%  | 4.9%  | 42.4%  |
| 실업고 | 빈도 | 55    | 37    | 24    | 28    | 16    | 160    |
|     | %  | 7.3%  | 4.9%  | 3.2%  | 3.7%  | 2.1%  | 21.2%  |
| 과학고 | 빈도 | 24    | 44    | 31    | 30    | 16    | 145    |
|     | %  | 3.2%  | 5.8%  | 4.1%  | 4.0%  | 2.1%  | 19.2%  |
| 전체  | 빈도 | 187   | 203   | 126   | 153   | 85    | 754    |
|     | %  | 24.8% | 26.9% | 16.7% | 20.3% | 11.3% | 100.0% |

$$\chi^2 = 54.129, P < .001$$

학교급\*문25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6     | 21    | 9     | 1    | 39     |
|     | %  | .3%  | .8%   | 2.8%  | 1.2%  | .1%  | 5.2%   |
| 대안B | 빈도 | 4    | 10    | 25    | 9     |      | 48     |
|     | %  | .5%  | 1.3%  | 3.3%  | 1.2%  |      | 6.4%   |
| 대안C | 빈도 | 3    | 16    | 15    | 4     | 4    | 42     |
|     | %  | .4%  | 2.1%  | 2.0%  | .5%   | .5%  | 5.6%   |
| 인문고 | 빈도 | 18   | 50    | 121   | 113   | 18   | 320    |
|     | %  | 2.4% | 6.6%  | 16.0% | 15.0% | 2.4% | 42.4%  |
| 실업고 | 빈도 | 13   | 29    | 70    | 38    | 10   | 160    |
|     | %  | 1.7% | 3.8%  | 9.3%  | 5.0%  | 1.3% | 21.2%  |
| 과학고 | 빈도 | 12   | 43    | 38    | 45    | 7    | 145    |
|     | %  | 1.6% | 5.7%  | 5.0%  | 6.0%  | .9%  | 19.2%  |
| 전체  | 빈도 | 52   | 154   | 290   | 218   | 40   | 754    |
|     | %  | 6.9% | 20.4% | 38.5% | 28.9% | 5.3% | 100.0% |

$$\chi^2 = 49.235, P < .001$$

학교급\*문26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4    | 4     | 10    | 17    | 4     | 39     |
|     | %  | .5%  | .5%   | 1.3%  | 2.3%  | .5%   | 5.2%   |
| 대안B | 빈도 | 2    | 4     | 16    | 19    | 7     | 48     |
|     | %  | .3%  | .5%   | 2.1%  | 2.5%  | .9%   | 6.4%   |
| 대안C | 빈도 |      | 4     | 6     | 20    | 12    | 42     |
|     | %  |      | .5%   | .8%   | 2.7%  | 1.6%  | 5.6%   |
| 인문고 | 빈도 | 9    | 57    | 98    | 114   | 42    | 320    |
|     | %  | 1.2% | 7.6%  | 13.0% | 15.1% | 5.6%  | 42.4%  |
| 실업고 | 빈도 | 4    | 20    | 49    | 65    | 21    | 159    |
|     | %  | .5%  | 2.7%  | 6.5%  | 8.6%  | 2.8%  | 21.1%  |
| 과학고 | 빈도 | 8    | 13    | 38    | 69    | 18    | 146    |
|     | %  | 1.1% | 1.7%  | 5.0%  | 9.2%  | 2.4%  | 19.4%  |
| 전체  | 빈도 | 27   | 102   | 217   | 304   | 104   | 754    |
|     | %  | 3.6% | 13.5% | 28.8% | 40.3% | 13.8% | 100.0% |

$$\chi^2 = 33.528, P < .05$$

학교급\*문27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    | 12    | 12    | 12    | 2     | 39     |
|     | %  | .1%  | 1.6%  | 1.6%  | 1.6%  | .3%   | 5.2%   |
| 대안B | 빈도 | 1    | 4     | 17    | 17    | 9     | 48     |
|     | %  | .1%  | .5%   | 2.3%  | 2.3%  | 1.2%  | 6.4%   |
| 대안C | 빈도 | 1    |       | 7     | 22    | 12    | 42     |
|     | %  | .1%  |       | .9%   | 2.9%  | 1.6%  | 5.6%   |
| 인문고 | 빈도 | 26   | 56    | 63    | 134   | 41    | 320    |
|     | %  | 3.4% | 7.4%  | 8.3%  | 17.7% | 5.4%  | 42.4%  |
| 실업고 | 빈도 | 5    | 23    | 41    | 59    | 32    | 160    |
|     | %  | .7%  | 3.0%  | 5.4%  | 7.8%  | 4.2%  | 21.2%  |
| 과학고 | 빈도 | 12   | 50    | 34    | 34    | 16    | 146    |
|     | %  | 1.6% | 6.6%  | 4.5%  | 4.5%  | 2.1%  | 19.3%  |
| 전체  | 빈도 | 46   | 145   | 174   | 278   | 112   | 755    |
|     | %  | 6.1% | 19.2% | 23.0% | 36.8% | 14.8% | 100.0% |

$$\chi^2 = 75.123, P < .001$$

학교급\*문28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6    | 10    | 11    | 8     | 4    | 39     |
|     | %  | .8%  | 1.3%  | 1.5%  | 1.1%  | .5%  | 5.2%   |
| 대안B | 빈도 | 1    | 11    | 19    | 11    | 6    | 48     |
|     | %  | .1%  | 1.5%  | 2.5%  | 1.5%  | .8%  | 6.4%   |
| 대안C | 빈도 | 1    | 4     | 7     | 22    | 8    | 42     |
|     | %  | .1%  | .5%   | .9%   | 2.9%  | 1.1% | 5.6%   |
| 인문고 | 빈도 | 29   | 115   | 102   | 66    | 8    | 320    |
|     | %  | 3.8% | 15.3% | 13.5% | 8.8%  | 1.1% | 42.4%  |
| 실업고 | 빈도 | 12   | 38    | 57    | 39    | 14   | 160    |
|     | %  | 1.6% | 5.0%  | 7.6%  | 5.2%  | 1.9% | 21.2%  |
| 과학고 | 빈도 | 5    | 30    | 48    | 52    | 10   | 145    |
|     | %  | .7%  | 4.0%  | 6.4%  | 6.9%  | 1.3% | 19.2%  |
| 전체  | 빈도 | 54   | 208   | 244   | 198   | 50   | 754    |
|     | %  | 7.2% | 27.6% | 32.4% | 26.3% | 6.6% | 100.0% |

$$\chi^2 = 75.929, P < .001$$

학교급\*문29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9     | 16    | 7     | 5    | 39     |
|     | %  | .3%  | 1.2%  | 2.1%  | .9%   | .7%  | 5.2%   |
| 대안B | 빈도 | 1    | 12    | 20    | 10    | 5    | 48     |
|     | %  | .1%  | 1.6%  | 2.7%  | 1.3%  | .7%  | 6.4%   |
| 대안C | 빈도 | 2    | 3     | 13    | 17    | 7    | 42     |
|     | %  | .3%  | .4%   | 1.7%  | 2.3%  | .9%  | 5.6%   |
| 인문고 | 빈도 | 36   | 84    | 125   | 58    | 17   | 320    |
|     | %  | 4.8% | 11.1% | 16.6% | 7.7%  | 2.3% | 42.4%  |
| 실업고 | 빈도 | 14   | 34    | 73    | 26    | 13   | 160    |
|     | %  | 1.9% | 4.5%  | 9.7%  | 3.4%  | 1.7% | 21.2%  |
| 파학교 | 빈도 | 5    | 40    | 48    | 36    | 16   | 145    |
|     | %  | .7%  | 5.3%  | 6.4%  | 4.8%  | 2.1% | 19.2%  |
| 전체  | 빈도 | 60   | 182   | 295   | 154   | 63   | 754    |
|     | %  | 8.0% | 24.1% | 39.1% | 20.4% | 8.4% | 100.0% |

$$\chi^2 = 43.433, P < .01$$

학교급\*문30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    | 6     | 20    | 10    | 2    | 39     |
|     | %  | .1%  | .8%   | 2.6%  | 1.3%  | .3%  | 5.2%   |
| 대안B | 빈도 | 1    | 3     | 17    | 21    | 6    | 48     |
|     | %  | .1%  | .4%   | 2.3%  | 2.8%  | .8%  | 6.4%   |
| 대안C | 빈도 | 1    | 2     | 11    | 18    | 10   | 42     |
|     | %  | .1%  | .3%   | 1.5%  | 2.4%  | 1.3% | 5.6%   |
| 인문고 | 빈도 | 17   | 74    | 131   | 77    | 21   | 320    |
|     | %  | 2.3% | 9.8%  | 17.4% | 10.2% | 2.8% | 42.4%  |
| 실업고 | 빈도 | 9    | 33    | 78    | 30    | 10   | 160    |
|     | %  | 1.2% | 4.4%  | 10.3% | 4.0%  | 1.3% | 21.2%  |
| 파학교 | 빈도 | 3    | 30    | 41    | 57    | 15   | 146    |
|     | %  | .4%  | 4.0%  | 5.4%  | 7.5%  | 2.0% | 19.3%  |
| 전체  | 빈도 | 32   | 148   | 298   | 213   | 64   | 755    |
|     | %  | 4.2% | 19.6% | 39.5% | 28.2% | 8.5% | 100.0% |

$$\chi^2 = 64.346, P < .001$$

학교급\*문31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7     | 11    | 11    | 7     | 39     |
|     | %  | .4%  | .9%   | 1.5%  | 1.5%  | .9%   | 5.2%   |
| 대안B | 빈도 | 1    | 9     | 17    | 16    | 5     | 48     |
|     | %  | .1%  | 1.2%  | 2.3%  | 2.1%  | .7%   | 6.4%   |
| 대안C | 빈도 | 1    |       | 7     | 18    | 16    | 42     |
|     | %  | .1%  |       | .9%   | 2.4%  | 2.1%  | 5.6%   |
| 인문고 | 빈도 | 12   | 73    | 110   | 97    | 28    | 320    |
|     | %  | 1.6% | 9.7%  | 14.6% | 12.8% | 3.7%  | 42.4%  |
| 실업고 | 빈도 | 9    | 24    | 53    | 55    | 19    | 160    |
|     | %  | 1.2% | 3.2%  | 7.0%  | 7.3%  | 2.5%  | 21.2%  |
| 과학고 | 빈도 | 3    | 44    | 46    | 44    | 9     | 146    |
|     | %  | .4%  | 5.8%  | 6.1%  | 5.8%  | 1.2%  | 19.3%  |
| 전체  | 빈도 | 29   | 157   | 244   | 241   | 84    | 755    |
|     | %  | 3.8% | 20.8% | 32.3% | 31.9% | 11.1% | 100.0% |

$$\chi^2 = 63.526, P < .001$$

학교급\*문32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6    | 6     | 14    | 11    | 39     |
|     | %  | .3%  | .8%  | .8%   | 1.9%  | 1.5%  | 5.2%   |
| 대안B | 빈도 | 1    | 1    | 12    | 21    | 13    | 48     |
|     | %  | .1%  | .1%  | 1.6%  | 2.8%  | 1.7%  | 6.4%   |
| 대안C | 빈도 |      |      |       | 10    | 32    | 42     |
|     | %  |      |      |       | 1.3%  | 4.2%  | 5.6%   |
| 인문고 | 빈도 | 3    | 10   | 56    | 147   | 104   | 320    |
|     | %  | .4%  | 1.3% | 7.4%  | 19.5% | 13.8% | 42.4%  |
| 실업고 | 빈도 | 3    | 13   | 34    | 61    | 49    | 160    |
|     | %  | .4%  | 1.7% | 4.5%  | 8.1%  | 6.5%  | 21.2%  |
| 과학고 | 빈도 |      | 11   | 20    | 72    | 43    | 146    |
|     | %  |      | 1.5% | 2.6%  | 9.5%  | 5.7%  | 19.3%  |
| 전체  | 빈도 | 9    | 41   | 128   | 325   | 252   | 755    |
|     | %  | 1.2% | 5.4% | 17.0% | 43.0% | 33.4% | 100.0% |

$$\chi^2 = 68.991, P < .001$$



학교급\*문33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    | 5    | 9     | 6     | 18    | 39     |
|     | %  | .1%  | .7%  | 1.2%  | .8%   | 2.4%  | 5.2%   |
| 대안B | 빈도 |      | 6    | 9     | 19    | 14    | 48     |
|     | %  |      | .8%  | 1.2%  | 2.5%  | 1.9%  | 6.4%   |
| 대안C | 빈도 |      | 1    | 3     | 5     | 33    | 42     |
|     | %  |      | .1%  | .4%   | .7%   | 4.4%  | 5.6%   |
| 인문고 | 빈도 | 3    | 24   | 52    | 97    | 144   | 320    |
|     | %  | .4%  | 3.2% | 6.9%  | 12.8% | 19.1% | 42.4%  |
| 실업고 | 빈도 | 3    | 12   | 16    | 65    | 64    | 160    |
|     | %  | .4%  | 1.6% | 2.1%  | 8.6%  | 8.5%  | 21.2%  |
| 과학고 | 빈도 | 1    | 9    | 25    | 60    | 51    | 146    |
|     | %  | .1%  | 1.2% | 3.3%  | 7.9%  | 6.8%  | 19.3%  |
| 전체  | 빈도 | 8    | 57   | 114   | 252   | 324   | 755    |
|     | %  | 1.1% | 7.5% | 15.1% | 33.4% | 42.9% | 100.0% |

$$\chi^2 = 48.767, P < .001$$

학교급\*문34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6    | 8     | 9     | 4     | 2    | 39     |
|     | %  | 2.1%  | 1.1%  | 1.2%  | .5%   | .3%  | 5.2%   |
| 대안B | 빈도 | 14    | 10    | 13    | 8     | 3    | 48     |
|     | %  | 1.9%  | 1.3%  | 1.7%  | 1.1%  | .4%  | 6.4%   |
| 대안C | 빈도 | 18    | 16    | 6     | 1     | 1    | 42     |
|     | %  | 2.4%  | 2.1%  | .8%   | .1%   | .1%  | 5.6%   |
| 인문고 | 빈도 | 76    | 82    | 69    | 69    | 24   | 320    |
|     | %  | 10.1% | 10.9% | 9.1%  | 9.1%  | 3.2% | 42.4%  |
| 실업고 | 빈도 | 51    | 43    | 32    | 24    | 10   | 160    |
|     | %  | 6.8%  | 5.7%  | 4.2%  | 3.2%  | 1.3% | 21.2%  |
| 과학고 | 빈도 | 21    | 27    | 44    | 49    | 5    | 146    |
|     | %  | 2.8%  | 3.6%  | 5.8%  | 6.5%  | .7%  | 19.3%  |
| 전체  | 빈도 | 196   | 185   | 173   | 155   | 45   | 755    |
|     | %  | 26.0% | 24.6% | 22.9% | 20.5% | 6.0% | 100.0% |

$$\chi^2 = 58.288, P < .001$$

학교급\*문35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4    | 4     | 10    | 12    | 9    | 39     |
|     | %  | .5%  | .5%   | 1.3%  | 1.6%  | 1.2% | 5.2%   |
| 대안B | 빈도 | 1    | 4     | 17    | 25    | 1    | 48     |
|     | %  | .1%  | .5%   | 2.3%  | 3.3%  | .1%  | 6.4%   |
| 대안C | 빈도 |      | 3     | 6     | 21    | 12   | 42     |
|     | %  |      | .4%   | .8%   | 2.8%  | 1.6% | 5.6%   |
| 인문고 | 빈도 | 40   | 67    | 118   | 79    | 16   | 320    |
|     | %  | 5.3% | 8.9%  | 15.6% | 10.5% | 2.1% | 42.4%  |
| 실업고 | 빈도 | 12   | 26    | 61    | 50    | 11   | 160    |
|     | %  | 1.6% | 3.4%  | 8.1%  | 6.6%  | 1.5% | 21.2%  |
| 과학고 | 빈도 | 6    | 21    | 57    | 50    | 12   | 146    |
|     | %  | .8%  | 2.8%  | 7.5%  | 6.6%  | 1.6% | 19.3%  |
| 전체  | 빈도 | 63   | 125   | 269   | 237   | 61   | 755    |
|     | %  | 8.3% | 16.6% | 35.6% | 31.4% | 8.1% | 100.0% |

$$\chi^2 = 67.480, P < .001$$

학교급\*문36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9     | 8     | 10    | 10    | 2    | 39     |
|     | %  | 1.2%  | 1.1%  | 1.3%  | 1.3%  | .3%  | 5.2%   |
| 대안B | 빈도 | 8     | 13    | 15    | 10    | 2    | 48     |
|     | %  | 1.1%  | 1.7%  | 2.0%  | 1.3%  | .3%  | 6.4%   |
| 대안C | 빈도 | 14    | 10    | 8     | 7     | 3    | 42     |
|     | %  | 1.9%  | 1.3%  | 1.1%  | .9%   | .4%  | 5.6%   |
| 인문고 | 빈도 | 96    | 116   | 62    | 41    | 5    | 320    |
|     | %  | 12.7% | 15.4% | 8.2%  | 5.4%  | .7%  | 42.4%  |
| 실업고 | 빈도 | 44    | 33    | 46    | 24    | 13   | 160    |
|     | %  | 5.8%  | 4.4%  | 6.1%  | 3.2%  | 1.7% | 21.2%  |
| 과학고 | 빈도 | 33    | 55    | 32    | 21    | 5    | 146    |
|     | %  | 4.4%  | 7.3%  | 4.2%  | 2.8%  | .7%  | 19.3%  |
| 전체  | 빈도 | 204   | 235   | 173   | 113   | 30   | 755    |
|     | %  | 27.0% | 31.1% | 22.9% | 15.0% | 4.0% | 100.0% |

$$\chi^2 = 41.786, P < .01$$

학교급\*문37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1    | 12    | 17    | 7     | 39     |
|     | %  | .3%  | .1%  | 1.6%  | 2.3%  | .9%   | 5.2%   |
| 대안B | 빈도 |      | 3    | 15    | 24    | 6     | 48     |
|     | %  |      | .4%  | 2.0%  | 3.2%  | .8%   | 6.4%   |
| 대안C | 빈도 |      |      | 4     | 14    | 24    | 42     |
|     | %  |      |      | .5%   | 1.9%  | 3.2%  | 5.6%   |
| 인문고 | 빈도 | 21   | 34   | 118   | 115   | 32    | 320    |
|     | %  | 2.8% | 4.5% | 15.6% | 15.3% | 4.2%  | 42.4%  |
| 실업고 | 빈도 | 6    | 19   | 58    | 60    | 17    | 160    |
|     | %  | .8%  | 2.5% | 7.7%  | 8.0%  | 2.3%  | 21.2%  |
| 과학고 | 빈도 |      | 6    | 42    | 70    | 27    | 145    |
|     | %  |      | .8%  | 5.6%  | 9.3%  | 3.6%  | 19.2%  |
| 전체  | 빈도 | 29   | 63   | 249   | 300   | 113   | 754    |
|     | %  | 3.8% | 8.4% | 33.0% | 39.8% | 15.0% | 100.0% |

$$\chi^2 = 102.620, P < .001$$

학교급\*문39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1   | 12    | 13    | 2     | 1    | 39     |
|     | %  | 1.5% | 1.6%  | 1.7%  | .3%   | .1%  | 5.2%   |
| 대안B | 빈도 | 3    | 13    | 30    | 2     |      | 48     |
|     | %  | .4%  | 1.7%  | 4.0%  | .3%   |      | 6.4%   |
| 대안C | 빈도 | 3    | 9     | 20    | 7     | 3    | 42     |
|     | %  | .4%  | 1.2%  | 2.7%  | .9%   | .4%  | 5.6%   |
| 인문고 | 빈도 | 21   | 78    | 149   | 61    | 11   | 320    |
|     | %  | 2.8% | 10.3% | 19.8% | 8.1%  | 1.5% | 42.4%  |
| 실업고 | 빈도 | 25   | 37    | 67    | 25    | 6    | 160    |
|     | %  | 3.3% | 4.9%  | 8.9%  | 3.3%  | .8%  | 21.2%  |
| 과학고 | 빈도 | 7    | 23    | 80    | 28    | 7    | 145    |
|     | %  | .9%  | 3.1%  | 10.6% | 3.7%  | .9%  | 19.2%  |
| 전체  | 빈도 | 70   | 172   | 359   | 125   | 28   | 754    |
|     | %  | 9.3% | 22.8% | 47.6% | 16.6% | 3.7% | 100.0% |

$$\chi^2 = 53.333, P < .001$$

학교급\*문41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3    | 20    | 6     |      |     | 39     |
|     | %  | 1.7%  | 2.6%  | .8%   |      |     | 5.2%   |
| 대안B | 빈도 | 18    | 20    | 9     | 1    |     | 48     |
|     | %  | 2.4%  | 2.6%  | 1.2%  | .1%  |     | 6.4%   |
| 대안C | 빈도 | 29    | 11    | 1     | 1    |     | 42     |
|     | %  | 3.8%  | 1.5%  | .1%   | .1%  |     | 5.6%   |
| 인문고 | 빈도 | 125   | 163   | 29    | 2    | 1   | 320    |
|     | %  | 16.6% | 21.6% | 3.8%  | .3%  | .1% | 42.4%  |
| 실업고 | 빈도 | 71    | 59    | 26    | 4    |     | 160    |
|     | %  | 9.4%  | 7.8%  | 3.4%  | .5%  |     | 21.2%  |
| 과학고 | 빈도 | 77    | 53    | 11    | 5    |     | 146    |
|     | %  | 10.2% | 7.0%  | 1.5%  | .7%  |     | 19.3%  |
| 전체  | 빈도 | 333   | 326   | 82    | 13   | 1   | 755    |
|     | %  | 44.1% | 43.2% | 10.9% | 1.7% | .1% | 100.0% |

$\chi^2 = 43.115, P < .01$

학교급\*문43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6    | 7     | 12    | 12    | 2    | 39     |
|     | %  | .8%  | .9%   | 1.6%  | 1.6%  | .3%  | 5.2%   |
| 대안B | 빈도 | 5    | 13    | 23    | 7     |      | 48     |
|     | %  | .7%  | 1.7%  | 3.1%  | .9%   |      | 6.4%   |
| 대안C | 빈도 | 1    | 4     | 7     | 22    | 8    | 42     |
|     | %  | .1%  | .5%   | .9%   | 2.9%  | 1.1% | 5.6%   |
| 인문고 | 빈도 | 27   | 69    | 91    | 112   | 20   | 319    |
|     | %  | 3.6% | 9.2%  | 12.1% | 14.9% | 2.7% | 42.3%  |
| 실업고 | 빈도 | 17   | 58    | 40    | 33    | 12   | 160    |
|     | %  | 2.3% | 7.7%  | 5.3%  | 4.4%  | 1.6% | 21.2%  |
| 과학고 | 빈도 | 10   | 37    | 44    | 49    | 6    | 146    |
|     | %  | 1.3% | 4.9%  | 5.8%  | 6.5%  | .8%  | 19.4%  |
| 전체  | 빈도 | 66   | 188   | 217   | 235   | 48   | 754    |
|     | %  | 8.8% | 24.9% | 28.8% | 31.2% | 6.4% | 100.0% |

$\chi^2 = 62.131, P < .001$

학교급\*문44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0    | 16    | 10    | 2    | 1    | 39     |
|     | %  | 1.3%  | 2.1%  | 1.3%  | .3%  | .1%  | 5.2%   |
| 대안B | 빈도 | 5     | 25    | 15    | 2    | 1    | 48     |
|     | %  | .7%   | 3.3%  | 2.0%  | .3%  | .1%  | 6.4%   |
| 대안C | 빈도 | 4     | 13    | 12    | 10   | 3    | 42     |
|     | %  | .5%   | 1.7%  | 1.6%  | 1.3% | .4%  | 5.6%   |
| 인문고 | 빈도 | 37    | 161   | 86    | 28   | 8    | 320    |
|     | %  | 4.9%  | 21.3% | 11.4% | 3.7% | 1.1% | 42.4%  |
| 실업고 | 빈도 | 29    | 63    | 48    | 16   | 4    | 160    |
|     | %  | 3.8%  | 8.3%  | 6.4%  | 2.1% | .5%  | 21.2%  |
| 과학고 | 빈도 | 15    | 79    | 33    | 12   | 7    | 146    |
|     | %  | 2.0%  | 10.5% | 4.4%  | 1.6% | .9%  | 19.3%  |
| 전체  | 빈도 | 100   | 357   | 204   | 70   | 24   | 755    |
|     | %  | 13.2% | 47.3% | 27.0% | 9.3% | 3.2% | 100.0% |

$$\chi^2 = 35.058, P < .05$$

학교급\*문46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8    | 10    | 9     | 10    | 2    | 39     |
|     | %  | 1.1% | 1.3%  | 1.2%  | 1.3%  | .3%  | 5.2%   |
| 대안B | 빈도 | 3    | 12    | 21    | 10    | 2    | 48     |
|     | %  | .4%  | 1.6%  | 2.8%  | 1.3%  | .3%  | 6.4%   |
| 대안C | 빈도 |      | 8     | 7     | 17    | 10   | 42     |
|     | %  |      | 1.1%  | .9%   | 2.3%  | 1.3% | 5.6%   |
| 인문고 | 빈도 | 29   | 88    | 88    | 105   | 10   | 320    |
|     | %  | 3.8% | 11.7% | 11.7% | 13.9% | 1.3% | 42.4%  |
| 실업고 | 빈도 | 25   | 39    | 45    | 38    | 12   | 159    |
|     | %  | 3.3% | 5.2%  | 6.0%  | 5.0%  | 1.6% | 21.1%  |
| 과학고 | 빈도 | 10   | 29    | 48    | 53    | 6    | 146    |
|     | %  | 1.3% | 3.8%  | 6.4%  | 7.0%  | .8%  | 19.4%  |
| 전체  | 빈도 | 75   | 186   | 218   | 233   | 42   | 754    |
|     | %  | 9.9% | 24.7% | 28.9% | 30.9% | 5.6% | 100.0% |

$$\chi^2 = 64.323, P < .001$$

학교급\*문47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6     | 14    | 9     | 9     | 1    | 39     |
|     | %  | .8%   | 1.9%  | 1.2%  | 1.2%  | .1%  | 5.2%   |
| 대안B | 빈도 |       | 20    | 18    | 5     | 5    | 48     |
|     | %  |       | 2.7%  | 2.4%  | .7%   | .7%  | 6.4%   |
| 대안C | 빈도 | 10    | 13    | 14    | 4     | 1    | 42     |
|     | %  | 1.3%  | 1.7%  | 1.9%  | .5%   | .1%  | 5.6%   |
| 인문고 | 빈도 | 33    | 129   | 99    | 52    | 7    | 320    |
|     | %  | 4.4%  | 17.1% | 13.1% | 6.9%  | .9%  | 42.4%  |
| 실업고 | 빈도 | 29    | 57    | 50    | 21    | 2    | 159    |
|     | %  | 3.8%  | 7.6%  | 6.6%  | 2.8%  | .3%  | 21.1%  |
| 과학고 | 빈도 | 11    | 55    | 52    | 21    | 7    | 146    |
|     | %  | 1.5%  | 7.3%  | 6.9%  | 2.8%  | .9%  | 19.4%  |
| 전체  | 빈도 | 89    | 288   | 242   | 112   | 23   | 754    |
|     | %  | 11.8% | 38.2% | 32.1% | 14.9% | 3.1% | 100.0% |

$$\chi^2 = 39.704, P < .01$$

학교급\*문52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16    | 14    | 4     | 2    | 39     |
|     | %  | .4%   | 2.1%  | 1.9%  | .5%   | .3%  | 5.2%   |
| 대안B | 빈도 | 5     | 16    | 24    | 3     |      | 48     |
|     | %  | .7%   | 2.1%  | 3.2%  | .4%   |      | 6.4%   |
| 대안C | 빈도 | 3     | 14    | 13    | 11    | 1    | 42     |
|     | %  | .4%   | 1.9%  | 1.7%  | 1.5%  | .1%  | 5.6%   |
| 인문고 | 빈도 | 25    | 126   | 114   | 46    | 9    | 320    |
|     | %  | 3.3%  | 16.7% | 15.1% | 6.1%  | 1.2% | 42.4%  |
| 실업고 | 빈도 | 24    | 35    | 65    | 28    | 8    | 160    |
|     | %  | 3.2%  | 4.6%  | 8.6%  | 3.7%  | 1.1% | 21.2%  |
| 과학고 | 빈도 | 17    | 63    | 47    | 16    | 3    | 146    |
|     | %  | 2.3%  | 8.3%  | 6.2%  | 2.1%  | .4%  | 19.3%  |
| 전체  | 빈도 | 77    | 270   | 277   | 108   | 23   | 755    |
|     | %  | 10.2% | 35.8% | 36.7% | 14.3% | 3.0% | 100.0% |

$$\chi^2 = 36.754, P < .05$$

학교급\*문55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7     | 15    | 13    | 2    | 39     |
|     | %  | .3%  | .9%   | 2.0%  | 1.7%  | .3%  | 5.2%   |
| 대안B | 빈도 | 5    | 11    | 18    | 13    | 1    | 48     |
|     | %  | .7%  | 1.5%  | 2.4%  | 1.7%  | .1%  | 6.4%   |
| 대안C | 빈도 | 9    | 14    | 12    | 6     | 1    | 42     |
|     | %  | 1.2% | 1.9%  | 1.6%  | .8%   | .1%  | 5.6%   |
| 인문고 | 빈도 | 24   | 63    | 124   | 93    | 16   | 320    |
|     | %  | 3.2% | 8.3%  | 16.4% | 12.3% | 2.1% | 42.4%  |
| 실업고 | 빈도 | 23   | 25    | 72    | 33    | 7    | 160    |
|     | %  | 3.0% | 3.3%  | 9.5%  | 4.4%  | .9%  | 21.2%  |
| 과학고 | 빈도 | 6    | 35    | 54    | 42    | 9    | 146    |
|     | %  | .8%  | 4.6%  | 7.2%  | 5.6%  | 1.2% | 19.3%  |
| 전체  | 빈도 | 69   | 155   | 295   | 200   | 36   | 755    |
|     | %  | 9.1% | 20.5% | 39.1% | 26.5% | 4.8% | 100.0% |

$$\chi^2 = 34.909, P < .05$$

학교급\*문57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6     | 17    | 13    |      | 39     |
|     | %  | .4%   | .8%   | 2.3%  | 1.7%  |      | 5.2%   |
| 대안B | 빈도 | 3     | 7     | 17    | 20    | 1    | 48     |
|     | %  | .4%   | .9%   | 2.3%  | 2.6%  | .1%  | 6.4%   |
| 대안C | 빈도 | 1     | 9     | 12    | 12    | 8    | 42     |
|     | %  | .1%   | 1.2%  | 1.6%  | 1.6%  | 1.1% | 5.6%   |
| 인문고 | 빈도 | 42    | 82    | 106   | 84    | 6    | 320    |
|     | %  | 5.6%  | 10.9% | 14.0% | 11.1% | .8%  | 42.4%  |
| 실업고 | 빈도 | 34    | 38    | 56    | 27    | 5    | 160    |
|     | %  | 4.5%  | 5.0%  | 7.4%  | 3.6%  | .7%  | 21.2%  |
| 과학고 | 빈도 | 10    | 22    | 60    | 46    | 8    | 146    |
|     | %  | 1.3%  | 2.9%  | 7.9%  | 6.1%  | 1.1% | 19.3%  |
| 전체  | 빈도 | 93    | 164   | 268   | 202   | 28   | 755    |
|     | %  | 12.3% | 21.7% | 35.5% | 26.8% | 3.7% | 100.0% |

$$\chi^2 = 74.511, P < .001$$

학교급\*문58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6     | 18    | 12    | 1    | 39     |
|     | %  | .3%  | .8%   | 2.4%  | 1.6%  | .1%  | 5.2%   |
| 대안B | 빈도 | 1    | 11    | 29    | 6     | 1    | 48     |
|     | %  | .1%  | 1.5%  | 3.8%  | .8%   | .1%  | 6.4%   |
| 대안C | 빈도 | 2    | 7     | 13    | 16    | 4    | 42     |
|     | %  | .3%  | .9%   | 1.7%  | 2.1%  | .5%  | 5.6%   |
| 인문고 | 빈도 | 9    | 51    | 118   | 113   | 29   | 320    |
|     | %  | 1.2% | 6.8%  | 15.6% | 15.0% | 3.8% | 42.4%  |
| 실업고 | 빈도 | 9    | 18    | 66    | 51    | 16   | 160    |
|     | %  | 1.2% | 2.4%  | 8.7%  | 6.8%  | 2.1% | 21.2%  |
| 과학고 | 빈도 | 4    | 34    | 58    | 40    | 10   | 146    |
|     | %  | .5%  | 4.5%  | 7.7%  | 5.3%  | 1.3% | 19.3%  |
| 전체  | 빈도 | 27   | 127   | 302   | 238   | 61   | 755    |
|     | %  | 3.6% | 16.8% | 40.0% | 31.5% | 8.1% | 100.0% |

$$\chi^2 = 31.773, P < .05$$

학교급\*문59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7     | 14    | 13    | 5    |      | 39     |
|     | %  | .9%   | 1.9%  | 1.7%  | .7%  |      | 5.2%   |
| 대안B | 빈도 | 5     | 20    | 18    | 5    |      | 48     |
|     | %  | .7%   | 2.6%  | 2.4%  | .7%  |      | 6.4%   |
| 대안C | 빈도 | 7     | 22    | 7     | 5    | 1    | 42     |
|     | %  | .9%   | 2.9%  | .9%   | .7%  | .1%  | 5.6%   |
| 인문고 | 빈도 | 86    | 151   | 67    | 16   |      | 320    |
|     | %  | 11.4% | 20.0% | 8.9%  | 2.1% |      | 42.4%  |
| 실업고 | 빈도 | 35    | 67    | 45    | 8    | 5    | 160    |
|     | %  | 4.6%  | 8.9%  | 6.0%  | 1.1% | .7%  | 21.2%  |
| 과학고 | 빈도 | 27    | 67    | 37    | 11   | 4    | 146    |
|     | %  | 3.6%  | 8.9%  | 4.9%  | 1.5% | .5%  | 19.3%  |
| 전체  | 빈도 | 167   | 341   | 187   | 50   | 10   | 755    |
|     | %  | 22.1% | 45.2% | 24.8% | 6.6% | 1.3% | 100.0% |

$$\chi^2 = 37.121, P < .05$$



학교급\*문61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2    | 18    | 12    | 4     | 38     |
|     | %  | .3%  | .3%  | 2.4%  | 1.6%  | .5%   | 5.0%   |
| 대안B | 빈도 |      | 7    | 19    | 17    | 5     | 48     |
|     | %  |      | .9%  | 2.5%  | 2.3%  | .7%   | 6.4%   |
| 대안C | 빈도 |      |      | 14    | 18    | 10    | 42     |
|     | %  |      |      | 1.9%  | 2.4%  | 1.3%  | 5.6%   |
| 인문고 | 빈도 | 1    | 9    | 106   | 147   | 57    | 320    |
|     | %  | .1%  | 1.2% | 14.1% | 19.5% | 7.6%  | 42.4%  |
| 실업고 | 빈도 | 8    | 11   | 64    | 52    | 25    | 160    |
|     | %  | 1.1% | 1.5% | 8.5%  | 6.9%  | 3.3%  | 21.2%  |
| 과학고 | 빈도 | 2    | 6    | 42    | 73    | 23    | 146    |
|     | %  | .3%  | .8%  | 5.6%  | 9.7%  | 3.1%  | 19.4%  |
| 전체  | 빈도 | 13   | 35   | 263   | 319   | 124   | 754    |
|     | %  | 1.7% | 4.6% | 34.9% | 42.3% | 16.4% | 100.0% |

$$\chi^2 = 51.452, P < .001$$

학교급\*문98-1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6     | 23    | 3     | 4    | 39     |
|     | %  | .4%  | .8%   | 3.1%  | .4%   | .5%  | 5.2%   |
| 대안B | 빈도 | 3    | 5     | 23    | 16    | 1    | 48     |
|     | %  | .4%  | .7%   | 3.1%  | 2.1%  | .1%  | 6.4%   |
| 대안C | 빈도 | 1    | 1     | 15    | 19    | 6    | 42     |
|     | %  | .1%  | .1%   | 2.0%  | 2.5%  | .8%  | 5.6%   |
| 인문고 | 빈도 | 24   | 62    | 139   | 74    | 21   | 320    |
|     | %  | 3.2% | 8.2%  | 18.4% | 9.8%  | 2.8% | 42.4%  |
| 실업고 | 빈도 | 9    | 18    | 86    | 33    | 13   | 159    |
|     | %  | 1.2% | 2.4%  | 11.4% | 4.4%  | 1.7% | 21.1%  |
| 과학고 | 빈도 | 9    | 18    | 42    | 49    | 28   | 146    |
|     | %  | 1.2% | 2.4%  | 5.6%  | 6.5%  | 3.7% | 19.4%  |
| 전체  | 빈도 | 49   | 110   | 328   | 194   | 73   | 754    |
|     | %  | 6.5% | 14.6% | 43.5% | 25.7% | 9.7% | 100.0% |

$$\chi^2 = 66.846, P < .001$$

학교급\*문98-2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5    | 11    | 14    | 7     | 39     |
|     | %  | .3%  | .7%  | 1.5%  | 1.9%  | .9%   | 5.2%   |
| 대안B | 빈도 | 3    | 3    | 18    | 18    | 6     | 48     |
|     | %  | .4%  | .4%  | 2.4%  | 2.4%  | .8%   | 6.4%   |
| 대안C | 빈도 | 2    | 5    | 5     | 18    | 12    | 42     |
|     | %  | .3%  | .7%  | .7%   | 2.4%  | 1.6%  | 5.6%   |
| 인문고 | 빈도 | 5    | 43   | 100   | 107   | 65    | 320    |
|     | %  | .7%  | 5.7% | 13.3% | 14.2% | 8.6%  | 42.4%  |
| 실업고 | 빈도 | 8    | 8    | 57    | 60    | 26    | 159    |
|     | %  | 1.1% | 1.1% | 7.6%  | 8.0%  | 3.4%  | 21.1%  |
| 과학고 | 빈도 | 4    | 10   | 33    | 59    | 40    | 146    |
|     | %  | .5%  | 1.3% | 4.4%  | 7.8%  | 5.3%  | 19.4%  |
| 전체  | 빈도 | 24   | 74   | 224   | 276   | 156   | 754    |
|     | %  | 3.2% | 9.8% | 29.7% | 36.6% | 20.7% | 100.0% |

$$\chi^2 = 36.933, P < .05$$

학교급\*문98-4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9     | 13    | 10    | 5     | 39     |
|     | %  | .3%  | 1.2%  | 1.7%  | 1.3%  | .7%   | 5.2%   |
| 대안B | 빈도 | 5    | 11    | 18    | 11    | 2     | 47     |
|     | %  | .7%  | 1.5%  | 2.4%  | 1.5%  | .3%   | 6.2%   |
| 대안C | 빈도 |      | 9     | 7     | 19    | 7     | 42     |
|     | %  |      | 1.2%  | .9%   | 2.5%  | .9%   | 5.6%   |
| 인문고 | 빈도 | 21   | 133   | 73    | 69    | 24    | 320    |
|     | %  | 2.8% | 17.7% | 9.7%  | 9.2%  | 3.2%  | 42.5%  |
| 실업고 | 빈도 | 12   | 39    | 58    | 29    | 21    | 159    |
|     | %  | 1.6% | 5.2%  | 7.7%  | 3.9%  | 2.8%  | 21.1%  |
| 과학고 | 빈도 | 12   | 44    | 34    | 36    | 20    | 146    |
|     | %  | 1.6% | 5.8%  | 4.5%  | 4.8%  | 2.7%  | 19.4%  |
| 전체  | 빈도 | 52   | 245   | 203   | 174   | 79    | 753    |
|     | %  | 6.9% | 32.5% | 27.0% | 23.1% | 10.5% | 100.0% |

$$\chi^2 = 52.285, P < .001$$

학교급\*문98-5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5     | 9     | 11    | 11    | 39     |
|     | %  | .4%  | .7%   | 1.2%  | 1.5%  | 1.5%  | 5.2%   |
| 대안B | 빈도 | 3    | 2     | 16    | 19    | 8     | 48     |
|     | %  | .4%  | .3%   | 2.1%  | 2.5%  | 1.1%  | 6.4%   |
| 대안C | 빈도 | 3    | 3     | 7     | 18    | 11    | 42     |
|     | %  | .4%  | .4%   | .9%   | 2.4%  | 1.5%  | 5.6%   |
| 인문고 | 빈도 | 13   | 52    | 100   | 91    | 64    | 320    |
|     | %  | 1.7% | 6.9%  | 13.3% | 12.1% | 8.5%  | 42.4%  |
| 실업고 | 빈도 | 17   | 17    | 51    | 42    | 32    | 159    |
|     | %  | 2.3% | 2.3%  | 6.8%  | 5.6%  | 4.2%  | 21.1%  |
| 과학고 | 빈도 | 7    | 8     | 39    | 50    | 42    | 146    |
|     | %  | .9%  | 1.1%  | 5.2%  | 6.6%  | 5.6%  | 19.4%  |
| 전체  | 빈도 | 46   | 87    | 222   | 231   | 168   | 754    |
|     | %  | 6.1% | 11.5% | 29.4% | 30.6% | 22.3% | 100.0% |

$$\chi^2 = 37.295, P < .05$$

학교급\*문98-6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4    | 9     | 7     | 14    | 5     | 39     |
|     | %  | .5%  | 1.2%  | .9%   | 1.9%  | .7%   | 5.2%   |
| 대안B | 빈도 | 4    | 8     | 19    | 17    |       | 48     |
|     | %  | .5%  | 1.1%  | 2.5%  | 2.3%  |       | 6.4%   |
| 대안C | 빈도 | 3    | 6     | 14    | 12    | 7     | 42     |
|     | %  | .4%  | .8%   | 1.9%  | 1.6%  | .9%   | 5.6%   |
| 인문고 | 빈도 | 19   | 78    | 117   | 82    | 23    | 319    |
|     | %  | 2.5% | 10.4% | 15.5% | 10.9% | 3.1%  | 42.4%  |
| 실업고 | 빈도 | 8    | 24    | 65    | 43    | 19    | 159    |
|     | %  | 1.1% | 3.2%  | 8.6%  | 5.7%  | 2.5%  | 21.1%  |
| 과학고 | 빈도 | 6    | 23    | 48    | 48    | 21    | 146    |
|     | %  | .8%  | 3.1%  | 6.4%  | 6.4%  | 2.8%  | 19.4%  |
| 전체  | 빈도 | 44   | 148   | 270   | 216   | 75    | 753    |
|     | %  | 5.8% | 19.7% | 35.9% | 28.7% | 10.0% | 100.0% |

$$\chi^2 = 32.188, P < .05$$

학교급\*문98-7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 5     | 9     | 16    | 9     | 39     |
|     | %  |      | .7%   | 1.2%  | 2.1%  | 1.2%  | 5.2%   |
| 대안B | 빈도 | 2    | 4     | 14    | 20    | 8     | 48     |
|     | %  | .3%  | .5%   | 1.9%  | 2.7%  | 1.1%  | 6.4%   |
| 대안C | 빈도 |      | 1     | 11    | 15    | 15    | 42     |
|     | %  |      | .1%   | 1.5%  | 2.0%  | 2.0%  | 5.6%   |
| 인문고 | 빈도 | 8    | 48    | 94    | 117   | 52    | 319    |
|     | %  | 1.1% | 6.4%  | 12.5% | 15.5% | 6.9%  | 42.4%  |
| 실업고 | 빈도 | 4    | 16    | 59    | 56    | 24    | 159    |
|     | %  | .5%  | 2.1%  | 7.8%  | 7.4%  | 3.2%  | 21.1%  |
| 과학고 | 빈도 | 6    | 8     | 38    | 57    | 37    | 146    |
|     | %  | .8%  | 1.1%  | 5.0%  | 7.6%  | 4.9%  | 19.4%  |
| 전체  | 빈도 | 20   | 82    | 225   | 281   | 145   | 753    |
|     | %  | 2.7% | 10.9% | 29.9% | 37.3% | 19.3% | 100.0% |

$$\chi^2 = 33.201, P < .05$$

학교급\*문98-9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 2     | 12    | 19    | 6     | 39     |
|     | %  |      | .3%   | 1.6%  | 2.5%  | .8%   | 5.2%   |
| 대안B | 빈도 | 1    | 4     | 31    | 11    | 1     | 48     |
|     | %  | .1%  | .5%   | 4.1%  | 1.5%  | .1%   | 6.4%   |
| 대안C | 빈도 | 3    | 5     | 14    | 13    | 7     | 42     |
|     | %  | .4%  | .7%   | 1.9%  | 1.7%  | .9%   | 5.6%   |
| 인문고 | 빈도 | 12   | 46    | 125   | 112   | 23    | 318    |
|     | %  | 1.6% | 6.1%  | 16.6% | 14.9% | 3.1%  | 42.3%  |
| 실업고 | 빈도 | 6    | 13    | 75    | 47    | 18    | 159    |
|     | %  | .8%  | 1.7%  | 10.0% | 6.3%  | 2.4%  | 21.1%  |
| 과학고 | 빈도 | 4    | 10    | 65    | 45    | 22    | 146    |
|     | %  | .5%  | 1.3%  | 8.6%  | 6.0%  | 2.9%  | 19.4%  |
| 전체  | 빈도 | 26   | 80    | 322   | 247   | 77    | 752    |
|     | %  | 3.5% | 10.6% | 42.8% | 32.8% | 10.2% | 100.0% |

$$\chi^2 = 39.382, P < .01$$

학교급\*문98-10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4     | 19    | 11    | 2    | 39     |
|     | %  | .4%  | .5%   | 2.5%  | 1.5%  | .3%  | 5.2%   |
| 대안B | 빈도 | 3    | 10    | 29    | 6     |      | 48     |
|     | %  | .4%  | 1.3%  | 3.9%  | .8%   |      | 6.4%   |
| 대안C | 빈도 | 2    | 3     | 24    | 10    | 3    | 42     |
|     | %  | .3%  | .4%   | 3.2%  | 1.3%  | .4%  | 5.6%   |
| 인문고 | 빈도 | 9    | 38    | 177   | 83    | 10   | 317    |
|     | %  | 1.2% | 5.1%  | 23.6% | 11.1% | 1.3% | 42.2%  |
| 실업고 | 빈도 | 7    | 24    | 94    | 26    | 8    | 159    |
|     | %  | .9%  | 3.2%  | 12.5% | 3.5%  | 1.1% | 21.2%  |
| 과학고 | 빈도 | 6    | 18    | 67    | 39    | 16   | 146    |
|     | %  | .8%  | 2.4%  | 8.9%  | 5.2%  | 2.1% | 19.4%  |
| 전체  | 빈도 | 30   | 97    | 410   | 175   | 39   | 751    |
|     | %  | 4.0% | 12.9% | 54.6% | 23.3% | 5.2% | 100.0% |

$$\chi^2 = 33.563, P < .05$$

학교급\*문98-12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    | 12    | 13    | 8     | 5     | 39     |
|     | %  | .1%  | 1.6%  | 1.7%  | 1.1%  | .7%   | 5.2%   |
| 대안B | 빈도 | 2    | 13    | 22    | 8     | 3     | 48     |
|     | %  | .3%  | 1.7%  | 2.9%  | 1.1%  | .4%   | 6.4%   |
| 대안C | 빈도 | 1    | 11    | 15    | 7     | 8     | 42     |
|     | %  | .1%  | 1.5%  | 2.0%  | .9%   | 1.1%  | 5.6%   |
| 인문고 | 빈도 | 20   | 105   | 95    | 67    | 32    | 319    |
|     | %  | 2.7% | 13.9% | 12.6% | 8.9%  | 4.2%  | 42.4%  |
| 실업고 | 빈도 | 7    | 27    | 70    | 38    | 17    | 159    |
|     | %  | .9%  | 3.6%  | 9.3%  | 5.0%  | 2.3%  | 21.1%  |
| 과학고 | 빈도 | 10   | 36    | 40    | 41    | 19    | 146    |
|     | %  | 1.3% | 4.8%  | 5.3%  | 5.4%  | 2.5%  | 19.4%  |
| 전체  | 빈도 | 41   | 204   | 255   | 169   | 84    | 753    |
|     | %  | 5.4% | 27.1% | 33.9% | 22.4% | 11.2% | 100.0% |

$$\chi^2 = 31.762, P < .05$$

학교급\*문98-13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4    | 9     | 16    | 10    |      | 39     |
|     | %  | .5%  | 1.2%  | 2.1%  | 1.3%  |      | 5.2%   |
| 대안B | 빈도 | 1    | 12    | 24    | 10    | 1    | 48     |
|     | %  | .1%  | 1.6%  | 3.2%  | 1.3%  | .1%  | 6.4%   |
| 대안C | 빈도 |      | 18    | 11    | 9     | 3    | 41     |
|     | %  |      | 2.4%  | 1.5%  | 1.2%  | .4%  | 5.4%   |
| 인문고 | 빈도 | 9    | 111   | 113   | 74    | 12   | 319    |
|     | %  | 1.2% | 14.7% | 15.0% | 9.8%  | 1.6% | 42.4%  |
| 실업고 | 빈도 | 7    | 52    | 67    | 28    | 6    | 160    |
|     | %  | .9%  | 6.9%  | 8.9%  | 3.7%  | .8%  | 21.2%  |
| 과학고 | 빈도 | 12   | 52    | 41    | 29    | 12   | 146    |
|     | %  | 1.6% | 6.9%  | 5.4%  | 3.9%  | 1.6% | 19.4%  |
| 전체  | 빈도 | 33   | 254   | 272   | 160   | 34   | 753    |
|     | %  | 4.4% | 33.7% | 36.1% | 21.2% | 4.5% | 100.0% |

$$\chi^2 = 34.308, P < .05$$

학교급\*문98-14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9     | 11    | 12    | 5     | 39     |
|     | %  | .3%  | 1.2%  | 1.5%  | 1.6%  | .7%   | 5.2%   |
| 대안B | 빈도 | 2    | 11    | 25    | 7     | 3     | 48     |
|     | %  | .3%  | 1.5%  | 3.3%  | .9%   | .4%   | 6.4%   |
| 대안C | 빈도 | 2    | 15    | 10    | 8     | 6     | 41     |
|     | %  | .3%  | 2.0%  | 1.3%  | 1.1%  | .8%   | 5.5%   |
| 인문고 | 빈도 | 6    | 57    | 88    | 115   | 53    | 319    |
|     | %  | .8%  | 7.6%  | 11.7% | 15.3% | 7.0%  | 42.4%  |
| 실업고 | 빈도 | 5    | 23    | 59    | 50    | 22    | 159    |
|     | %  | .7%  | 3.1%  | 7.8%  | 6.6%  | 2.9%  | 21.1%  |
| 과학고 | 빈도 | 5    | 32    | 45    | 52    | 12    | 146    |
|     | %  | .7%  | 4.3%  | 6.0%  | 6.9%  | 1.6%  | 19.4%  |
| 전체  | 빈도 | 22   | 147   | 238   | 244   | 101   | 752    |
|     | %  | 2.9% | 19.5% | 31.6% | 32.4% | 13.4% | 100.0% |

$$\chi^2 = 38.647, P < .01$$

학교급\*문98-15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13    | 11    | 13    |      | 39     |
|     | %  | .3%  | 1.7%  | 1.5%  | 1.7%  |      | 5.2%   |
| 대안B | 빈도 | 2    | 13    | 20    | 11    | 2    | 48     |
|     | %  | .3%  | 1.7%  | 2.7%  | 1.5%  | .3%  | 6.4%   |
| 대안C | 빈도 | 3    | 20    | 9     | 7     | 2    | 41     |
|     | %  | .4%  | 2.7%  | 1.2%  | .9%   | .3%  | 5.5%   |
| 인문고 | 빈도 | 13   | 90    | 88    | 97    | 31   | 319    |
|     | %  | 1.7% | 12.0% | 11.7% | 12.9% | 4.1% | 42.4%  |
| 실업고 | 빈도 | 10   | 33    | 53    | 45    | 18   | 159    |
|     | %  | 1.3% | 4.4%  | 7.0%  | 6.0%  | 2.4% | 21.1%  |
| 과학고 | 빈도 | 10   | 56    | 45    | 28    | 7    | 146    |
|     | %  | 1.3% | 7.4%  | 6.0%  | 3.7%  | .9%  | 19.4%  |
| 전체  | 빈도 | 40   | 225   | 226   | 201   | 60   | 752    |
|     | %  | 5.3% | 29.9% | 30.1% | 26.7% | 8.0% | 100.0% |

$\chi^2 = 36.997, P < .05$

학교급\*문98-17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    | 4     | 12    | 17    | 5     | 39     |
|     | %  | .1%  | .5%   | 1.6%  | 2.3%  | .7%   | 5.2%   |
| 대안B | 빈도 | 1    | 7     | 19    | 19    | 2     | 48     |
|     | %  | .1%  | .9%   | 2.5%  | 2.5%  | .3%   | 6.4%   |
| 대안C | 빈도 | 2    | 13    | 12    | 10    | 4     | 41     |
|     | %  | .3%  | 1.7%  | 1.6%  | 1.3%  | .5%   | 5.5%   |
| 인문고 | 빈도 | 8    | 37    | 77    | 151   | 46    | 319    |
|     | %  | 1.1% | 4.9%  | 10.2% | 20.1% | 6.1%  | 42.4%  |
| 실업고 | 빈도 | 1    | 23    | 55    | 46    | 34    | 159    |
|     | %  | .1%  | 3.1%  | 7.3%  | 6.1%  | 4.5%  | 21.1%  |
| 과학고 | 빈도 | 6    | 28    | 45    | 53    | 14    | 146    |
|     | %  | .8%  | 3.7%  | 6.0%  | 7.0%  | 1.9%  | 19.4%  |
| 전체  | 빈도 | 19   | 112   | 220   | 296   | 105   | 752    |
|     | %  | 2.5% | 14.9% | 29.3% | 39.4% | 14.0% | 100.0% |

$\chi^2 = 48.030, P < .001$

학교급\*문98-18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1    | 7     | 8     | 17    | 6    | 39     |
|     | %  | .1%  | .9%   | 1.1%  | 2.3%  | .8%  | 5.2%   |
| 대안B | 빈도 | 2    | 9     | 17    | 18    | 2    | 48     |
|     | %  | .3%  | 1.2%  | 2.3%  | 2.4%  | .3%  | 6.4%   |
| 대안C | 빈도 | 1    | 15    | 12    | 9     | 4    | 41     |
|     | %  | .1%  | 2.0%  | 1.6%  | 1.2%  | .5%  | 5.5%   |
| 인문고 | 빈도 | 18   | 102   | 89    | 92    | 18   | 319    |
|     | %  | 2.4% | 13.6% | 11.9% | 12.3% | 2.4% | 42.5%  |
| 실업고 | 빈도 | 6    | 37    | 63    | 37    | 16   | 159    |
|     | %  | .8%  | 4.9%  | 8.4%  | 4.9%  | 2.1% | 21.2%  |
| 과학고 | 빈도 | 12   | 57    | 44    | 24    | 8    | 145    |
|     | %  | 1.6% | 7.6%  | 5.9%  | 3.2%  | 1.1% | 19.3%  |
| 전체  | 빈도 | 40   | 227   | 233   | 197   | 54   | 751    |
|     | %  | 5.3% | 30.2% | 31.0% | 26.2% | 7.2% | 100.0% |

$$\chi^2 = 44.131, P < .01$$

학교급\*문98-19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1     | 15    | 15    | 6    | 39     |
|     | %  | .3%  | .1%   | 2.0%  | 2.0%  | .8%  | 5.2%   |
| 대안B | 빈도 | 2    | 9     | 20    | 11    | 6    | 48     |
|     | %  | .3%  | 1.2%  | 2.7%  | 1.5%  | .8%  | 6.4%   |
| 대안C | 빈도 | 1    | 17    | 12    | 7     | 4    | 41     |
|     | %  | .1%  | 2.3%  | 1.6%  | .9%   | .5%  | 5.5%   |
| 인문고 | 빈도 | 16   | 90    | 115   | 73    | 25   | 319    |
|     | %  | 2.1% | 12.0% | 15.3% | 9.7%  | 3.3% | 42.5%  |
| 실업고 | 빈도 | 7    | 31    | 68    | 34    | 18   | 158    |
|     | %  | .9%  | 4.1%  | 9.1%  | 4.5%  | 2.4% | 21.0%  |
| 과학고 | 빈도 | 11   | 50    | 45    | 27    | 13   | 146    |
|     | %  | 1.5% | 6.7%  | 6.0%  | 3.6%  | 1.7% | 19.4%  |
| 전체  | 빈도 | 39   | 198   | 275   | 167   | 72   | 751    |
|     | %  | 5.2% | 26.4% | 36.6% | 22.2% | 9.6% | 100.0% |

$$\chi^2 = 35.671, P < .05$$



학교급\*문98-25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8     | 13    | 11    | 4     | 39     |
|     | %  | .4%  | 1.1%  | 1.7%  | 1.5%  | .5%   | 5.2%   |
| 대안B | 빈도 | 1    | 3     | 24    | 16    | 4     | 48     |
|     | %  | .1%  | .4%   | 3.2%  | 2.1%  | .5%   | 6.4%   |
| 대안C | 빈도 |      | 3     | 7     | 23    | 8     | 41     |
|     | %  |      | .4%   | .9%   | 3.1%  | 1.1%  | 5.5%   |
| 인문고 | 빈도 | 17   | 69    | 101   | 103   | 29    | 319    |
|     | %  | 2.3% | 9.2%  | 13.4% | 13.7% | 3.9%  | 42.4%  |
| 실업고 | 빈도 | 9    | 33    | 56    | 46    | 15    | 159    |
|     | %  | 1.2% | 4.4%  | 7.4%  | 6.1%  | 2.0%  | 21.1%  |
| 과학고 | 빈도 | 7    | 19    | 43    | 61    | 16    | 146    |
|     | %  | .9%  | 2.5%  | 5.7%  | 8.1%  | 2.1%  | 19.4%  |
| 전체  | 빈도 | 37   | 135   | 244   | 260   | 76    | 752    |
|     | %  | 4.9% | 18.0% | 32.4% | 34.6% | 10.1% | 100.0% |

$$\chi^2 = 37.920, P < .01$$

학교급\*문98-28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10    | 15    | 10    | 1    | 39     |
|     | %  | .4%  | 1.3%  | 2.0%  | 1.3%  | .1%  | 5.2%   |
| 대안B | 빈도 | 2    | 6     | 24    | 14    | 2    | 48     |
|     | %  | .3%  | .8%   | 3.2%  | 1.9%  | .3%  | 6.4%   |
| 대안C | 빈도 | 4    | 13    | 14    | 9     | 1    | 41     |
|     | %  | .5%  | 1.7%  | 1.9%  | 1.2%  | .1%  | 5.5%   |
| 인문고 | 빈도 | 9    | 53    | 116   | 122   | 19   | 319    |
|     | %  | 1.2% | 7.1%  | 15.4% | 16.2% | 2.5% | 42.5%  |
| 실업고 | 빈도 | 3    | 21    | 67    | 52    | 16   | 159    |
|     | %  | .4%  | 2.8%  | 8.9%  | 6.9%  | 2.1% | 21.2%  |
| 과학고 | 빈도 | 8    | 21    | 42    | 64    | 10   | 145    |
|     | %  | 1.1% | 2.8%  | 5.6%  | 8.5%  | 1.3% | 19.3%  |
| 전체  | 빈도 | 29   | 124   | 278   | 271   | 49   | 751    |
|     | %  | 3.9% | 16.5% | 37.0% | 36.1% | 6.5% | 100.0% |

$$\chi^2 = 37.541, P < .05$$

학교급\*문98-29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2    | 9     | 16    | 9     | 3     | 39     |
|     | %  | .3%  | 1.2%  | 2.1%  | 1.2%  | .4%   | 5.2%   |
| 대안B | 빈도 | 3    | 2     | 27    | 14    | 2     | 48     |
|     | %  | .4%  | .3%   | 3.6%  | 1.9%  | .3%   | 6.4%   |
| 대안C | 빈도 | 9    | 17    | 7     | 6     | 2     | 41     |
|     | %  | 1.2% | 2.3%  | .9%   | .8%   | .3%   | 5.5%   |
| 인문고 | 빈도 | 6    | 35    | 99    | 140   | 38    | 318    |
|     | %  | .8%  | 4.7%  | 13.2% | 18.6% | 5.1%  | 42.3%  |
| 실업고 | 빈도 | 6    | 23    | 62    | 48    | 20    | 159    |
|     | %  | .8%  | 3.1%  | 8.3%  | 6.4%  | 2.7%  | 21.2%  |
| 과학고 | 빈도 | 6    | 18    | 23    | 78    | 21    | 146    |
|     | %  | .8%  | 2.4%  | 3.1%  | 10.4% | 2.8%  | 19.4%  |
| 전체  | 빈도 | 32   | 104   | 234   | 295   | 86    | 751    |
|     | %  | 4.3% | 13.8% | 31.2% | 39.3% | 11.5% | 100.0% |

$$\chi^2 = 121.473, P < .001$$

학교급\*문98-30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3    | 6     | 12    | 14    | 4    | 39     |
|     | %  | .4%  | .8%   | 1.6%  | 1.9%  | .5%  | 5.2%   |
| 대안B | 빈도 | 3    | 6     | 17    | 22    |      | 48     |
|     | %  | .4%  | .8%   | 2.3%  | 2.9%  |      | 6.4%   |
| 대안C | 빈도 | 4    | 16    | 11    | 10    |      | 41     |
|     | %  | .5%  | 2.1%  | 1.5%  | 1.3%  |      | 5.5%   |
| 인문고 | 빈도 | 12   | 53    | 95    | 130   | 29   | 319    |
|     | %  | 1.6% | 7.1%  | 12.6% | 17.3% | 3.9% | 42.5%  |
| 실업고 | 빈도 | 8    | 15    | 64    | 54    | 17   | 158    |
|     | %  | 1.1% | 2.0%  | 8.5%  | 7.2%  | 2.3% | 21.0%  |
| 과학고 | 빈도 | 4    | 26    | 44    | 54    | 18   | 146    |
|     | %  | .5%  | 3.5%  | 5.9%  | 7.2%  | 2.4% | 19.4%  |
| 전체  | 빈도 | 34   | 122   | 243   | 284   | 68   | 751    |
|     | %  | 4.5% | 16.2% | 32.4% | 37.8% | 9.1% | 100.0% |

$$\chi^2 = 42.554, P < .01$$

학교급\*문98-32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4    | 12    | 18    | 4     | 1    | 39     |
|     | %  | .5%  | 1.6%  | 2.4%  | .5%   | .1%  | 5.2%   |
| 대안B | 빈도 | 5    | 19    | 16    | 7     | 1    | 48     |
|     | %  | .7%  | 2.5%  | 2.1%  | .9%   | .1%  | 6.4%   |
| 대안C | 빈도 | 7    | 11    | 13    | 7     | 3    | 41     |
|     | %  | .9%  | 1.5%  | 1.7%  | .9%   | .4%  | 5.5%   |
| 인문고 | 빈도 | 15   | 101   | 110   | 75    | 18   | 319    |
|     | %  | 2.0% | 13.4% | 14.6% | 10.0% | 2.4% | 42.4%  |
| 실업고 | 빈도 | 9    | 34    | 66    | 34    | 16   | 159    |
|     | %  | 1.2% | 4.5%  | 8.8%  | 4.5%  | 2.1% | 21.1%  |
| 과학고 | 빈도 | 8    | 32    | 48    | 49    | 9    | 146    |
|     | %  | 1.1% | 4.3%  | 6.4%  | 6.5%  | 1.2% | 19.4%  |
| 전체  | 빈도 | 48   | 209   | 271   | 176   | 48   | 752    |
|     | %  | 6.4% | 27.8% | 36.0% | 23.4% | 6.4% | 100.0% |

$$\chi^2 = 40.877, P < .01$$

학교급\*문98-33

|     |    | 1    | 2     | 3     | 4     | 5    | 전체     |
|-----|----|------|-------|-------|-------|------|--------|
| 대안A | 빈도 | 5    | 15    | 11    | 4     | 4    | 39     |
|     | %  | .7%  | 2.0%  | 1.5%  | .5%   | .5%  | 5.2%   |
| 대안B | 빈도 | 3    | 13    | 21    | 11    |      | 48     |
|     | %  | .4%  | 1.7%  | 2.8%  | 1.5%  |      | 6.4%   |
| 대안C | 빈도 | 8    | 16    | 13    | 4     |      | 41     |
|     | %  | 1.1% | 2.1%  | 1.7%  | .5%   |      | 5.5%   |
| 인문고 | 빈도 | 14   | 91    | 139   | 61    | 14   | 319    |
|     | %  | 1.9% | 12.1% | 18.5% | 8.1%  | 1.9% | 42.4%  |
| 실업고 | 빈도 | 13   | 40    | 72    | 25    | 9    | 159    |
|     | %  | 1.7% | 5.3%  | 9.6%  | 3.3%  | 1.2% | 21.1%  |
| 과학고 | 빈도 | 14   | 44    | 51    | 30    | 7    | 146    |
|     | %  | 1.9% | 5.9%  | 6.8%  | 4.0%  | .9%  | 19.4%  |
| 전체  | 빈도 | 57   | 219   | 307   | 135   | 34   | 752    |
|     | %  | 7.6% | 29.1% | 40.8% | 18.0% | 4.5% | 100.0% |

$$\chi^2 = 35.059, P < .05$$

## &lt;부록 3&gt; 참여관찰 기록표

\* 서울의 6 개 지역별 대표적인 사례만 실례로 제시하도록 한다.

## ■ 서울 돈암동

(조사시간 : 2000. 9. 24(일) 14:00-16:00

날씨 : 맑음)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  | 남: 베이지 색의 체크 긴 남방을 열어서 입었으며 안에 흰 라운드 티를 입고, 힙합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음. 운동화를 신고 등에 짊을 맴.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프리로 통화를 하면서 걸어 감.                            |
| 2  | 남: 베이지 색 니트를 손등이 덮히도록 크게 입었으며, 까만색 진바지를 힙합스타일로 입음. 집게 손가락을 보이면서 춤을 춤.                                                                   |
| 3  | 여: 베이지 색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체크 무늬의 남방을 입음. 한쪽으로 매는 가방을 맴. 함께 가는 여자친구와 장난을 친.                                                                 |
| 4  | 여: 군인이 입는 개구리 무늬의 티셔츠를 입음. 짧은 머리에 화장은 하지 않고 볼록한 이스트 가방(하늘색)을 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었으며 동행하는 남자친구가 춤추는 것을 보고 따라 함. 양말을 신지 않음.                    |
| 5  | 여1: 야구 모자를 쓰고 흰색 티셔츠에 초록색 니트 조끼를 입고, 힙합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음. 단발머리에 음료수를 마시며 걸어 감. 가방은 매지 않았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자를 꼭 눌러 씌.                        |
| 6  | 여2: 여학생1과 마찬가지로 야구 모자를 쓰고 반팔 분홍색 티셔츠를 입음. 힙합 스타일의 청바지에 자기 발보다 큰 흰 운동화를 신음. 위의 여학생과 동일한 음료수를 마시며, 모자를 눈이 보이지 않게 눌러 씌.                    |
| 7  | 남: 노랑색으로 염색을 하고, 모자가 달린 츄리닝 옷을 열어서 입고, 운동화에 흰양말을 신었으며 남색 먼 반바지를 입음. 옷을 잡아 주머니에 두꺼운 주황색의 야광 핸드폰 목걸이 줄을 길게 매달아 보이게 함.                     |
| 8  | 여1: 가방을 매지 않고 끝이 뾰족한 베이지 색 구두를 신고 하늘 색 니트를 입음. 머리를 노랑게 염색을 하였으며 단발머리임.                                                                  |
| 9  | 여2: 검정으로 염색한 어깨 길이의 머리를 풀었으며, 츄리닝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주황색의 검정 뿔테 썬글라스를 낀. 가방을 매지 않고 여1과 같은 구두를 신음.<br>*여1이 여2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2는 여1의 허리를 감싸고 걸어감 |
| 10 | 남: 머리에 흰색 두건을 두점으로 하여 길게 쓰고, 회색 면티에 두꺼운 은 목걸이를 함. 베이지색 먼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오른손에 담배를 쥐고 길거리에서 춤을 댄으며 머리를 숙이고 걸어 감.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1 | 여1: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음 (곰창머리).<br>하늘색 줄무늬 폴로 남방에 청바지를 입음 (남방을 밖으로 내어 입음).                                                             |
| 12 | 여2: 긴 머리를 반으로 나누어 핀으로 꽂음. 여1과 똑같은 옷을 입음.                                                                                         |
| 13 | 남1: 머리를 노랑색으로 염색을 하고, 흰색 남방을 단추를 열고 입음.<br>흰색 면바지와 운동화를 신음.<br>*여1과 어깨를 감싸고 걸음.                                                  |
| 14 | 남2: 청바지에 베이지 색 남방을 입음. 짧은 스포츠 머리에 흰색 운동화를 신음.<br>*여2의 어깨를 감싸고 여2는 남2의 허리를 안고 걸어 감.                                               |
| 15 | 여1: 흰색 먼티(긴팔)를 입고 단발머리에 한쪽 손에 청자켓을 들고 긴 회색<br>츄리닝 치마를 입음. 양말을 신지 않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프라다 검은 색<br>을 맨                                   |
| 16 | 여2: 가운데 가르마를 탄 단발머리에 눈썹을 위로 올라간 듯이 그렸으며,<br>검정색 박스 반 팔 티를 입고 힙합 청바지를 입음. 검정색 책을 메고 있음.<br>*여1이랑 팔짱을 끼고 쇼윈도에 모습을 비추어보며 차림새를 가다듬음. |
| 17 | 남1: 쥐색의 캐주얼 양복을 입고 안에 흰 먼티를 입음. 밀리오레 쇼핑백을<br>들고 금목걸이를 먼티위로 나오게 하고 있음.<br>빨강색의 끝이 뾰족한 구두가 눈에 띈.                                   |
| 18 | 남2: 베이지색의 남방과 남색 면바지를 입고 단화를 신고 머리에 무스를 발<br>라 넘김. 파랑색의 색이 있는 안경을 쓰고 밀리오레 쇼핑백을 들음.                                               |
| 19 | 남3: 쥐색 캐주얼 양복을 입고 안에는 흰색 남방을 입음. 밤색의 끝이 뾰족<br>한 구두를 신고 쇼핑백을 들음.                                                                  |
| 20 | 남4: 먼티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갈색 단화를 신음.<br>*남1, 2, 3이 한줄로 걷고 남4가 1, 2, 3의 쇼핑백을 들여다 봄                                                     |
| 21 | 여: 옆가르마를 타고 뒷머리를 빨강색 끈으로 묶음. 검정색 먼티에 남색 반<br>바지를 입음. 슬리퍼를 신고 길거리에 침을 뱉으며 걸어 감.                                                   |
| 22 | 여: 짧은 단발머리에 흰색에 회색 줄무늬 티를 입고 연한 회색 츄리닝 치마<br>를 입음. 여름 샌달을 신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쇼핑백을 들고 감.                                               |
| 23 | 남: 앞머리를 무스로 내리고 헤드셋을 낀.<br>나이키 로고의 회색 먼티를 입고 초록색 루카스 책을 맨. 청바지에 검정 운<br>동화를 신음.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24 | 여1: 단발머리를 옆가르마를 타고 흰색 면티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바지로 운동화를 다 덮음. 은 귀걸이(링)를 하고 머리띠를 함. 갈색 조그만 가방을 맨                          |
| 25 | 여2: 검정색 실핀으로 머리를 다듬고 하나로 리본으로 묶음. 베이지색 니트 티를 입고 면베이지색 바지에 검정색 프라다 가방을 맨. 갈색 단화를 신음, 손에 빗을 들고 다님. *여1과 팔짱을 끼고 다님          |
| 26 | 어깨 길이의 단발머리를 옆가르마를 타고 빨강색 일자핀으로 꽂음. 일자 눈썹을 그림. 초록색 체크 색을 매고 진한 청바지를 베이지색 위커가 덮히게 아주 크게 힙합 스타일로 입음.                       |
| 27 | 남1: 머리를 무스로 다 내림. 하늘색 줄무늬 남방을 입고 청바지에 위커를 신음. 하늘색 줄무늬의 두꺼운 핸드폰 줄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보이게 함.                                      |
| 28 | 여2: 단발머리에 흰색 머리띠를 하고 검정색과 흰색의 바둑무늬의 긴 니트 티를 입고 청바지에 구찌 단화를 신고 양말을 신지 않음. 갈색의 핸드백을 맨                                      |
| 29 | 여1: 검정 단발머리에 검정색 면티를 입고 검정 츠리닝 바지를 입음. 운동화를 신음. 가방을 매지 않고 앞가르마를 타고 흰색 핀을 한쪽만 꽂고 뒷머리를 다 묶음.                               |
| 30 | 여2: 하늘색 남방을 입고 남색 반바지를 입음. 흰운동화를 뒤를 접어 신고 흰색 양말을 신음. 은 귀걸이를 함. 베이지색 가방을 앞으로 맨. *여1과 팔짱을 끼고 걸어감                           |
| 31 | 남1: 하늘색 폴로티를 밖으로 내어 입음. 반바지에 흰색 운동화에 흰색 양말을 신음.                                                                          |
| 32 | 남2: 초록색 면티(Campus 로고)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하늘색 반바지를 입음.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흰색 양말을 신음. *스텝을 밟으며 춤 연습을 함. 남1이 하는 것을 남2, 3이 배움.(골목 안에서) |
| 33 | 남3: 남색과 흰색이 섞인 티를 입고 남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의 츠리닝 바지를 입음. 흰색 프로 스펙스 운동화를 신음. *10분정도 춤을 추다가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춤연습을 함                 |
| 34 | 여1: 옆가르마를 타고 뒷머리를 빨강색 끈으로 묶음. 검정색 면티에 남색 반바지를 입음. 슬리퍼를 신고 길거리에서 침을 뱉으며 걸어 감.                                             |
| 35 | 여2: 짧은 단발머리에 흰색에 회색 줄무늬 티를 입고 연한 회색 츠리닝 치마를 입음. 여름 샌달을 신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쇼핑백을 들고 감.                                          |
| 36 | 남1: 앞머리를 무스로 내리고 헤드셋을 켜. 나이키 로고의 회색 면티를 입고 초록색 루카스 색을 맨, 청바지에 검정 운동화를 신음.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37 | 여1: 커트머리에 파란색 렌즈를 낀, 루카스 초록색 색을 메고 초록색 면티를 입음. 힙합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고 밤색 워커를 신음. 한쪽만 은 귀걸이를 함.(두꺼운 링 귀걸이) |
| 38 | 여2: 단발머리에 면티를 입고 초록색 남방을 입음, 하늘색 힙합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음. 흰 운동화를 크게 신음.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 감                 |
| 39 | 남1: 짧은 스포츠 머리를 무스로 세우고 비버리 무늬의 손가방을 쥐고 빨강색 끝이 뽀족한 구두를 신음. 회색 캐주얼 양복을 입음.                           |
| 40 | 남2: 머리를 무스로 세우고 한쪽에 금으로 된 링 귀걸이를 함. 진한 회색 양복을 입고 빨강색 끝이 뽀족한 구두를 신음. 베이지색의 체크무늬 손가방을 들음.            |
| 41 | 남1: 갈색머리의 단발머리에 청자켓을 입고 찢어진 힙합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음. 베이지색 큰 가방을 뒤로 메고 헤드셋을 낀.                              |
| 42 | 남1: 흰색 면티에 남색 긴바지를 입음. 짧은 스포츠 머리에 한손에 음료수를 들고 있음. 자전거 앞에 앉아 있음.                                    |
| 43 | 남2: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파랑색 면티를 입고 흰색 반바지를 입음. 자전거 뒤에 있음.<br>* 둘이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 봄.              |
| 44 | 여1: 점정 단발머리에 회색 니트 티를 입음. 청바지를 입고 곰인형을 안고 있음. 베이지색 색을 맨.                                           |
| 45 | 여2: 점정 단발머리에 군인 스타일의 자켓과 흰색 반바지를 입음. 남색 실내화를 신고 색을 맨.                                              |
| 46 | 남1: 스포츠 머리를 무스로 발라 세움. 흰색 라운드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함. 옆으로 메는 회색 가방을 맨                          |
| 47 | 여1: 긴 생머리에 남색 라운드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음. 남1을 바라보며 웃음. *남1이 여1의 머리를 만짐                                      |
| 48 | 남1: 머리를 단정히 빗고 회색 라운드 티를 입음. 힙합 스타일의 카키색 면바지를 입음. 베이지색 가방을 한쪽 어깨로 메고 핸드폰으로 전화.                     |
| 49 | 남1: 스포츠 머리에 안경을 끼고 남색 줄무늬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음.                                                         |
| 50 | 남2: 젤을 많이 발라 머리를 세움. 남색 티를 입고 힙합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음. 십자 무늬의 나무로 된 목걸이를 착용. 검정색 색을 어깨에 걸침.                |
| 51 | 남3: 짧은 스포츠 형 머리에 줄무늬 자켓을 입음. 베이지색 반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체크무늬 가방을 맨.                                      |

# ■ 동대문 두산타워 정문

(조사시간 : 2000. 9. 22.(금) 17:30-19:00

날씨 : 맑음)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 | 여: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에 흰색 머리띠. 교복(초록색 체크무늬 치마, 흰셔츠). 상의는 교복위에 베이지색 조끼를 더 입음. 치마는 몸에 달라붙게 입고, 무릎까지 내려오게. 초록색 체크무늬로 된 배낭을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메고있음. 흰색 양말을 신고, 검정색 굵이 3cm 정도 되는 구두. 앞에 가는 쇠로 된 장식이 있음. 휴대폰은 손에 들고, 친구(여자)2명과 이야기하면서 걸어감. |
| 2 | 여: 귀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 가운데 가르마. 연한 갈색으로 염색. 초록색 후드T. 교복치마(회색) 치마 길이가 무릎위로 올라가도록 짧게, 달라붙게 입음. 베이지색 주머니가 2개 달린 배낭. 배낭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도록 메고있음. 흰색양말(루즈삭스)에 굵이 5cm 정도되는 검정색 구두. 휴대폰은 손에 들고, 도넛통을 메고 친구(여자)3명과 핫도그 먹으면서 걸어감.            |
| 3 | 남: 머리는 짧은 스포츠머리. 젤을 발라서 위로 세움. 교복(회색 바지, 흰셔츠). 흰셔츠에 초록색 스웨터를 더 입음. 바지는 달라붙게 잘바지. 흰 직사각형 모형의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메고, 거드랑이에 끼고 있음. 흰색 운동화(앞이 길게). 침을 뱉으면서 친구(남자)3명과 이야기하면서 걸어감. 걷는 발모양이 팔자걸음. 친구들도 모두 교복바지가 잘바지.                   |
| 4 | 여: 머리는 뒤로 하나로 묶고, 큐빅이 박힌 직사각형 핀을 옆에 꽂음. 교복(회색 치마에 흰셔츠, 회색 조끼). 가방에 곤색 가디건을 끼어놓고 있음. 초록색 체크무늬 배낭. 흰색 양말에 굵이 5cm정도되는 검정색 구두. 쇼핑백을 2개들고, 친구(여자1)와 손을 잡고 걸어감.                                                                |
| 5 | 남: 쥐수머리처럼 짧은 머리(거의 1cm가 못되게). 은색 귀걸이를 한쪽만 하고 있음. 교복(흰색 셔츠에 회색바지). 흰색 셔츠위에 흰색 조끼를 입음. 팔짱을 끼고 있음. 흰색 발목까지 오는 농구화(FILA). 검정색 배낭을 목까지 바짝 메고, 8자 걸음. 친구(남자2)와 걸어감.                                                            |
| 6 | 남: 곤색 야구모자를 뒤로 쓰고, 연한색 선글라스. 금색 귀걸이를 한쪽 귀에만. 주황색 T셔츠. 빨강색 체크무늬 남방을 단추를 다 풀어놓음.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 한손은 쇼핑백을 2개 들고 있음. 한 손은 여자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서로 얘기하면서 걸어감.                                                                      |
| 7 | 여: 흰색 집게 핀을 꽂고, 다시 하나로 묶어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 귀걸이(은색). 교복(자주색 자켓, 흰색 셔츠 치마는 자주색 체크무늬) 흰색 양말에 굵이 3cm 정도 되는 빨간색 구두(앞이 길게). 검정색 배낭(EAST PAK). 한 손에는 쇼핑백, 한 손은 친구(여자1명)손은 잡고 얘기하면서 걸어감.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8  | 여: 어깨에서 5cm 정도 내려오는 생머리를 집게편으로 반만 꽃고, 나머지는 풀어놓음. 흰색 T셔츠에 하늘색 7부 남방을 단추를 모두 풀어서 입음. 검정색 청바지. 흰색 운동화(앞이 길게) 쇼핑백을 하나 들고 엄마와 손잡고 서로 얘기하면서 걸어감.                                                                                         |
| 9  | 남: 스포츠머리를 젤을 발라서 위로 세움. 파란색 안경테. 흰색 T셔츠에 검정색 체크무늬 남방. 남방을 팔꿈치까지 접어서 올림. 검정색 면바지. 흰색 운동화(앞이 길게). 친구(남자2명)와 얘기하면서 팔을 계속 올림.                                                                                                          |
| 10 | 남: 곤색 모자를 쓰고, 왼쪽에만 은색 귀걸이. 흰색 반팔 T셔츠에 수박색 조끼를 입음. 곤색 반바지. 버버리 무늬 직사각형 가방을 사선으로 맨. 흰색 양말에 곤색 구두. 한손은 여자친구(교복입음) 손을 잡고, 한손은 쇼핑백 2개를 들고 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곤색으로 맞추어서 입음)                                                                   |
| 11 | 여: 연한 갈색으로 염색. 하나로 묶어서 흰색 곱창으로 묶어서 올림. 하늘색 남방에 수박색 조끼를 더 입음. 청바지를 밑에서 5cm 정도 접어서 입음. 흰색 구두(앞이 뾰족하게) 페이지색 주머니 2개달린 배낭. 한손에 우산을 들고, 뜨개질한 휴대폰 케이스를 사선으로 메고 있음. 친구(여자1명)와 팔짱을 끼고 얘기하면서 걸어감. 입술에 립글로오스를 발라 반짝임.                         |
| 12 | 여: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해서 가늘고 긴 큐빅 편을 하나 꽃음. 상의는 7부, 하의는 9부인 검정색 정장. 화장을 함(눈썹 그리고 마스크라, 아이라인. 입술은 립글로오스) 5cm 정도되고 앞에 리본이 달린 검정색 구두. 한손은 휴대폰을 들고, 한손에는 검정색 손가방을 들고있음. 친구(여자1명)과 함께 서있음. 친구도 역시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있음. |
| 13 | 남: 검정색 야구모자를 앞으로 푹 눌러쓰고 있음. 교복(회색 치마에 가로줄 무늬 셔츠). 교복위에 곤색 가디건을 더 입음. 흰색 운동화(앞이 여유가 있게) 흰색 주머니가 2개 달린 배낭을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메고있음. 자주색 시계를 차고 한 손은 주머니에 한 손은 친구(여자)머리를 만지고 있음. 친구(여자2명)와 걸어가면서.                                             |
| 14 | 여: 어깨에서 7cm 정도 내려오는 긴 생머리.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함. 교복(체크무늬 치마와 흰색 셔츠, 곤색 조끼) 흰색 양말에 굵이 3cm정도 되는 갈색 구두. 검정색 배낭을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메고. 휴대폰을 들고, 한 손은 친구(여자)손을 잡고. 친구(여자6명)와 두 줄로 서서 걸어감. 친구들 모두 교복을 입고 긴 생머리.                                        |
| 15 | 여: 갈색 머리띠를 하고, 목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앞머리는 젤을 발라 옆으로 붙임(갸웃머리). 흰색 T셔츠를 입고, 그위에 회색 라운드 T를 더 입음. 흰색 T의 밑부분이 밖으로 나옴. 페이지색 면 반바지. 흰색 양말을 신고, 옆에 끈이 끼있는 갈색 구두. 페이지색 주머니 2개달린 배낭. 한 손은 물통, 한 손은 친구(여자1명)의 팔짱을 끼고. 얼굴은 화장을 함(눈썹, 아이라인, 립글로오스 바름)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6 | 여: 앞머리는 옆으로 젖을 발라서 붙임(깎았머리) 나머지는 뒤로 모두 넘겨서 하나로 묶어서 짐게핀을 꽂음. 옆머리에 작은 짐게 핀을 5개 꽂음. 빨간색 가로 줄무늬 니트를 몸에 달라붙게 입음(내복같은 느낌). 블랙 진 치마를 무릎 밑으로 내려오게 입고, 양말은 신지 않고 앞이 길게 흰색 구두신음. 친구(여자1명)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서 얘기함. |
| 17 | 남: 스포츠 머리를 앞머리만 젖을 발라서 이마로 내림. 팔 부분만 곤색인 회색 라운드 T에 힙합 청바지. 벨트를 무릎까지 내려오게 함. 카키색 자루 모양의 가방을 옆으로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멘. 금속 시계를 차고, 흰색 운동화를 앞부분이 여유가 많이 남게 신음.                                                  |
| 18 | 여: 어깨에서 5cm정도 내려오는 생머리. 옆에 별모양의 큐빅핀을 꽂음. 카키색 스웨터를 몸에 달라붙게 입음. 청치마를 발목까지 내려오게 입고, 밑부분만 빨간 수가 놓아져 있음. 갈색 구두. 초록색의 뜨개질한 가방을 사선으로 매고, 얼굴은 화장을 함(눈썹과 립글로오스를 바름).                                         |
| 19 | 여: 검정색 야구모자를 쓰고, 뒷머리는 하나로 묶어서 모자 밖으로 빼놓음. 귀걸이는 한쪽은 2개, 다른 쪽은 1개를 함. 짙은 초록색 라운드 T셔츠를 소매는 팔꿈치까지 올림. 곤색 바지에 검정색 구두. 청바지로 만든 가방을 한 쪽으로 매고, 한 손에는 쇼팽백 2개를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껌을 씹으며 교복 입은 친구(여자1명)와 걸어감.     |
| 20 | 여: 머리는 하나로 묶어서 검정색 머리끈(곱창)으로 올림. 혈렁한 흰색 긴팔 T 셔츠에 힙합 청바지. 흰색 벨트를 길게 내려오게 하고 노란색 워커화.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고, 다른 손은 친구(여자1명)의 손을 잡고 걸어감.                                                                     |
| 21 | 여: 머리는 하나로 묶고, 다시 리본 핀으로 꽂음. 하늘색 긴팔 남방에 수박색 조끼를 입음. 남방을 길게 조끼 밖으로 내놓음. 무릎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 워커화를 신고, 베이지색 주머니 2개달린 배낭. 휴대폰은 뜨개질한 주머니에 담아서 손으로 들림. 친구(여자1명)와 손을 잡고감.                                      |
| 22 | 남: 젖을 발라서 머리를 앞으로 내림. 은색 안경테. 연한 회색 얇은 스웨터. 회색 면바지. 진한 갈색인 운동화. 밑부분은 검정색을 나타냄.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한손에는 소꿉백을 들고, 친구(남자1명)와 걸어가면서 전화함.                                                                       |
| 23 | 여: 머리는 뒤로 넘겨서 하나로 묶음. 은 귀걸이. 자주색 가디건에 흰색 T를 바쳐입고, 혈렁한 반바지. 형겅으로 된 주머니 2개 달린 검정색 배낭. 흰색 양말에 자주색 구두(앞이 많이 남아서 길게신음). 한 손에는 쇼팽백을 들고, 다른 한 손은 휴대폰 줄을 들리면서 친구(여자1명)과 같이 걸어감.                             |
| 24 | 남: 젖을 발라서 머리를 앞으로 내림. 흰색에 검정 새로 줄무늬 남방. 노란색 조끼. 회색 면바지를 달라붙게 입음. 앞이 많이 남은 흰색 운동화. 한 손에는 검정색 손가방을 들고, 여자와 얘기하면서 걸어감.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25 | 여: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에 가운데 가르마. 눈썹을 정리해서 눈썹이 거의 없음. 흰색 T에 검정색 가디건. 흰색 추리닝 천으로 된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앞이 긴 흰색 구두. 양말은 신지 않음. 빨간색 EAST PAK 배낭을 한쪽 어깨에만 메고 있음. 휴대폰을 보면서 친구(여자1명)와 함께 걸어감.  |
| 26 | 여: 빨간색 야구모자를 뒤로 쓰고, 머리는 목까지 내려옴. 흰색 긴팔 T에 카키색 조끼를 입음. 흰색 면바지. 금속 시계를 차고, 이를 교정하고 있음. 주황색 줄이 있는 흰색 운동화(앞부분이 많이 남음). 친구(여자1명)가 팔짱을 끼고, 다른 팔은 크게 흔들면서 걸어감.                     |
| 27 | 여: 가슴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가운데 가르마를 탐. 은 귀걸이에 검정색 안경테 안경을 씌. 흰색 T에 반팔 하늘색 남방을 단추를 모두 풀어놓음. 곤색 면바지. 흰색 운동화(앞이 많이 남음). 체크무늬 배낭. 친구(여자1명)가 팔짱을 끼고 걸어감.                                  |
| 28 | 여: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를 큐빅이 박힌 집게핀을 꽂음. 흰색 T를 속에 입고, 겹에는 주황색 반팔 T를 더 입음. 혈명한 청바지. 앞이 긴 흰색 운동화. 베이지색 주머니 2개 달린 배낭. 금속시계를 차고, 은 귀걸이. 한 손에는 쇼핑백을 한 손은 친구(여자1명)의 팔짱을 끼고. 눈썹과 립글로오스를 바름. |
| 29 | 여: 머리를 뒤로 넘겨서 하나로 묶음. 팔부분만 진한 파란색인 하늘색 라운드 T. 무릎부분이 일자로 찢어진 청바지. 갈색 사각형 모양의 가죽 가방을 사선으로 메고, 금속 시계를 차고 있음.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한 손은 쇼핑백을 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걸어감.                            |
| 30 | 남: 파란색 야구모자를 쓰고, 큰 글씨가 색여진 흰색 T, 지퍼가 달린 회색 모자 T. 지퍼를 열어놓음. 곤색 반바지에 흰색 양말을 신고, 나이키 농구화 신음. 오른손 새끼 손가락에 반지 끼고 있음. 친구(남자2명)와 걸어감                                               |
| 31 | 여: 채이없는 주황색 야구모자. 흰색 T에 모자달린 곤색 조끼. 왼쪽 귀에 귀걸이는 2개. 곤색 힙합 바지. 파란색 워커화같은 신발. 주황색 EAST PAK 배낭을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친구(여자1명)와 닭꼬치를 먹으면서 걸어감.                                            |
| 32 | 남: 검정색 야구모자를 쓰고, 흰색 반팔 T에 쥐색 조끼입음. 검정색 시계를 차고있고, 파란색 배낭을 한쪽 어깨에만 메고 있음. 흰색 청바지. 흰색 운동화(앞이 많이 남음). 휴대폰 줄만 바지 주머니 밖으로 나오게 함. 여자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감.                              |
| 33 | 여: 머리 중간을 편으로 꽂고, 다시 하나로 묶음. 연한 갈색으로 염색. 하늘색 줄무늬 남방. 수박색 조끼. 힙합 청바지. 황토색 워커화. 초록색 체크무늬 배낭. 오른쪽에만 은 귀걸이를 하고, 오른손에 반지짚. 입술에 립글로오스를 발라 반짝임. 쇼핑백을 들고 친구(여자4명)와 얘기하면서 걸어감.       |

## ■ 신림동 사거리

(조사시간 : 2000. 8. 25(금) 17:00-18:00      날씨 : 비온 후 맑아짐)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 | 여: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흰 반팔 티셔츠에 노란 조끼를 입음. 청바지는 무릎이 찢어짐. 흰운동화(앞이 길게 여유가 있음). 옆으로 매는 직사각형 가방(베이지색)을 매고, 우산은 손에 들고감. 은목걸이를 하고, 은색 귀걸이. 시계는 검정색 줄. 친구(여자1명, 교복입음)과 손을 잡고 얘기하면서 걸어감.                                                                           |
| 2 | 여: 교복(흰색반팔 블라우스, 회색치마. 치마를 몸에 달라붙게 줄이고, 길이는 무릎 밑으로 10cm 정도 내려오게 길게 입음) 머리는 뒤로 하나로 묶음(일명 곱창이라는 머리끈으로 묶음). 발목정도 오는 흰양말에 검정색 구두(굽이 3cm, 중간에 끈이 있음). 검정색 가죽가방(앞에 주머니가 2개 달려있음) 친구2명(여)과 길거리 구경하면서 얘기하며 걸어감(일렬로 서서)                                         |
| 3 | 남: 스포츠머리(3cm정도)를 젖 발라서 위로 세움. 교복(흰셔츠, 파란바지-달라붙게)을 입고, 위에 회색 조끼를 입음. 검정색 가방을 옆(왼쪽어깨에) 매고, 오른쪽 엉덩이에 오도록으로 매고 우산을 가방에 넣어 손잡이 부분만 나옴. 흰색운동화(앞부분이 길게 남음) 친구3명(남자)과 같이 걸어감(친구들도 모두 교복).                                                                      |
| 4 | 여: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반정도만 하늘색 집게 핀으로 찢음. 나머지 머리는 길게 내려오게 하고, 앞머리를 왼쪽으로 가르마를 타서 젤로 머리를 붙임(일명 깃털머리). 교복(흰색 상의, 끈색 치마). 교복위에 카키색 가디건을 몸에 달라붙게 입음. 풀색 체크무늬 배낭을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매고, 노란우산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옷가게 구경. 흰색 양말을 신고, 검정색이고, 중간에 끈이 있는 구두(3cm). 친구(여자3명)과 같이 다님. |
| 5 | 남: 머리는 전반적으로 5cm정도 되는 머리. 젤을 발라서 붙이고, 앞머리는 살짝 갈색으로 염색(머리 전체에 젤을 발라서 머리가 반짝반짝). 카키색 T셔츠에 흰색 반바지(무릎길이). 양말은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음. 손에 지갑, 비닐봉지를 들고, 한손은 여자손을 잡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걸어감.                                                                    |
| 6 | 스포츠 머리를 젤을 발라서 위로 세움. 헤드셋을 하고, 흰색 폴로 T셔츠에 힙합 청바지를 입음. 검정색 줄로 된 팔찌. 주황색으로 된 □모양의 가방을 한쪽(오른쪽) 어깨에 길게 늘어뜨려 매고 있음. 흰색 바탕에 파란색 줄이 있는 운동화(앞부분 길게)를 신고있음. 벨트를 길게 늘어뜨려서 허벅지까지 내려오게 함. 휴대폰은 손에 들고. 친구(남자2명)와 서로 얘기.                                             |
| 7 | 머리를 앞머리를 일자로 자르고, 뒷머리는 하나로 묶음(흰색 곱창) 흰 바탕에 검은색 가로줄무늬 T셔츠. 베이지색 반바지. 흰색으로 매는 사각형 모양의 가방. 슬리퍼신고, 양말은 신지 않음. 친구(여자1명)의 팔에 팔짱을 끼고,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가다가 때때로 서있음. 친구는 교복을 입고 있음.                                                                                 |

(조사시간 : 2000. 9. 2.(토) 17:00-18:30

날씨 : 맑음)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8  | 남: 머리에 젤을 발라서 앞으로 내리고, 주황색 라운드 T셔츠를 입음. 청바지를 몸에 달라붙게 입고, 가방은 곤색 직사각형의 손가방을 겨드랑에 끼고 있음. 신발은 곤색의 슬리퍼를 신고 있다. 신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침을 뱉으면서, 휴대폰은 손을 들고 있음. 친구(남자3명)와 같이 침을 뱉으면서 장난치면서 걸어감.                                                              |
| 9  | 여: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풀어놓고 오른쪽 머리에만 직사각형 큐빅이 박힌 핀. 교복(흰색 블라우스, 곤색 플레어 스커트). 흰 양말을 접어서 발목까지 오게 신고, 굽이 3cm 정도되는 아무 장식없는 검정색 구두를 신음. 검정색(EAST PAK) 배낭을 메고 있음. 휴대폰은 손에 들고 혼자서 서있음.                                                                     |
| 10 | 남: 짧은 (2cm 정도) 스포츠 머리지만 젤을 바름. 흰색 라운드 T셔츠에 V자형 회색 조끼. 파란색 체크무늬 반바지. 곤색 슬리퍼를 신음.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고, 휴대폰 줄만 주머니 밖으로 나와있음. 오른손에 금반지. 흰색으로 된 엄주같은 팔찌                                                                                                    |
| 11 | 여: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앞머리를 일자로 내리고, 반 정도만 큐빅 핀을 꽂음. 은귀걸이함. 교복(흰색 블라우스, 곤색 플레어 스커트). 빨간색 가방(복주머니 모양)을 사선으로 메고 있음. 흰 양말을 신고, 흰색 운동화를 신음.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음. 남자1명과 여자1명과 얘기를 하면서                                                                          |
| 12 | 여: 앞머리를 사선으로 가르마를 해서 젤을 발라 이마에 붙임(췌머리). 긴 핀(바나나핀)으로 뒤로 한꺼번에 꽂음. 교복(흰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플레어 스커트). 가방은 검은 가죽가방을 한쪽 겨드랑에 끼고, 지갑은 손에 들고 있음. 다른 손으로는 친구손을 잡고 있음. 친구(여자1명)와 껌을 씹으면서 거리 구경하고 있음                                                             |
| 13 | 여: 어깨와 허리의 중간정도 오는 긴 생머리. 무테 안경을 쓰고, 교복(검정색 플레어 스커트, 흰색 블라우스). 흰색 양말을 신고, 검정색으로 된 굽이 3cm 정도되는 구두. 쇼핑백을 팔에 걸고. 있음. 양옆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나란히 서서감. 한손은 남자친구손을 잡고, 다른 손은 여자친구 손을 잡고 얘기하면서 걸어감.                                                          |
| 14 | 남: 머리에 젤을 발라 앞으로 내림. 회색 반팔 남방에 속에 흰색 T셔츠를 입음. 단추를 모두 풀고,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입음. 곤색의 반바지(무릎 길이). 양말은 신지않고 흰색 샌들만. 연한 갈색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등쪽에 달라붙어 있음. 금속시계를 차고 있음. 친구(남자2명)과 얘기하면서 서있고, 손에 비스카드를 들고 장난을 칩.                                                |
| 15 | 여: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 흰색 T셔츠에 체크무늬 남방을 더 입음. 짧은(허벅지에서 한뼘정도 내려오게) 청 반바지. 흰양말에 흰색 운동화(중간에 파란색 줄이 있고, 밑창에도 파란색이 있음). 운동화의 뒤를 접어서 신음. 가방은 핸드백 크기의 것을 사선으로 메고, 껌을 씹으면서 풍선을 부. 얼굴은 화장을 했는데 눈썹(눈썹 정리를 해서 눈썹이 반만 있음)과 립스틱은 바르지 않음. 휴대폰은 손에 들고, 흰색 팔찌를 하고 있음.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6 | 여: 머리를 뒤로 해서 올림.(꼭 지은 머리) 흰색 끈(곱창)을 하고 있음. 귀걸이와 목걸이를 함. 하늘색 반팔 T셔츠에 곤색 긴 바지. 통굽 검정색 신발. 금속 시계차고 양손에는 반지를 낀. 휴대폰은 손에 들고, 하늘색 직사각형 모양(핸드백처럼 작은 크기)의 가방을 사선으로 메고 혼자서 서있음. 이러저리 쳐다보면서 있음.                       |
| 17 | 여: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검정색(블루블랙)으로 염색하고, 한쪽만 검정색 핀 2개를 꽂음. 은색 귀걸이를 하고 금속시계. 연한 하늘색 반팔 남방. 흰색 반바지(무릎길이). 양말은 신지 않고, 흰색 구두(굽이 2cm 정도)에 앞에 리본이 하나 달려있음. 버버리 무늬의 가방을 사선으로 메고있음. 껌을 씹으면서 친구(여자3명)와 얘기하면서 걸어감.         |
| 18 | 남: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하고 옆머리는 내려서 얼굴을 가림. 흰색 반팔 T셔츠에 베이지색 긴 바지. 군청색 배낭을 메고, 갈색구두를 신음. 하늘색 남방을 가방앞에 끼고, 금속 시계를 차고있음. 남자친구(1명)과 그냥 서있다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함께 간다.                                                            |
| 19 | 여: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검정색(블루블랙)으로 염색. 흰색 나시 T에 곤색 반바지를 입음. 곤색 슬리퍼를 신고, 분홍색 팔찌를 하고 있음. 지갑은 손에 들고, 휴대폰 줄만 주머니 밖으로 나와있음. 얼굴은 화장함(아이 라이너를 아주 진하게). 머리를 만지면서 친구(여자1명)와 함께 걸어감.                                       |
| 20 | 여: 가슴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풀고, 앞머리를 눈썹까지 내려오도록 자름. 화장을 하얗게 하고, 눈썹과 립글로오즈를 발라 반짝임. 흰색 T에 수박색 조끼를 더 입음. 흰색 반바지. 흰색 양말을 신고, 흰색 운동화를 신음.(옆부분에 파란줄이 3줄있음). 휴대폰줄만 바지 주머니 밖으로 나와있음. 흰색 배낭(주머니 2개달린)을 메고, 안상을 쓰면서 바쁘게 걸어감.   |
| 21 | 남: 젤을 발라서 머리를 앞으로 내림. 체크무늬 남방에 흰색 T를 바쳐입음. 단추는 모두 열고, 손에 검정색 손목보호대(테니스할 때 사용하는 것)를 하고, 검정야구모자는 손에들고있음.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앞이 많이 남음)음료수 마시면서 여자친구 손을 잡고 얘기하며 걸어감.                                                   |
| 22 | 여: 윗머리를 부풀려서 핀을 꽂고, 다시 나머지 머리도 하나로 묶음(곱창사용). 분홍색으로 눈화장. 립스틱을 붉은 빛이 도는 것을 바름. 끈 나시를 입고 그 위에 개란색 반팔니트를 입음. 발목까지 내려오는 군청색 긴 치마. 흰색 가방. 검정색 안경테 안경을 씌. 흰색 샌들은 (굽2cm 정도) 중간에 끈이 두 개있음. 친구(여자1명)와 팔짱을 끼고 얘기하면서 있음 |
| 23 | 남: 머리에 젤을 발라서 앞머리는 모두 앞으로 내려보냄. 빨간색 T셔츠를 입고, 곤색 체크무늬 반바지. 무릎에 반창고를 하나 붙임. 흰색 샌들(뒤 굽이 1cm 정도이고, 앞에는 두줄로 연결되어있음. 휴대폰은 목에 걸고, 마이크로 통화하면서 걸어감. 베이지색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길게함.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24 | 여: 앞머리는 젤을 발라 붙이고(젓있머리), 나머지는 쪽지은 머리처럼 묶음 (흰색 곱창사용). 흰색 나시 블라우스에 검정색 9부바지를 입음. 굵이 5cm 정도되는 정장용 구두를 신음(앞이 뾰족). 흰색 사각형의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음. 화장을 함(눈-뿔 들어간 아이세도우와 마스크라도 함.)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친구(여자2명)와 얘기.                  |
| 25 | 여: 앞머리는 젤을 발라 붙이고(젓있머리)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검정색 치마정장(치마를 달라붙게). 상의는 반팔정장. 가방은 없고 휴대폰만 손에 들고 있음. 검정색 굵이 5cm 정도되는 구두. 앞이 뾰족하여 약간 들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친구(여자1명)와 같이 걸어감(약간 사이가 떨어져서 걸어감)                                    |
| 26 | 여: 앞머리는 젤을 발라 붙이고(젓있머리), 뒤는 높게 하나로 묶음. 귀걸이를 3개씩하고 있음. 차이나풍의 바지정장(연한 베이지색에 세로줄무늬) 상의는 팔꿈치까지 올림. 검정색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음. 화장함(눈화장을 많이 많은 세도우에 마스크라와 입술은 반짝임). 갈색 팔찌를 차고 금반지도 낀. 친구(여자2명)와 껌씹으면서 얘기하고, 소매를 자꾸 올리면서 팔을 함. |
| 27 | 남: 머리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앞으로 내림. 하늘색 세로 줄무늬 남방에 흰색 T를 바쳐입음. 단추는 2개를 풀고 흰색 긴바지입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앞이 남도록) 베이지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매고 가방을 손으로 잡고 걸어감. 껌을 씹으면서. 걸을 때 유난히 흔들흔들 거리면서 걸음.                                        |
| 28 | 남: 머리는 젤을 발라서 위로 세움. 흰색 T셔츠에 끈색 조끼를 더 입음. 흰색 반바지. 양말은 신지 않고, 갈색의 끈때는 구두를 신음. 작은 갈색 손가방을 들고, 친구(남자4명)와 얘기를 하면서 앉아있음.                                                                                              |
| 29 | 여: 앞머리는 옆으로 모두 붙이고 가는 편을 꽂고 뒷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약간 진한 초록색이 나도록 염색. 흰색 T에 베이지색 조끼를 더 입음. 흰색 반바지. 흰양말을 접어서 신고, 굵이 3cm 정도되는 흰색 구두(앞이 뾰족함). 핸드백을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매고있음. 친구(여자1명)의 손을 잡고 구경하면서 머리를 만지며, 침을 뱉으며 돌아다님.        |
| 30 | 여: 가슴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흰색 T셔츠에 빨간색 조끼를 바쳐입음. 물이빠진 청바지. 흰바탕에 주황색 줄이 3줄있는 운동화. 검정색 손목시계.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음. 친구(여자1명)와 함께 부채를 들고 부치고, 부채로 친구 때리면서 큰소리로 웃으면서 말함.                                                           |
| 31 | 남: 짧은 머리에 젤을 발라서 위로 세우고, 은색테 안경을 씌. 흰색 T셔츠에 청조끼를 입음. 양옆에 주머니가 있는 베이지색 건빵반바지. 양말은 신지 않고 끈색 슬리퍼.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다리를 흔들면서 서있음. 서있는 동안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흔들흔들. 친구(남자2명)와 얘기하면서 서있음.                                       |

# ■ 신천역 성당 뒷골목

(조사시간 : 2000. 9. 22(금) 17:30-19:00

날씨 : 맑음)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 | 남1: 스포츠 머리에 속에 흰 티를 입고 체크 남방을 걸쳤다 (open상태)<br>이스트백에 연한 청바지를 입고 검정 운동화를 신고 핸드폰을 받고 있음.<br>남2: 스포츠 머리에 회색 남방과 검방 면바지를 입고 안경을 착용하였다.<br>흰운동화에 핸드폰을 받고 있음.                  |
| 2 | 남: 긴 스포츠 머리(노랑 갈색의 맥가이버 머리모양)에 체크남방과 면바지를 입고 단화를 신었음. 옆으로 가방을 메고 가죽 시계와 두꺼운 금반지를 착용.                                                                                    |
| 3 | 여: 노랑색 긴 생 머리에 진한화장을 하였다. 특히 빨강색 립스틱이 진했고, 검정정장에 검정색 나시와 검정색 손 핸드백을 들었으며, 귀걸이에 높은 구두를 신었음.                                                                              |
| 4 | 여: 진한 검정색의 단발머리에 빨강색 뽕 모자에 V라인 니트티와 반바지를 입었음. 그리고 흰운동화를 신고 금팔지를 착용함.<br>남: 긴 스포츠 머리에 체크 남방과 긴 면바지를 입고 검정 운동화를 신었음.                                                      |
| 5 | 여: 긴 검정색 머리를 흰 곱창으로 올리고 노랑색 니트티와 검정색 면바지를 신었음. 흰 운동화를 신음.<br>남: 긴 스포츠 머리를 노랑색으로 염색하고 기본티에 청바지를 입고 검정색 가죽 시계를 착용하였음. 단화를 신음. 라이터를 만지작 거림.<br>=>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서 있음.         |
| 6 | 여: 검정색 단발머리에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나시를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음. PRADA가방을 메고 있음.<br>남: 짧은 스포츠 머리에 안경을 착용한 모범생 스타일의 학생의 모습. 니트티에 흰 면티를 속에 입고 남색 면바지와 단화를 신고 이스트백을 메고 있음. => 손을 다정히 잡고 있음.     |
| 7 | 여1: 긴단발 머리에 뽕모자를 쓰고 남색 티에 나시 스타일의 긴 조끼를 걸쳐 입고 긴 체크 면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음. 은색의 비닐가방이 돋보임.<br>여2: 단발머리에 야구모자를 쓰고 면 티에 체크 남방을 open해서 입고 이스트백을 한 쪽으로 메고 단화를 신음                 |
| 8 | F: 긴 머리를 흰색 곱창으로 올리고 흰색으로 부분염색 효과를 낸 것 같음. 빨강색 니트 티에 면바지와 단화 그리고 체크 체크가방을 메고 있음.<br>M: 스포츠 머리에 체크 남방에 흰색 기본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체크 체크가방을 메고 있음. 흰색 운동화를 신음. => 겨안은 듯한 포즈로 걸어감. |
| 9 | 여: 긴 스포츠 머리에 연한 노랑색으로 염색을 하고 통이 넓은 검정색 정장을 입고 회색 폴라티를 안에 받쳐 입음. 은색의 금속 목걸이를 폴라티 밖으로 빼고 검정색 통굽 구두를 신고 걸어감.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0 | <p>여: 어깨선까지 닿는 머리에 흰색 비닐 가방을 메고 밝은 분홍색 티와 빨강색 9부 바지에 구두를 양말없이 신음.</p> <p>남: 짧은 스포츠 머리에 V라인 니트 티에 청바지와 단화를 신고 검정색 비닐 봉지를 들고 걸어감. =&gt; 팔짱을 끼고 걸어감.</p>          |
| 11 | <p>남1: 스포츠 머리에 흰색 야구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흰색 먼 티에 갈색 티를 겹쳐 입고 체크 남방을 걸침. 힙합 스타일의 통이 넓고 처지는 청바지를 입고 갈색 단화를 신음.</p> <p>남2: 스포츠 머리에 검정색 면바지에 검정색 남방을 입고 검정색 단화를 신음.</p> |
| 12 | <p>여1: 단발머리에 흰색 머리띠를 착용하고 흰 남방을 단추 2개 정도 풀르고 속에 흰색 남방, 청바지를 입음. 단화를 신음.</p> <p>여2: 단발머리에 체크남방과 속에 베이지 먼 티 받쳐입음. 청바지를 입고 단화를 신음.</p>                            |
| 13 | <p>남1: 스포츠 머리에 흰색 면티를 입고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단화를 신음. 손에 드는 핸드백을 들.</p> <p>남2: 스포츠 머리에 야구 모자를 쓰고 체크 남방을 입고 속에 흰색 면티를 받쳐 입음. 면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음.</p>                     |
| 14 | <p>여: 노랑색 긴 머리에 흰색 자켓을 입고 검정색 정장바지와 손으로 드는 큰 핸드백을 들.</p> <p>남: 스포츠 머리에 흰색 남방을 입고 청바지를 입음. 단화를 신음.<br/>=&gt; 어깨에 손을 올리고 껴안 듯이 걸어감.</p>                          |
| 15 | <p>여: 단발머리에 갈색 염색을 연하게 하고 갈색 정장에 흰색 남방을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음. 손 핸드백을 들.</p> <p>남: 스포츠 머리에 검정색 정장바지에 검정색 구두를 신고 흰색 남방을 입음. =&gt; 안고 있듯이 걸어감.</p>                       |
| 16 | <p>남: 스포츠 머리에 흰색 모자를 쓰고 흰색 모자 티 속에 흰색 남방을 받쳐 입고 연한 베이지색 바지와 단화를 신음. 안경을 쓰고 금속 시계와 금반지를 착용함. =&gt; 손가락 엄지를 입에 넣고 빨고 있다.</p>                                     |
| 17 | <p>여1: 검정색 긴 생머리에 흰색 면티에 연한 베이지 조끼와 체크 남방, 남색 면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음.</p> <p>여2: 단발머리에 빨강색 모자를 쓰고 체크 남방에 청바지를 입음. 단화를 신음.</p>                                      |
| 18 | <p>남1: 노랑색 스포츠 머리에 흰색 남방에 청바지를 입고 단화를 신음.</p> <p>남2: 단발머리에 노랑색 염색을 하고 남색 니트 티 속에 흰색 면티를 입고 남색 검방 반바지를 입음. 단화를 신음. =&gt; 어깨 동무를 하고 걸어감.</p>                     |
| 19 | <p>여: 검정색 단발머리에 흰색 반팔 목티를 입고 7부 치마와 구두를 신음. 연하게 화장을 하고 옆으로 작은 핸드백을 메고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걸어감.</p> <p>남: 스포츠 머리에 곤색 정장에 검정색 면티를 받쳐 입고 단화를 신음.<br/>=&gt; 그냥 걸어감.</p>     |

(조사시간 : 2000. 9. 24(일) 17:30-19:00

날씨 : 맑음)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20 | 여: 긴 생머리에 흰색 남방 속에 흰색 면티, 남색 긴바지를 입고 흰색 양쪽 가방을 메고 연한 화장을 함.<br>남: 스포츠 머리에 회색 니트티와 남색 긴바지를 입고 단화를 신음.<br>=> 팔짱을 끼고 걸어감.                      |
| 21 | 여: 단발머리를 묶고 빨강색 조끼에 흰색 7부 면티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 단화를 신음.<br>남: 단발머리를 무스로 넘기고 남색 조끼와 면티를 겹쳐 입고 팔찌와 굵은 귀걸이를 함. 단화를 신음.                                |
| 22 | 여: 단발머리에 원형 미로 뺑모자를 쓰고 주황색 긴 니트티에 힙 스타일의 면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음. 종이 뭉치를 들고 있음.                                                                     |
| 23 | 여: 단발 머리에 양쪽에 검정색 핀을 하고 검정색 7부 원피스에 청자켓을 입고 빨강색 립스틱을 하고 구두를 신음. 한 손을 호주머니에 한 손은 핸드백을 들고있음.                                                  |
| 24 | 남: 긴 스포츠 머리의 뒤쪽이 야구 모자뒤로 나오고 형광색 주황색 티에 청바지를 입음. 안경을 끼고 옆으로 가방을 엉덩이 선까지 내려메고 흰색 운동화를 신음. 핸드폰을 들고 있음.                                        |
| 25 | 여1: 노랑색 파마머리에 병거자 모자를 쓰고 노랑색 니트 티와 무릎선까지 오는 청치마에 양말을 신고 검정색 단화를 신음. 옆으로 메는 가방.<br>여2: 긴생머리에 검정색 티, 자켓을 입고 카키색 면바지와 검정색 단화를 신음. => 팔짱을 낀     |
| 26 | 여: 검정색 긴 생머리에 썬글라스를 끼고 흰색 V라인 니트 티에 검정색 청바지와 검정색 단화를 신음. 핸드폰을 목에 걸고 있음.<br>남: 검정색 스포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FTLA 흰색의 티에 청바지에 갈색 단화를 신음. => 손을 잡고 걸어감. |
| 27 | 여: 어깨선까지의 검정색 생머리에 분홍색 모자: M/L을 쓰고 빨강색 니트 안에 흰색 면티를 입고 청바지. 흰운동화에 니트티를 팔까지 걷어 올리고 시계를 착용. 카키색의 작은 백을 들음.                                    |
| 28 | 여: 단발 머리에 빨강색 코팅을 하고 머리를 묶음. 피자투색의 난방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검정색 단화를 신고 채크무늬의 베이지색 가방을 옆으로 맴.                                                        |
| 29 | 남: 노랑색 맥가이버형 머리에 한쪽에만(오른쪽) 링 귀걸이의 장식을 하고 주황색 라운드 티: Eless 와 베이지색 반바지에 흰색 양말을 신고 흰색 운동화를 신음. 시계를 착용하고 핸드폰을 받으면서 걸어감. 카키색 이스트백.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30 | 여: 갈색 생머리가 등 허리선에 닿고 흰색 면티에 회색 난방과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노랑색 등산화를 신음. 카키색 가방.                                                                                                                 |
| 31 | 남: 검정색 스포츠 머리에 나이키 주황색 티에 회색 줄무늬 청바지를 입음. 하얀색 FILA 운동화를 신고 손에 점퍼를 들. 검정색 안경대를 착용.                                                                                                   |
| 32 | 여: 노랑색 파마머리를 반절만 묶고 면티에 청바지를 입고 검정색 배낭을 메고 검정색 통갑을 신음. 핸드폰을 목에 걸.<br>남: 스포츠 머리를 무스로 넘기고 폴로 회색 라운드 티에 청바지를 헐렁하게 입고 검정색 단화를 신음. => 손을 잡고 걸어감.                                         |
| 33 | 여: 단발 머리를 뒤로 묶고 흰색 면티에 검정색 V라인 티를 입고 검정색 9부 바지와 검정색 구두를 신음. 손에 작은 백.                                                                                                                |
| 34 | 남: 스포츠 머리에 '아디다스' 남색에 흰 줄무늬 츠리닝 한벌을 입고 흰색 '나이키' 야구모자를 쓰고 있음. 흰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 35 | 여: 갈색 생머리가 어깨선이고 흰색 가다건에 검정색 나시티, 무릎선의 검정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음. 검정색 배낭을 한쪽에만 걸치고 핸드폰을 들고 있음.                                                                                          |
| 36 | 남: 검정색 스포츠 머리 밑에 수건을 두르고 남색 모자; M/L를 씌. 노랑색 등산화 신음. 면티에 힙합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음.                                                                                                            |
| 37 | 여: 단발머리에 흰색 'POLO' 야구 모자를 쓰고 남색 라운드 티에 힙합 면바지를 입고 주황색 운동화를 신음.<br>남: 노랑색 염색 단발머리에 머리띠를 차고 검정색 티에 청 힙합 스타일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음. 한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음.<br>=> 마주보며 손 잡고 이야기.                    |
| 38 | 여: 스포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엘르'남색 티에 남색 면바지를 입고 빨강색 단화를 신음.<br>남: 갈색 생머리에 검정색 리본 두건을 등 가운데 부분까지 늘어뜨리고 카키색 니트티에 카키색 정장을 입음. 구두를 신고 손가방을 들.                                                   |
| 39 | 여: 검정색 단발머리에 흰색 '나이키' 야구모자를 쓰고 흰색 반팔 티에 분홍색 모자티를 입고 파랑색 면바지에 흰색 바탕에 하늘색 무늬가 있는 운동화를 신음. 검정색 배낭.                                                                                     |
| 40 | F: 어깨선이 조금 넘는 갈색 생머리에 베이지색 V라인 조끼를 입고 반팔 줄피를 안에 입음. 베이지색 면바지에 갈색 가죽 단화를 신음. 빨강색 잔스포츠 가방.<br>M: 스포츠 머리에 은테 안경을 쓰고 흰색 남방에 하늘색 줄무늬 흰색 티를 입음. 남방을 걷어 물리고 바지는 연한 카키색 면바지를 입음. 갈색 단화를 신음. |

# ■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연대 가는 지하통로

(조사시간 : 2000. 8. 25.(금) 17:30-19:00      날씨 : 비온 후 맑)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  | 남1: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흰색 운동화(메이커 없는 무지), 가방끈을 길게 하여 사선으로 메어 옆으로 오게하여 맨. 긴 바지를 길게 입어 운동화를 반가람 덮음. 긴 우산을 질질 끌며 소리내며 걸음.                                      |
| 2  | 남2: 머리의 무스를 바르고 흰색 무지의 운동화 가방 끈을 길게 하여 옆으로 맨. 짧은 반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지 않음. 뒤돌아보며 친구에게 욕을 함 "아이 새끼야-...."                                                    |
| 3  | 남3: 머리에 무스를 발라 세우고 흰색 운동화. 짧은 반바지와 가방 끈을 길게 하여 옆으로 맨. 짧은 반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지 않음.                                                                          |
| 4  | 남4: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고 흰색 운동화, 짧은 반바지. 가방 끈을 길게 하여 옆으로 매고 양말을 신지 않음.<br>* 서로 무리를 지어 걸어갔으며 서로 뒤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눔.                                              |
| 5  | 남1: 노랑 염색 머리를 함. 흰색 라운드 티를 입고 베이지 색 조끼를 입음. 구렛나루를 짧게 약간 보이게 손질. 검은 면바지를 입고 검은 무늬없는 운동화. 왼쪽 귀에 다이아 귀걸이를 함. (불계, 한쪽만) 눈썹과 구렛나루는 검정색                    |
| 6  | 남2: 초록색 체크 반바지. 흰색 면티를 밖으로 내어 입음. 두꺼운 은 목걸이를 하고 안경(도수 없음) 머리를 노랑과 주황으로 염색(부분 염색이 아님) 하고 세움. 파란색 샌달을 양말을 신지 않고 긴 우산을 세워서 흔들. 나이키 가방을 길게 하여 옆으로 맨.     |
| 7  | 나중에 여1, 여2, 여3 합류함.<br>여1: 흰색 면티를 안에 입고 초록색 티를 입음 흰색 반바지를 입고 검정 나이키 야구 모자와 붉은 우산을 손에 쥌. 스포리스 운동화와 양말을 신고 왼손에 천으로 된 스포츠 시계 착용. 화장 안함.                 |
| 8  | 여2: 분홍 티. 주황색 나눈 색의 긴 머리. MCM베이지 가방을 매고 붉은 베이지 색의 면바지를 입고 흰색 샌달을 신음. 양말을 신지 않음.                                                                      |
| 9  | 여3: 검은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검정 샌들을 신음. 머리를 풀고 까만 가방을 맨. 귀걸이를 하고 오른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음. 반지를 쥌.                                                                      |
| 10 | 여: 노란 어깨까지 오는 길이의 머리. 흰색 마로 된 치마와 속이 보이는 민소매 황토색 옷을 입음 안에 흰 티를 입음. 빨강 장미 꽃다발을 들고 속눈썹을 붙임, 짙은 화장(세도우를 파랑색) 분홍색 립스틱. 뒤가 없는 슬리퍼를 신음. 누군가를 찾음. 계속 걸어 다님. |
| 11 | 남: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헤어밴드(운동시 하는것)를 착용함. 바지(힘함 청바지)를 건어서 무릎까지(양쪽 다)올림. 목에 굵은 은 목걸이(체인) 2개 착용. 핸드폰 통화하면서 걸어감. 농구공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늘색 가방을 맨.                      |
| 12 | 여: 앞머리 가리마(옆으로 붙인 가리마)에 검은 핀 3개씩 꽂음. 치마는 폭줄이고 무릎위까지 올림. PRADA 검은 백을 매고 한 손엔 핸드폰을 쥌. 양쪽에 딱 붙는 금색 귀걸이 착용.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3 | 남: 흰색 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고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걷고 다른 한 손에는 우산을 들음. 흰색 무늬없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감.                                                                                               |
| 14 | 남: 흰색 티셔츠와 초록색 체크 우너의 반바지를 입고 초록색 체크 우너의 가방을 한쪽으로 땀(등에 매는 ) 한손에 핸드폰을 들음(핸드폰 액세서리 줄을 길게하고) 머리에 무쓰를 발라 넘김.                                                                           |
| 15 | 여1: 힙합 스타일의 주황색 긴 바지를 입고 흰색 면티를 험령하게 입음, 하늘색 운동화를 신고 노랑색으로 머리를 염색. 눈썹을 그리고 하늘 색 아이 새도우를 하고 립스틱은 바르지 않음. 가방을 매지 않음                                                                  |
| 16 | 여2: 힙합 스타일의 남색 긴바지( 비닐류)를 입고 남색 운동화와 티셔츠를 험령하게 입음. 머리를 검게 염색. 가방을 매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음. *서로 서성거리며 주의를 살핌                                                                                |
| 17 | 남1: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음.<br>남색 츄리닝 바지에 옆에 주황색 단추가 달린 옷을 입고 힙합스타일로 입었음. 검정색 운동화(메이커 없음)를 신음                                                                                 |
| 18 | 남2: 긴팔 츄리닝 모자 달린 티셔츠를 입고 베이지색의 츄리닝 바지에 남색으로 된 줄 무늬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가방천으로 된 가방을 사선으로 땀.                                                                                           |
| 19 | 여1: 긴 생머리를 하고 화장은 하지 않고 청바지를 힙합 스타일로 길고 크게 입었으며 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전화는 하지 않고 들고만 있었음.흰색 운동화에 검음 무늬가 있었고 체크로 된 갈색 계통의 천가방을 옆으로 하고 땀.                                                      |
| 20 | 남1: 머리가 단발이고 검정색으로 염색을 함. 금 귀걸이를 양쪽으로 하였다.(붙는 것) 검정색 잠자리테 모양의 선글라스를 끼고 반바지에 티셔츠를 국방색 계통으로 입었으며 흰양말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체크 무늬의 가방을 뒤로 제치고 땀.                                   |
| 21 | 남2: 외국에서 살다가(?) 온 모양.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크로스 가방을 앞으로 오게 하여 땀.(숄더 백?)                                                                                                                     |
| 22 | 남: 노랑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하고 빨강색 비닐로 된 스포츠 반바지(무릎까지 오는)를 입고 이스트 백을 등 한쪽으로 길게 매고 무테 안경을 착용. 한손을 주머니에 넣고 발가락을 거는 슬리퍼를 신음.                                                                     |
| 23 | 여1: 8:2가리마를 하고 머리핀을 한쪽으로 하고 뒷머리를 다 묶고 눈썹을 째랐고 메달이 달린 실 목걸이를 함. 안에 초록 색 티셔츠를 입고 망사 가디건을 걸침. 검은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끝이 뾰족한 구두를 신었음. 아주 작은 키홀더만한 가방을 옆으로 매고(루이비통 짜가) 한손에 손수건을 들고 주위를 돌아보며 걸음.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24 | 남: 단발머리인데, 위로 반은 노랑머리, 아래 반은 주황머리색. 링 귀걸이를 하고 체크 무늬의 긴 남방을 입었으며 안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에 위커를 신고 흰색 양말을 신음. 이스트 백을 등에 맴.                                |
| 25 | 여: 긴 생머리를 풀고 흰색 반팔 블라우스를 입고 회색 치마를 입음(교복) 흰색 양말과 검은 통구두를 신음. 프라다풍의 가방을 등에 맴. 한손에 핸드폰 털실로 짠 구슬이 달린 핸드폰 가방의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남1과 손을 잡고 걸어감.         |
| 26 | 여1: 긴 생머리를 풀고 머리띠(구슬이 달림)를 하고 긴팔로 된 니트 티를 입고 비닐로 된 체크 무늬의 튜리닝 바지와 한손에 낀 쇼퍼백을 집게로 집어 들음. 바지는 하늘색, 갈색의 사이즈가 큰 위커를 신음.                              |
| 27 | 여2: 머리를 8:2로 하고 긴 생머리를 풀음. 등에 백을 메고 반팔로 된 라운드 티를 입음. 면바지를 힙합 스타일로 입고 LG라고 쓰인 흰색 운동화를 신음.<br>여1, 2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를 계속 만지며 걸어 감. 손을 잡지 않음.         |
| 28 | 여1: 단발머리를 옆가리마를 타서 뒤를 묶음. 검정색 밴드를 맴. 흰색 티셔츠와 분홍색 조끼를 입고 반바지에 흰색 양말과 흰색 운동화를 신음. 체크 무늬의 백을 메고 한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음.                                    |
| 29 | 여2: 단발머리를 옆가리마를 타고 곱창으로 머리를 다 묶음. 교복 치마를 접어서 짧고 볼게 입음. 흰색 운동화와 흰색 양말을 신음. 쪽색의 이스트 백을 메고 한손에 A4반만한 핸드폰 가방을 들고 있음.                                 |
| 30 | 남1: 커트 머리를 젤로 발라 세웠으며 흰색의 튜리닝을 아래위로 입고 위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밖으로 보이게 입음, 바지는 걸어서 흰양말이 보이게 했으며 흰색 운동화를 신음. 남색 백을 메고 금목걸이와 나무로 된 목걸이, 메탈시계를 큰 것을 참.        |
| 31 | 여1: 노랑색의 긴 생머리로 녹색 체크 무늬의 셔츠를 입고 안에 남색 티셔츠를 입음. 속눈썹을 붙이고 화장을 진하게 함. 가방을 메지 않고 청바지를 힙합 스타일로 입음. 남색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br>남1과 여1은 손을 잡지 않음              |
| 32 | 여1: 긴머리를 옆가리마를 타서 풀었으며 스즈끼를 입고 목에 투명한 핸드폰 줄을 걸었으며 흰색 민소매 옷을 입고 화장을 연하게 하고 손 눈썹을 붙임. 이스트백을 메고 팔찌를 끼고 흰색 스포리스 운동화를 신고 서 있음                         |
| 32 | 여2: 긴 머리를 옆가리마를 타서 풀고 민소매 옷을 입고 (Eg로고) 바지에 옆선이 빨강색으로 된 면바지를 입고 프라다 가방을 메고 화장을 하고 속눈썹을 붙이고 립글라스를 발랐다.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빨강색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팔찌를 끼고 서 있음.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33 | 남: 링이 달린 금목걸이를 하고 티셔츠에 바지를 한쪽만 걷어 입음. 흰양말에 빨강색으로 나이키 로고가 적힌 것을 신고 흰색 스포리스 운동화를 신음. 빨강 야구 모자를 챙이 옆으로 가게 쓰고 핸드폰을 목에 걸음. 여자 가방(프라다 썩)을 땀.   |
| 34 | 여: 어깨 길이의 단발머리에 얇은 화장을 함. 티 셔츠를 입고 긴 청바지를 입고 (힙합 스타일로) 운동화 메이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지를 길게 하고 입음. 긴 귀걸이를 착용.                                      |
| 35 | 남1: 젤로 머리를 다 세움. 남색의 가로로된 줄무늬 셔츠를 입음. 남색 반바지에 양말을 신지 않고 샌달을 신음. 뒤를 구겨서 신음. 비닐 쇼펍백과 종이 쇼펍백을 한손에 들고 다른 손에 담배를 잡음.                          |
| 36 | 남2: 줄무늬 셔츠를 입고 베이지 색의 긴 바지를 입고 검정 구두를 신음. 길거리를 걸으면서 침을 뱉으며 걸어 감.<br>⇒ 남1,2는 머리를 숙이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걸어 감                                       |
| 37 | 남1: 머리에 무쓰를 바르고 빨강 타를 입고 베이지 반바지를 입음. 양말을 신지 않고 검정색 구두를 신었으며 한손에 팜플렛을 들음.                                                                |
| 38 | 남2: 머리에 무쓰를 바르고 흰색 라운드의 NIX라고 쓰인 옷을 입음. 베이지 색 반바지를 입고 끈이 없는 샌달을 신음. (흰색 가죽) 신발을 질질 끌으며 걸음 ⇒ 남1, 2는 땅을 보며 걸어 감                            |
| 39 | 여1: 단발머리로 흰색 면티를 입고 곤색 츄리닝 반바지를 입음. 양말을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음.                                                                                   |
| 40 | 여2: 단발머리에 분홍색의 면티를 입고 흰색 반바지(츄리닝)를 입음. 흰색의 꽃무늬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걸어 신음. 가방을 손바닥만한 것을 메고 감<br>⇒ 여 1, 2는 서로 팔짱을 끼고 걸음                            |
| 41 | 여1: 긴머리를 무쓰를 바르고 머리를 옆으로 붙임. 가죽 배낭을 메고 교복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음. 흰색 운동화와 흰색 양말을 신음. 속눈썹에 아이라인을 강하게 함                                              |
| 42 | 여2: 옆가리마를 타고 머리를 뒤로 묶음. 교복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흰색 양말과 고무로 된 슬리퍼를 신고 이스트백을 짧게 하고 땀. 속눈썹에 아이라인을 진하게 함                                             |
| 43 | 여1: 머리를 옆 가르마를 타고 앞머리를 붙여서 뒤로 묶음. 양말을 신지 않고 흰색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흰색 운동화에 흰색 반바지(스포츠 츄리닝)를 입음. 연기 나는 음료수를 한 손에 쥐고 빨대를 빨면서 감                     |
| 44 | 여2: 머리를 옆 가르마를 타고 앞머리를 붙여서 뒤로 묶음. 하늘색 세로로 된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흰색 스포츠 형 반바지를 입고 한 손에 연기 나는 음료수를 쥐고 먹으며 감. 고무로 된 슬리퍼를 신음. 베이지색의 체크 무늬 가방을 옆으로 땀. |

# **■ 강남역 6번 출구(타워레코드 뒷골목)**

(조사시간 : 2000. 8. 24.(목) 17:30-19:00      날씨 : 흐림)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 | 남1: 단발 갈색머리, 긴 남방(2개 풀음), 면바지차림, 핸드폰 한손에 들음, 우산들음, 흰색 운동화<br>남2: 커트머리, 빨강티에 청바지를 헐렁하게 입고 단화를 신음. 긴 금속 목걸이를 하고 금속 시계를 함. => 각자 서 있음.                                                                                     |
| 2 | 여1: 단발머리에 반바지와 티2장을 겹쳐 입고 운동화(양말 신음)에 책가방.<br>남: 단발머리에 긴면바지와 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단화를 신고 책가방.<br>=> 여자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걸어감.<br>여2: 단발머리에 반바지에 티2장을 겹쳐 입고 구두(양말 신지않음).<br>=> 두 친구 옆에서 걸어감.                                           |
| 3 | 남1: 노랑머리에 큰 귀걸이를 하고 흰 와이셔츠에 검정조끼를 입었다. 스포츠 머리에 무스를 바름. 검정구두를 신음.<br>남2: 노랑머리에 안경을 착용하고 흰 와이셔츠에 검정조끼를 입고 스포츠 머리에 무스로 넘김머리. 검정구두를 신고 껌을 씹으면서 어슬렁거림.<br>남3: 노랑단발머리에 병거지모자를 뒤집어서 쓰고, 흰 와이셔츠에 검정조끼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 검정구두를 신음.    |
| 4 | 여: 커트머리를 하고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어스트가방을 메고 갈색구두를 신고 껌을 씹고 걸어감 =>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감.                                                                                                                                                 |
| 5 | 남: 긴 스포츠 머리를 노랑색으로 염색하였지만, 검정머리가 1-2cm정도 자랐다. 검정색 티와 청색 통바지를 길게 입었다. 운동화를 신고 껌을 씹으면서 어슬렁거림. =>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음.                                                                                                          |
| 6 | 여1: 검정색 긴 머리를 올리고 무릎에 닿는 검은색 치마를 입고 검은색 핸드백을 메고 샌들을 신음.<br>여2: 단발머리에 반바지에 면 티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 흰색운동화를 신음.<br>여3: 단발머리에 긴 면바지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 긴 머리에 부분염색을 함.<br>여4: 단발머리에 반바지를 입고 MCM가방을 메고 흰 양말에 샌들을 신었음.<br>=> 다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감. |
| 7 | 여: 긴 머리를 흰색으로 염색하고 귀걸이를 하고 옆으로 가방을 메고 체크 반바지와 흰 면티와 티를 겹쳐입고 단화를 신음.<br>남: 스포츠 노랑머리에 긴면바지와 면티를 입고 단화를 신음.<br>=> 손을 잡고 서 있음.                                                                                              |
| 8 | 남: 커트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V라인 체크 티와 반바지를 입고 흰양말에 흰운동화를 신음. 옆으로 가방을 엉덩이 선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걸어감.                                                                                                                                         |
| 9 | 여: 긴 검정머리에 남색 반바지와 기본 티를 입고 옆으로 책가방을 메고, 귀걸이를 작게 함.<br>남: 교복을 입고 안경을 착용. 스포츠머리에 책가방으로 메고 운동화를 신음. => 팔짱을 끼고 걸어감.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10 | 남: 스포츠 머리에 빨강색 모자를 쓰고 빨강티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음.<br>면바지에 안경을 착용하고 단화를 신고 있음.                                                                                            |
| 11 | 여: 긴 검정머리에 핀을 착용하고 반바지에 양말없이 구두를 신고 긴티를 입었음. 체크 책가방.<br>남: 스포츠 머리에 책가방을 메고 니트 티와 긴 면바지를 입고 쇼핑백을 들.<br>=> 손을 잡고 걸어감.                                              |
| 12 | 남: 긴단발 머리를 노랑색으로 염색함. 연두색 긴 니트 티, 반바지에 긴 양말이 보이도록 흰색 운동화를 신고 핸드폰을 받으면서 걸어감.                                                                                      |
| 13 | 여: 비오는 날, 노란 우산을 쓰고 머리는 갈색 커트로 무스를 발랐음,분홍색 니트에 긴 면바지, 가방은 어깨에 맨 검정색,신발은 검정색 단화<br>여: 검정색 우산, 하늘색에 흰 줄무늬 먼 난방에 보통 검은색 긴 생머리. 반바지는 아이보리색,가방은 이스트백 아이보리색,신발은 황토색 단화 |
| 14 | 여: 긴 검정 머리. 손가방에 반바지 메이지색 먼,검정색 티셔츠,구두는 검정색 양말은 신지 않았음,핸드폰 받으면서 걸어감                                                                                              |
| 15 | 남: 하늘색 메이지리크 모자에 머리는 검정색 스포츠형, 흰색 먼 티에 찢어진 청바지에 가방은 사선으로 맨 카키색 작은 가방, 운동화는 하늘색 천천히 걸으면서                                                                          |
| 16 | 여: 단발 머리를 곱창으로 묶었음. 우산은 주황색,흰색 난방에 흰 운동화에 양말은 하늘색이 들어간 반화그림 양말, 베이직색 면반바지에 가방은 검은색 이스트백                                                                          |
| 17 | 남: 갈색 모자에 긴 체크 난방 파랑과 흰색무늬, 반바지는 아이보리색,검은색 샌들에 핸드폰 받으면서 검은 색 구두를 양말은 없이 신었음.                                                                                     |
| 18 | 남: 군용색 병거지 모자에 반바지는 카키색을 입었고 한손은 핸드폰을 한손은 주머니속에 넣음. 검은색 면티에 체크 무늬 난방을 걸쳤음.                                                                                       |
| 19 | 여: 단발머리. 하늘색 티. 남색 반바지. 아이보리색 배낭. 황토색 단화에 양말.<br>여: 어깨에 긴 단발.흰 줄 먼티, 검은색 청바지, 구두,웬시웬 가방<br>여: 단발머리 파랑색 반팔 칼라 있는 티, 반바지 체크, 책가방은 검정색<br>=>손을 잡고 걸어감               |
| 20 | 남: 흰색 나시, 긴 타이트 검정 바지,검은색 단화. 핸드폰 손에 들.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겔을 발랐음.                                                                                                       |
| 21 | 여1: 흰색 타이트 롱 치마 .검은 색 통굽, 곱창으로 머리 올리고 핸드백을 사선으로 찼음.<br>여2: 곱창올림. 흰색 반바지에 반팔 T셔츠, 운동화. 핸드폰 받으면서 걸어감                                                               |
| 22 | 남1: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흰수건을 목에 두름. 추리링 반바지에 손을넣고, 반팔 T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어슬렁거림.<br>남2: 걸 긴남방속에 흰색 T셔츠, 반바지에 손을 넣고 운동화 신고 어슬렁거림.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23 | 남: 커트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줄무늬 교복에 운동화 신음.<br>핸드폰 받으면서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감.                                                                                                                                                                      |
| 24 | 여: 긴 검정머리에 흰블라우스를 입고 굵있는 구두에 무릎선치마,<br>=> 어설픈 차림이며 약간은 아줌마풍.                                                                                                                                                                     |
| 25 | 남: 머리 앞 부분 노랑색 염색, 모자 T잡바에 흰반바지를 입고 양말은 신지 않고 운동화를 착용 했으며 우산을 들고 시계를 보고있음.                                                                                                                                                       |
| 26 | 여: 긴 갈색머리에 흰 반팔 T셔츠를 입고, 청반바지를 입고 굵있는 구두를 신고 흰가방을 들고 손을 잡고있음<br>남: 빨강모자를 뒤로 쓰고 반바지에 체크 남방을 입음, 핸드폰을 받고 있음.                                                                                                                       |
| 27 | 여: 뜨개질 천모자를 쓰고 긴 T셔츠에 청반바지를 입고 굵있는 샌들에 핸드폰을 받고있음                                                                                                                                                                                 |
| 28 | 남1: 짧은 단발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긴남방에 끝쭈은 긴바지정장을 입고있음.<br>썬그라스를 머리에 올려쓰고 담배를 피우며 걸어감.<br>남1: 갈색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검정색 정장과 샌들을 신고 핸드폰을 받으며 걸어감. => 일명 뼈가 갈아 보임.                                                                                    |
| 29 | 여1: 단발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긴 나시 검정 원피스를 입고있음.<br>진한 화장을 하고 핸드폰을 받으며 걸어감.<br>여1: 단발머리에 T셔츠, 짧은 청치마를 입고 흰운동화를 신고있으며 핸드백을 들고 걸어감.                                                                                                            |
| 30 | 여: 머리핀으로 머리를 올렸으며 하늘색 정장 바지를 입고 굵있는 샌들을 신고있음. 어설픈 화장에 핸드백을 들고 핸드폰을 받으며 걸어감.                                                                                                                                                      |
| 31 | 여: 긴 갈색머리에 흰 반팔 T셔츠를 입고, 청반바지를 입고 굵있는 구두를 신고 흰가방을 들고 손을 잡고있음<br>남: 빨강모자를 뒤로 쓰고 반바지에 체크 남방을 입음, 핸드폰을 받고 있음.                                                                                                                       |
| 32 | 남1: 커트머리에 반팔남방을 입고 반바지. 양말을 신은 단화.<br>남2: T셔츠에 체크 반바지를 입고 다듬지 않은 머리에 핸드폰을 받고 한손은 주머니에넣고 걸어감.                                                                                                                                     |
| 33 | 여1: 무스를 바른 단발류음 머리에 빨강 립스틱을 바르고 검은나시에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굵있는 샌들을 신음.<br>여2: 무스바른 단발머리에 검은 나시를 입고 짧은 청반바지. 통굽샌들을 신음. =>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보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임.                                                                              |
| 34 | 남1: 빨강모자속에 수건을 두르고 목에 흰 수건을 두름. 반팔 면T에 험렁한 긴 남색바지를 입고 단화를 신고 있음. 우산을 들고 핸드폰을 받고있음.<br>남2: 머리를 무스로 넘기고 옆머리는 길고 흰 반팔 면T에 긴면바지.<br>가방을 옆으로 매고 침을 빨고 있음.<br>여: 긴 갈색머리에 흰 메니큐어 손톱을 하고 있음.<br>흰블라우스에 긴 정장바지를 입고 검은 구두를 신고 손핸드백을 들고 있음. |

|    | 기술내용(머리, 의상, 악세사리, 행위유형...)                                                                                                                                                       |
|----|-----------------------------------------------------------------------------------------------------------------------------------------------------------------------------------|
| 35 | 여: 검정색 단발머리에 캐주얼 T블라우스를 입고 노랑색 반바지를 입음.<br>손핸드백을 들고 양말을 신지않은 굽있는 구두를 신고 있음.                                                                                                       |
| 36 | 여: 어깨에 대각선으로 가방을 메고 곱창올림에 흰양말을 신은 운동화.<br>흰T에 조끼를 걸치고 반바지를 입고 있으며 은목걸이를 착용.                                                                                                       |
| 37 | 여: 단발머리에 부분 갈색염색을 하고있으며 흰원피스에 청바지를 입고 샌<br>들을 신고 있음. 가방을 대각선으로 메고 머리장식을 하고 있음.                                                                                                    |
| 38 | 남: 커트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검정 선글라스를 쓰고 긴바치 흰남방을 입고<br>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있으며 핸드폰을 받고 있음.                                                                                                           |
| 39 | 여: 긴머리에 연한 화장을 했으며 눈썹과 입에 연한색 립스틱.<br>9부남방에 청바지를 입고 흰샌들을 신고 가방을 대각선으로 메고 있음.                                                                                                      |
| 40 | 여: 긴단발 머리에 T셔츠,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으며 책가방을<br>메고 핸드폰을 받고 있음.                                                                                                                        |
| 41 | 남1: 커트머리에 안경으로 쓰고 흰T, 반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으며 쇼<br>팽백을 들고 있음.<br>남2: 긴팔 줄무늬T에 긴 청바지를 입고 가죽 시계를 착용하고 있으며 안경<br>을 쓰고있음.                                                                 |
| 42 | 남: 속에 흰T를 입고 겉에 줄무늬 남방, 긴 면바지를 입고 단화를 신고있으<br>며 쇼팽백을 들고 있음.                                                                                                                       |
| 43 | 여: 진한 염색머리에 헐렁한T, 줄무늬 반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으며<br>가방을 대각선으로 메고 이어폰을 꽂고 걸어감.                                                                                                            |
| 44 | 남: 커트머리에 T셔츠를 입고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있음.<br>가방을 메고 이어폰을 꽂고 걸어감.                                                                                                                           |
| 45 | 여1: 단발머리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에 샌들을 신고 가방을 메<br>고 걸어감.<br>여2: 긴단발머리에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에 샌들을 신고 손가방<br>을 들고 걸어감.                                                                      |
| 46 | 여: 단발머리에 부분 염색을 연한갈색으로 넣고 이스트백 가방을 양쪽으로<br>메고 큰 인형을 달았음. 반바지에 기본 면티를 입고 샌들을 신음.<br>남: 스포츠 머리에 야구 모자를 거꾸로 쓰고 옆으로 늘어뜨려 메는 가방에<br>여자친구와 같은 큰 인형을 달고 긴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음.<br>=> 손을 잡고 걸어감. |
| 47 | 여: 긴 생 머리에 체크 남방에 체크 반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음. 책가방<br>을 메고 있음.<br>남: 스포츠 머리에 무스를 약간 발라 올리고 흰색 줄 티에 긴 면바지를 입<br>었음. 한 손에는 남방을 들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음.<br>=> 남자의 손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음.              |



## **연구자문 · 협력진**

### **◆연구자문진◆**

**고경임** 문경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성영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엄한숙** EBS 청소년프로그램 담당 PD

### **◆연구협력진◆**

**정일관** 성지고등학교 교사  
**유선영** 성지고등학교 교사  
**이수광** 간디학교 교사  
**정승관**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 교사

